



장수리

안중에서 20리,

그곳에 장수리가 있다.

장수리는 가사곶(佳土串) 서쪽에 위치했다.

낮게 흐르던 구룡이 경기만을 만나 멈춰선 곳.

사람들은 수백 년 동안 구룡을 개간하고

갯벌을 간척하며 바다와 갯벌에 기대어

억세게 살았다.



평택문화원

경기도 평택시 중앙로 277
Tel 031.655.2002 Fax 031.654.8807
www.ptmunhwa.or.kr



비매품/무료

03090

9 788993 198364
ISBN 978-89-93983-64-7

평택마을지 ①

장수리

사라지기 전 그리움을 남기다

평택문화원

평택마을지 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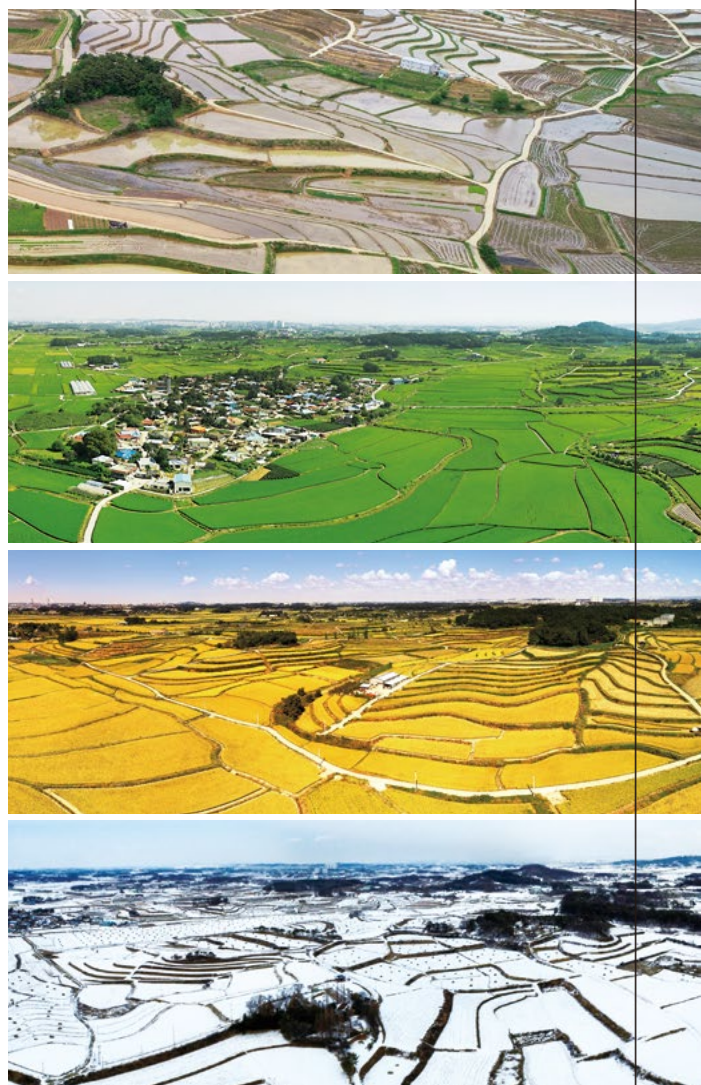
장수리

사라지기 전
그리움을 남기다

글 김해규 사진 최치선



평택문화원



글 김해규 (평택인문연구소 소장)

충남 서천에서 태어나 1989년부터 평택살이를 시작했다. 어려서부터 이야기 듣기를 좋아하고 역사 공부를 무척 즐겼다. 대학에서 역사학을 공부하여 한광중·고등학교 역사교사가 되었고,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한신대학교 일반대학원 한국사학과에서 역사를 연구했다. 처음에는 학생들에게 역사를 가르치고 답사 활동을 하다가 지역사회와도 나누고 싶어 '평택 지역사'를 연구하게 되었다. 30여 년 동안 지역 자료를 모으고 마을조사와 구술조사를 통하여 '아래로부터 역사 쓰기'를 시도했다. 『평택의 마을과 지명이야기』(전 3권), 『평택역사 산책』, 『평택의 근·현대를 걷다』, 『평택사람들의 길』, 『의병장 원연』 등 열권이 넘는 책을 썼으며, 지역조사를 통해 십 수권의 조사보고서와 향토지를 함께 냈다. 평택인문연구소장, 평택문화원 부설 평택학연구소 연구위원, 평택문화재단 이사로 지역사회와 나누고 봉사한다.



사진 최치선 (평택문화원 부설 평택학연구소 상임위원)

평택문화원에 재직하며 <평택의 사라져가는 마을 조사>와 <평택 미군기지와 사람, 삶의 기록>작업을 총괄하고 있다. 2014년부터 현재까지 150여 개 마을에 대한 인문지리, 구술조사 및 사진 작업 등 변화하는 고향의 모습과 기억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드론을 활용하여 평택의 아름다운 풍광과 사라지기 전후 마을의 모습을 담은 결과물로 2019년 <평택은 들이다>라는 기록사진전을 했다. 또한 동명의 제목으로 작사한 노래가 동영상으로 만들어져 평택지역 초등학교 3학년 사회과 지역화 교과서에 수록됐다. 2020년 제4회 평택국제사진축전(바깥전)과 2022년 <작가의 시선-평택아카이브전>에 참여했다.

평택마을지 ❶

장수리

사라지기 전
그리움을 남기다



평택문화원

사라지기 전에 변화하기 전에

‘기록되지 않은 기억은 불완전하고,
기억은 기록돼야 완성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기록하지 않으면 내일 기억되는 일은 미약하거나 사라질 것입니다.
또한 아무리 기록이 됐다 하더라도 이를 들춰보지 않으면 기억되지 않습니다.

평택문화원에서는 2014년부터 개발을 눈앞에 둔 마을을 우선으로 지속적이고 구체적인 방법으로 마을조사 기록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성을 갖춘 연구조사자가 인문지리, 구술조사 및 각종 사료를 수집하고 발굴한 자료들을 문서와 영상기록물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20여 명의 연구자가 150여개 마을을 대상으로 기록 작업을 했습니다. 그 결과물 중 후속 작업으로 평택마을지1 <장수리>를 편찬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읍·면지나 시사는 출간되었지만 마을지는 처음 출간되는 뜻 깊은 일입니다.

현덕면 장수리는 지난 2008년 정부가 중국 무역의 중심지로 황해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할 때 현덕지구에 포함됐습니다. 지구 지정 이후 마을은 정지된 시간 속에 갇혔습니다. 희망과 낙담이 교차하는 십 수 년을 불편을 감수하며 살아왔습니다. 역설적으로 마을은 난개발 없이 그대로 유지되어왔습니다. 경지정리가 안 된 논배미의 곡선과 구릉지를 개간한 다랑논들이 자연 그대로 사계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장수리가 어떻게 변할지는 시간이 문제입니다. 개발을 앞두고 평택호횡단도로와 제2서해안내륙고속도로가 장수리의 미래를 관통하고 있습니다.

사라지기 전에 변화하기 전에
수 년 동안 장수리 사람들의 삶을 글로 담아내느라 애쓰신 김해규 선생님과 모든 일을 기획하고 장수리의 사계를 사진으로 담아낸 최치선 상임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 12월

평택문화원장 이 보 선

장수리(長水里), 기억의 편린(片鱗)을 모으다

안중에서 20리, 그곳에 장수리가 있다. 장수리는 가사곶(佳士串) 서쪽에 위치한 마을이다. 낮게 흐르던 구룡이 경기만을 만나 멈춰선 곳. 장수리 사람들은 거친 환경에서 구룡을 개간하고 바다와 갯벌에 의지해 역세게 살았다.

1990년대까지만 해도 장수리는 반농반어(半農半漁) 마을이었다. 낮에는 간척지에서 농사짓고 썰물에는 갯벌에 나가 맨손어업을 했다. 그러다가 평택항 확장공사가 본격적으로 이뤄지면서 바다와 갯벌을 잃었다. 이제 경기경제자유특구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마을과 경작지까지 잃을 것이다.

장수리는 오랜 역사를 간직했다. 1789년에 편찬된 ‘호구총수’에도 마을 이름이 나온다. 당시에는 ‘두마리(頭馬里)’라고 불렀다 ‘두마리(頭馬里)’는 19세기 ‘두마리(頭麻里)’로 바뀌었고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두매리(斗梅里)’가 되었다. 두매리는 1970년 장수리로 바뀌었다. 현덕면의 오지라는 이미지를 바꾸고 싶었던 주민들의 열망 때문이었다. 마을 규모는 1950년대까지만 해도 97호나 되었다. 단일마을로는 매우 큰 마을이다. 1990년대 서동대로가 건설되고 도로 좌우에 상가들이 들어서면서 130호로 증가했다.

장수리는 해주 오씨, 김해 김씨, 경주 김씨가 대성(大姓)이다. 마을 입구의 김정한 효자비는 ‘효자마을’을 상징하며, 곳곳의 사당과 재실은 가문의 역사와 격(格)을 알게 한다.

예로부터 장수리는 주민조직이 탄탄하고 사회운동이 활발했다. 해방되던 해 오재환이 조직한 조기회의 민중계몽과 생활개선운동의 전통은 지금까지 장수리장학회와 한가위 대잔치로 계승되고, 새마을운동과 이동농업협동조합운동도 매우 활발했다. 과거에는 마을도서관과 야학도 운영되었다. 현재 운영 중인 자율방범대는 주민 자치의 수준을 기증케 한다.

경기경제자유구역 현덕지구의 중심에 장수리가 있다. 계획에 따라 개발이 진행되고 마을이 사라지면 수백 년 전통과 문화유산도 함께 사라져버릴 것이다. 포실하고 아름다웠던 마을 경관도 기억 저편으로 사라질 것이다. 갯벌을 막아 논밭을 일구고 모내기과 추수를 하며 희망에 부풀었던 땅의 기억, 삶의 기억도 잊혀질 것이다. 그 기억의 편린을 모아 한 권의 책으로 만들었다. 이 책이 장수리 사람들의 삶과 기억의 작은 근거가 되기를 소망한다.

2022년 12월

저자 김 해 규

화보 장수리의 사계와 지도 08

제1장 역사와 지리 25

01. 수백 년을 한 마을로 살았다	26
02. 300년은 살아야 토박이라고 할 수 있지	31
03. 시내버스 들어오면서 평택까지 통학할 수 있었죠	38
04. 들과 산에도 저마다 부르는 이름이 있어	43
05. 전깃불 들어오면서 대명천지 됐죠	50
06. 어민(漁民)들이 조직한 ‘장수리어촌계’	55
07. 주민들의 사랑방‘장수보건진료소’	62
08. 마을 운영의 중심은 대동회, 개발위원회, 이장	67
09. 봉사활동과 공공사업에 앞장 선 청년회	74

제2장 사회생활 81

01. 계몽운동에 앞장선 ‘조기회’	82
02. 현덕면의 으뜸 ‘두매리농업협동조합’	87
03. 서로 돕고 협동하며 봉사하는 자치조직	92
04. 출향인들이 만든 향우회와 장학회	98
05. 마을환경을 개선한 새마을운동	104
06. 우리 집이 쌀 100가마 짜리였어요	110
07. 광목과 나일론 나오면서 헐벗은 것 면했죠	120
08. 친정어머니 오셨는데 콩보리밥만 대접 했어요	124
09. 우리 때는 가마 타고 시집왔어요	129
10. 옛날엔 동네 사람들이 상(喪) 치렀지	135

제3장 생산활동 141

01. 간척과 경사지 개발로 경작지가 확장되다	142
02. 분배농지 없었으면 아직도 소작농(小作農)이죠	152
03. 아산만방조제가 장수리 농업 살렸어요	159
04. 옛날에는 두레패가 논매기했죠	168
05. 요즘엔 농기계 없이 농사 못 지어요	173
06. 고추 시설원예는 나 따라올 사람 없어요	180
07. 젊을 때부터 낙농업이 꿈이었어요	186
08. 요즘엔 안중장 나갈 일도 없어요	191
09. 아산만 생선은 영복호가 다 잡았죠	196

제4장 교육과 문화 201

01. 근대교육에 기여한 사립 동광학원	202
02. 장리쌀 빌려서 등록금 냈어요	207
03. 효자마을의 상징 ‘김정한 효자비’	212
04. 우리 할아버지가 천도교인였어요	217
05. 두매교회가 장수전원교회가 되다	221
06. 당제(堂祭)를 지내야 마을이 평안하지	227
07. 추수 끝나면 굿하느라 시끄러웠어요	234
08. 장수리의 대동잔치 ‘한가위 축제’	239

장수리 사람들 사진 244



장수리의 봄



장수리의 여름



장수리의 가을



장수리의 겨울

장수리 사라지기 전 그리움을 남기다 —————



장수리 다랭이논의 봄, 여름, 가을, 겨울





권관리 가는 길(2020)



아~아~ 주민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2018)



장수리 당숲(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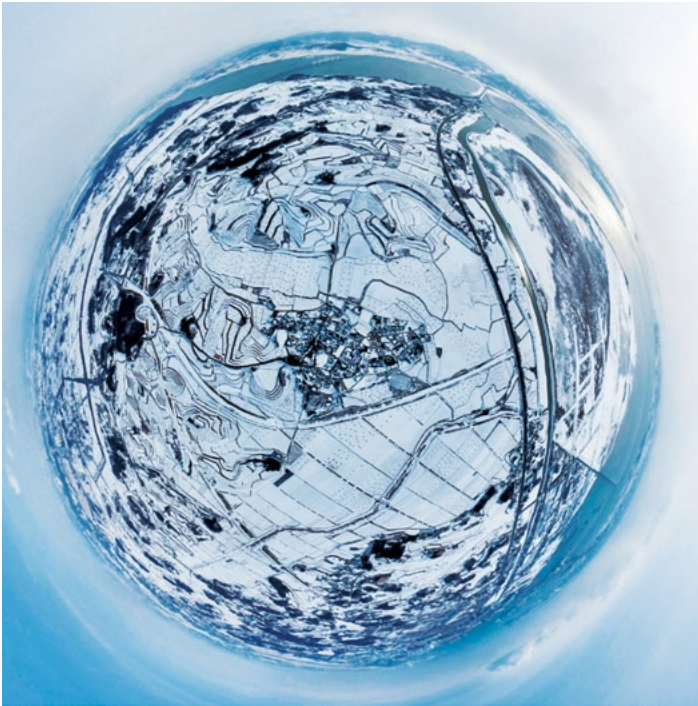
새 모양으로 추수된 장수리의 논



철새는 날아가고 장수리의 겨울



장수리에서 본 평택항 신생매립지(가운데)
오른쪽으로 서해대교와 평택항이 보이고 왼쪽은 권관리와 평택호다(2022)



장수리 설경(2022)



장수리 앞 갯고랑과 매립지에서 본 노을(2020)



장수리 앞 바다 매립지에서 본 마을 전경(2020)

연도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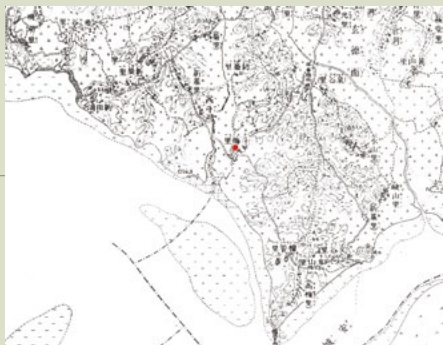
장수리 지도



조선지도 수원부



1872 지방도 수원부



1919



1929



1938



1963



1968



1976



1979



2022

장수리

01

사라지기 전
그리움을 남기다

01

제 1 장

역사와 지리

- 01. 수백 년을 한 마을로 살았다
- 02. 300년은 살아야 토박이라고 할 수 있지
- 03. 시내버스 들어오면서 평택으로 통학할 수 있었죠
- 04. 들과 산에도 저마다 부르는 이름이 있어
- 05. 전깃불 들어오면서 대명천지 됐죠
- 06. 어민들이 조직한 '장수리어촌계'
- 07. 주민들의 건강사랑방 '장수리 보건진료소'
- 08. 마을 운영의 중심은 대동회, 개발위원회, 이장
- 09. 봉사활동과 공공사업에 앞장선 청년회

01.

수백 년을 한 마을로 살았다

장수리는 가사곶(佳士串) 끝자락에 위치했다. 서쪽으로는 아산만에 인접하고 동쪽으로는 구릉이 솟았으며 서쪽 낮은 지형에는 들판이 형성되었다. 생활 조건은 열악했지만 식수를 구할 수 있었고 땀감과 어패류가 풍부해서 수백 년 전부터 마을이 형성되었다.

장수리와 관련된 기록은 1791년에 작성된 《호구총수》에도 나온다. 마을의 토성(土姓)들도 300여 년의 내력을 갖고 있다. 마을에서 가장 오래된 성씨는 김해 김씨



장수리의 가을(2019)

다. 김해 김씨는 10대 300여 년의 역사를 간직한다. 해주 오씨도 9대 이상을 거주했다.

장수리는 예로부터 단일마을이었다.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곳(串)에 위치하는데 마을 동쪽에는 마장(馬場)의 흔적까지 있어 마을 형성 초기에는 규모가 작았을 것이다. 《조선왕조실록》에는 해일과 우박과 같은 자연재해 기록도 자주 나온다. 마을 규모가 확장되고 인구가 증가한 것은 간척(干拓) 때문이다. 간척으로 바닷물이 드나들던 서쪽 갯벌이 개간되면서 새로운 인구가 유입되고 마을이 형성되었다. 하지만 간척지 주변에 형성되었던 마을들은 잦은 해일과 포락(浦落)으로 폐동(廢洞)되기 일쑤였다. 지금도 장수리 서북쪽 개작모퉁이와 새털말에는 사라졌던 마을의 흔적이 남아 있다.

장수리는 윗말과 아랫말로 구분한다. 윗말이 1구, 아랫말이 2구다. 두 마을은 해방 전까지만 해도 구장을 따로 두었다. 그만큼 마을 규모가 컸다는 말이다. 이것을 해방 후 단일마을로 만들고 이장 한 명에 반장 둘을 두었다.

장수리의 옛 지명은 ‘두매리(斗梅里)’였다. 본래는 ‘두마리’였던 것을 1914년 행정 구역개편 때 ‘두매리’라고 표기했다. 한때 ‘두매’라는 지명은 주변 마을의 놀림감이 되기도 했다. 마을이 현덕면의 오지에 위치하다 보니 ‘두메산골’ 또는 ‘두메놈’이라고 깎아내리는 일이 많았다. 마을 이름이 주민들의 자긍심을 훼손한다고 생각한 출향인 오재환(남, 1928년생)과 이장 김영준(남, 1933년생)은 마을 이름 개명을 추진했다. 김영준은 대동회를 열어 주민들을 설득하고 내무부에 진정서를 제출했으며, 오재환은 내무부 고위공무원 최종구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결국 오재환과 김영준의 노력과 주민들의 협력, 최종구의 도움으로 마을 이름이 ‘장수리(長水里)’로 바뀌었다. 1970년 1월 17일의 일이다.

과거 장수리는 사람 살기에 좋은 환경은 아니었다. 2007년 인터뷰한 홍병욱(남,

1921년생)은 장안말떼에 ‘국영 마장(馬場)’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다른 주민들도 150년 전에는 마을 주위에 목장토성도 있었다고 말했다. 홍씨는 “제주도에서 어린 말을 배에 싣고 신전포로 들여와 장안말떼에서 준마로 기른 뒤 다시 실어갔다”는 구체적 증언도 했다. 국영 마장이 있었다면 조선시대 장수리 주민들은 목부(牧夫)로 노역했을 것이다. 목부(牧夫)는 마장(馬場) 안에 거주하던 주민들이 담당했던 부역(賦役)으로 말의 사육에서부터 운반까지 책임지는 역할을 했는데 노역(勞役)인데다 관리들의 수탈이 심해서 신랑역천(身良役賤)의 직업으로 분류되었다. 목부(牧夫)들은 1894년 갑오개혁으로 목장(牧場)이 폐지되면서 본래의 신분을 회복했다. 목장이 폐지되고 본격적으로 간척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인구도 크게 증가했을 것이다.

장수리 사람들의 직업은 대부분 농업이다. 조선시대에도 목부(牧夫)로 일하면서 반농반어를 했을 것이다. 조선 전기만 해도 주로 밭농사를 지었다. 고재집떼, 장안말떼의 구릉을 다듬어 보리와 밀, 수수, 콩, 채소를 심었다. 그러다가 바닷물이 드나들던 갯벌을 간척하면서 논농사가 발달했다. 간척지는 독골, 수루골, 텃논, 안새원, 운동배미, 소원틀, 궁논에 많다. 독골, 수루골이 골짜기를 개간한 것이라면 안새원, 소원틀, 운동배미는 갯벌을 간척한 땅이다.

장수리는 농업용수가 부족했다. 힘들게 간척해서 논을 만들었지만 물이 없어 모내기 철을 넘기곤 했다. 부자들은 소작농을 동원해서 수룻골과 텃논에 방죽을 만들고 곳곳에 우물을 팠지만 가난한 농민들은 하늘을 보며 한탄만 했다. 그러다가 주민들이 나서서 방림천에 보(淤)를 쌓았다. 그것으로 못자리를 만들고 모내기를 했다.

장수리는 바다를 앞에 두었지만 어업은 발달하지 않았다. 오재환(남, 1928년생)은 일제강점기까지만 해도 장수리에서 어업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다가 한국전쟁 뒤, 신왕리와 대안리에서 이주해온 안홍규의 부친이 어업을 시작했다. 나중에는 동네 사람 몇몇도 안씨를 따라 어업에 뛰어들었다.



장수리 전경(2020)

1960년을 전후해서 맨손어업이 시작됐다. 처음에는 여성들의 몫이었던 맨손어업이 높은 소득을 안겨주자 나중에는 남자들도 뛰어들었다. 주민들은 1톤, 3톤짜리 작은 어선을 타고 멀리 아산만 입구나 포승읍 원정리 멍거니 부근까지 가서 바지락과 굴, 갯지렁이, 맛을 잡았다. 일부 어민들은 조개잡이 다니는 사람들을 태워다주고 샴을 받았다. 때론 생명을 잃기도 하고 위태롭기도 했지만 그렇게 강인하게 살아냈다. •

02.

300년은 살아야 토박이라고 할 수 있지

장수리에는 경주 김씨, 김해 김씨, 해주 오씨가 많다. 정착 시기로도 이들이 가장 앞선다. 김해 김씨 석성공파는 김후희가 입향조다. 후손 김영준(남, 1933년생)의 10대조이므로 대략 300여 년 전에 입향했다. 김후희는 경남 김해에서 살았다. 이주 동기는 알 수 없지만 화성시 양감면으로 이주했다가 장수리로 옮겨 정착했다. 김해 김씨는 1960년경 전체 97호가 거주할 때 20호(戶)를 차지하는 대성(大姓)이었지만 지금은 6호(戶)만 남았다. 해방 전후부터 이장과 이동농업협동조합장, 노인회장 등을 배출하며 마을 발전에 기여했다.

해주 오씨는 선전공파와 벽성군파가 함께 거주한다. 입향 시기는 선전공파가 빠르며 벽성군파는 18세손 오세봉이 입향조다. 후손 오경석(남, 1952년생)은 선전공파는 선조 때 인물 오대남의 아들 오영이 파조(派祖)라고 말한다. 후손 가운데 족보상으로 세거 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 인물은 고재집때 부근에 산소가 있었던 오세적이다. 오세적은 1685년에 출생하여 1740년에 사망했다. 벽성군파의 입향조 오세봉은 본래 한양에 거주하다가 어머니 산소가 있는 장수리로 낙향했다. 입향 후 자손들이 번창하여 화성시, 포승읍, 장수리 일대에 퍼졌다. 장수리에서 방축리로 넘어가는 길옆에 해주 오씨 벽성군파 묘역과 사당이 있다. 선전공파 묘역은 마을에서 고재집때 방향으로 나가는 길옆에 있다. 벽성공파 묘역 입구 표석에는 '1972년 야



해주 오씨 벽성군파 장수리 묘역(2017)



해주 오씨 벽성군파 사당 영녕묘(2017)

산개발로 종종묘역이 수용되면서 파묘(破墓) 후 화장(火葬)했으며, 1983년 새로 토지를 구입하여 사당과 묘역을 정비했다'는 사실을 기록했다. 해주 오씨는 과거 25호(戶)가 거주했지만 지금은 도시 이주와 사망으로 5, 6호(戶)만 남았다.

경주 김씨 계림군파는 장수리를 비롯해서 포승읍 신영2리 매상동과 도곡리 무수동에 분포한다. 이들은 김진홍(남, 1938년생)의 조부 때 도곡리 무수동에서 이주했다. 거주기간이 짧아서 마을 안의 경주 김씨는 대부분 인척이고 향렬도 '진'자 돌림이 많다. 장수리에는 경주 김씨 사당과 종종 묘역이 있다. 종종 묘역에는 44분의 묘(墓)를 모셨다. 사당은 마을 입구에 있다. 사당 옆에는 1908년(순종2)에 건립된 김정한의 효자 정려(旌閭)도 함께 있다. 경주 김씨는 현재 9호가 거주한다. 시제는 음력 10월 보름쯤에 지내는데 아직도 후손들이 많이 참석한다.

곡부 공씨는 현덕면 덕목3, 4리에 집성촌을 이뤘다. 고려 후기 노국대장공주와



경주 김씨 사당과 김정한 효자비(2020)



김해 김씨 석성공파 사당(2017)

함께 중국에서 건너온 공소(孔紹)가 중시조다. 조선 건국 후 공소의 손자 어촌공 공부가 현덕면 덕목5리에 낙향하면서 평택지역 세거가 시작됐다. 장수리에는 공재덕이 현덕면 기산1리에서 이주하면서 세거가 시작됐다. 공재덕은 5남 3녀를 낳았는데 이들이 마을에 분포하면서 세(勢)가 확장됐다.

순흥 안씨 참판공파는 출향인 안계종의 조부가 4남 2녀를 데리고 입향하면서 세거가 시작됐다. 한국전쟁 뒤에는 안병석(남, 1926년생)이 입향했다. 신왕1리가 고향이었던 안병석은 나중에 덕목리로 이거했다가 고모할머니가 거주하는 장수리에 정착했다. 지금도 일가들이 덕목리와 신왕리에 있어 시제나 종친회도 신왕리에서 거행하며, 참판공파 광덕종친회장도 안홍규(남, 1953년생)가 맡고 있다.

남양 홍씨 익산군파는 100여 년 전 신영리에 살던 홍순화가 장수리로 분가하면

서 세거가 시작됐다. 후손 홍세기(남, 1947년생)는 조부께서 최씨네 마을을 보기 위해 이주했다고 말했다. 그래서 지금도 가까운 친척들은 신영2리 직산동에 많고 종종묘도 그곳에 있어 시제를 지낼 때도 신영리로 간다.

해주 오씨 후손 고 오재환(남, 1928년생)은 마을에서 칭송받는 인물이다. 초등학교를 졸업한 뒤 독학으로 중등과정을 공부했고, 해방 후에는 대한청년단 현덕면 선전부장으로 활동하는 한편 장수리 조기회를 조직하여 주민계몽과 문맹퇴치, 마을 혁신을 위해 노력했다. 한국전쟁 직후 서울로 상경한 뒤에도 출향인들을 모아 장수리아향회와 장수리아향장학회를 설립하고 소식지인 장수리아향회보를 발행하는 등 다방면으로 활동했다. ‘장수리’ 개명(改名)도 그가 주도했다.

장수리의 성씨들은 가문에 대한 자긍심이 남다르다. 종중의 사당과 재실을 건립하고 묘역을 조성하는 데도 열심이다. 친족이나 일가 사이의 위계질서를 잘 지키며 시제나 제사에도 많은 후손들이 참여한다. 출향인 고 오재환(남, 1928년생)은 ‘최소 200, 300년은 살아야 뿌리가 깊이 내린다’고 말한다. 그래야만 가문의 기반이 굳건해진다는 말이다. •



03.

시내버스 들어오면서 평택까지 통학할 수 있었죠



장수리로 들어가는 길(2017)

장수리는 교통의 오지다. 동북쪽으로는 가사곶을 따라 육로가 형성됐고 서쪽으로는 아산만과 잇닿아 있어 주변지역과 소통이 어려웠다. 장수리는 안중장이나 현덕면 소재지인 인광리를 중심으로 생활했다. 안중장으로 가려면 현덕면 도대리와 인광리를 거쳐 안중까지 걸었다. 도대리까지는 2km, 면소재지인 인광리까지는 4km, 안중장까지는 6km였다. 안중 가는 길은 안중장을 볼 때나 1922년 개교한 안중초등학교, 1934년에 개교한 현덕초등학교를 다닐 때도 걸어 다녔다. 1970, 80년대까지는 성당이나 병원을 갈 때도 이 길로 다녔다. 포승읍 신영리를 갈 때는 현덕면 방축리로 돌아서 갔다. 그러다가 원논과 궁논들이 간척된 뒤로는 논둑을 넘어 다녔다.

가사초등학교는 동쪽 수루굴을 넘었다. 아산만방조제가 건설되기 전에는 권관리 계두진과 석화진으로 가는 길도 중요했다. 계두진에서 나룻배를 타면 아산 백석포나 공세포로 건너갈 수 있었다. 그래서 조선시대에는 아산뿐 아니라 예산, 홍성 등 충청도 내포지역의 선비들이 계두진으로 넘어 와서 한양으로 올라가 과거를 봤다. 계두진, 석화진, 신전포로 아산만 연안의 여러 지역들과 교류하면서 충청도 내포지역에서 이주해오거나 혼사가 이뤄지기도 했다.

일제강점기부터 건설되기 시작한 국도 39호선이 1979~1983년 사이에 완공되었다. 충남 부여에서 의정부까지 연결된 국도 39호선은 평택지역에서는 현덕면 권관리 계두진에서 안중을 거쳐 화성시 발안 방향으로 올라갔다. 근대도로가 건설되면서 자가용이나 대중교통의 통행이 가능해졌다. 과거에는 나룻배를 타고 건넌 아산이나 당진지역도 자동차로 갈 수 있게 되었고, 현덕면사무소나 안중장을 갈 때도 신작로로 다녔다. 학생들도 현덕초등학교나 안중중·고등학교를 통학할 때면 신작로를 따라 걷는 경우가 많았다.

대중교통은 1956년부터 운행되었다. 안중에는 발안-수원-서울을 오가는 시외



장수리 고재집떼에서 관관리 가는 버스도로(2020)

버스가 있었다. 서명석(남, 1939년생)은 1957, 8년 안중과 현덕면에는 남북여객이라는 시외버스가 운행되었다고 말했다. 비슷한 시기 기산리 가사마을까지 들어왔던 상일여객도 있었다. 상일여객은 가사에서 포승을 내기리를 거쳐 서울까지 운행되었다. 1950, 60년대 장수리 사람들은 안중이나 서울로 가려면 기산4리 가사마을이나 인광리 면사무소까지 걸어가서 버스를 탔다.

1974년 아산만방조제 준공은 농업용수뿐 아니라 도로교통에도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방조제 준공 이전에는 장수리에서 충청도 내포지역으로 가려면 나룻배를 타거나 자동차를 타고 평택 시내를 거쳐 예산 신례원으로 돌아서 가야만 했다. 하지만 방조제가 준공되면서 서울에서 안중과 현덕을 거쳐 곧바로 아산과 당진으로 갈 수 있게 되었다. 1979년에는 삽교천방조제까지 준공되면서 거리가 크게 단축됐다. 삽교천방조제 건설 후 현덕면 권관리에서 아산만방조제와 삽교천방조제를



장수리에서 안중 간 시내버스(2018)

거쳐 당진까지 가는 용남여객 시외버스가 운행됐다. 장수리 사람들은 수원이나 당진, 서울을 갈 때 권관리까지 걸어가거나 고재집떼를 넘어 도대1리 샘골 앞에서 시외버스를 탔다.

아산만방조제 준공으로 시외버스 교통은 원활해졌지만 마을 안까지 들어오는 시내버스는 오랫동안 운행되지 못했다. 그래서 안중장이나 평택장을 갈 때 또는 학생들이 통학할 때 어려움이 많았다. 고등학교를 평택 시내로 진학한 학생들은 통학의 어려움 때문에 부득이 자취나 하숙을 했다. 마을의 숙원사업인 시내버스 운행은 이장 홍세기, 새마을지도자 봉하섭, 주민대표 김정수, 김지만, 김영준이 나서서 성호여객과 협상하면서 해결됐다. 이들의 노력으로 안중-장수리 간 시내버스가 하루 1회씩 운행됐고 1970년경에는 3회로 늘었다. 초기 버스정거장은 고재집떼에 있었다. 그러다가 새마을사업으로 도로가 정비되면서 1981년부터는 마을회관 앞까지



권관리에서 장수리 가는 길(2020)

들어왔다.

시내버스가 운행되면서 시장에 갈 때나 병원에 갈 때 편리해졌다. 아이들도 평택 시내 중·고등학교로 통학할 수 있게 되었다. 김춘자(여, 1944년생)는 1980년대까지만 해도 안중에서 장수리까지 왕복 버스비는 400원이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가난한 농촌에서는 400원도 큰 부담이어서 버스비를 아끼기 위해 걸어 다니는 사람도 많았다. 주민들 중에는 운전으로 생업을 삼았던 사람도 있었다. 1972년 장수리에 정착한 송영덕(남, 1936년생)은 1956년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군대 운전병을 거쳐 시외버스 운전, 새마을 트럭 운전까지 다양한 차량을 운전했다. 기산리 새마을 트럭을 운전할 때는 장날 주민들의 짐을 싣고 다녔으며 쌀을 싣고 서울로 팔러 다니기도 했다. 1980년대까지 서너 대뿐이었던 시내버스는 근래 9대로 증가했다. 하지만 자가용 이용자가 많아지고 젊은층이 감소하면서 이용자는 크게 줄었다. •

04.

들과 산에도 저마다 부르는 이름이 있어

지명(地名)은 역사이며 삶이다. 장수리는 단일마을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여러 마을이 있다. 본디 지명은 ‘두매리’였다. 두매리 이전에는 ‘두마리’였다. 장수리(長水里)라는 지명은 1970년에 만들어졌다. 장수리에는 윗말과 아랫말이 있다. 처음 윗말이 형성됐고 낮은 지대로 경작지가 확장되면서 아랫말이 만들어졌다. 아랫말 서쪽 바닷가 근처 새터말과 개작모통이에도 사람이 살았던 흔적이 있다. 이곳에서

장수리 원논 일대(2020)





장수리 마을입구 고재집떼(2017)

는 1970년대 초까지 만해도 집터와 절구통, 기왓장이 발견되었다.

동쪽 입구 고재봉은 마을의 주산이다. 고재봉은 ‘고재집떼’로 부른다. 1970, 80년대 고재집떼에는 버스정류장이 있었다.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 갔다가 밤늦게 돌아오면 부모들이 고재집떼까지 마중을 나갔다. 고재집떼 옆에는 장안말떼와 성독이 있다. 주민들은 장안말떼는 조선시대 국영마장이었고 성독은 목장토성이었다고 말한다. 목장토성은 흥원마장, 양야꽃마장이 있었던 안중읍 성해리, 석정리 일대와 괴태꽃마장이 있던 포승읍 원정리에도 있다. 김정한 효자 정려가 있는 봉우리는 매화봉이다. 김해 김씨 사당과 묘역이 조성된 남쪽 봉우리는 금당이고, 장수리에서 고재봉을 지나 기산1리 샘골로 넘어가는 고개는 채미미고개다.

수릿골은 가사초등학교로 가는 길옆의 골짜기다. 다른 이름으로는 높은 지대에

위치했다고 해서 ‘수릿’, ‘수루골’로도 부른다. 수릿골에는 계곡물이 흐르고 중간에 논방죽도 있어 기름진 논들이 많았다. 농촌에서는 이런 논들을 ‘흥년 밥그릇’ 또는 ‘고실논’이라고 부른다. 고실논은 땅값도 비쌌고 소출도 많았던 문전옥답이었다. 고재봉 좌측 골짜기 위쪽을 샘골이라고 불렀다. 샘골에는 지하에서 물이 뿜어져 나오는 맑은 샘이 있었다.

서남쪽 논농사지대에는 금덩이, 이안이골, 팽나무골, 고창골, 독골, 복나무골, 음석골, 텃논과 같은 지명이 있다. 논농사지대에서 ‘골’자가 붙으면 계곡에 형성된 논이다. 앞서 열거한 논들도 고재봉 좌우 계곡에 형성되었고 독골은 1970년대 야산 개발 할 때 만든 계단식 논이다. 텃논 서남쪽 간척지는 ‘안새원’이다. 강가나 바닷가에서 ‘원’은 ‘제언(堤堰)’을 말하는데 간척할 때 제방을 축조하여 만든 땅이다. 장수리에서는 간척지 논들을 통칭할 때도 ‘원논’이라고 부른다. 안새원은 장수리의 주



궁논들 일대(2020)



장수리 운동배미(2017)



장수리 주경작지 수루굴 일대(2012)

경작지다. 안새원 들판에 나가면 지금도 서쪽 낮은 지대에 둑(제언)을 쌓은 흔적이 남았다.

소원들과 평너머골, 집너머들, 궁논, 자리들, 운동배미, 원논, 봉나무골, 아래들은 구릉과 들판이 만나는 지점 또는 그 아래다. 소원들은 서동대로(국도 38호선) 접경의 간척지로 안새원과 함께 장수리의 주 경작지고, 평너머골은 마을진입로 좌측 계단식 논이다. 이곳은 본래 발농사지대였지만 1970년대 후반 경사지개발을 하면서 계단식 논으로 바뀌었다. 집너머들은 김정한 효자비 우측 골짜기로 비교적 넓은 논농사지대에 속한다. 궁논은 마을진입로 우측 골짜기로 조선시대 궁방전이 있었다. 궁논은 물이 부족하고 경작이 힘든 땅이어서 ‘흉년 때 국 한 그릇하고 바뀌 먹었다’는 말이 전한다. 자리들은 아랫말 아래쪽 들판이며, 운동배미는 김정한효자비 서북쪽으로 형성된 계단식 논이다. 봉나무골은 가사초등학교 가는 길 좌측 경사진 논농사지대다.

마을 형성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는 우물과 땔감, 경작지이다. 물이 있어야 사람이 살 수 있다. 그래서 마을 터를 알아볼 때 가장 먼저 고려한 것이 우물이다. 장수리는 바닷가 마을이지만 우물이 여러 개였다. 마을 규모가 크기도 했지만 바닷가에 인접하여 그만큼 좋은 우물을 구하기가 어려웠다는 뜻이기도 하다. 설정지우물은 윗말의 공동우물이다. 아랫말 느티나무 아래에는 들매우물이 있다. 바닷물이 드나들었던 곳에 우물이 있다는 사실은 놀랍다. 김정한효자비 서남쪽에도 ‘집너머 우물’이 있었고 김영일씨 댁 옆에는 두메물이 있었다.

장수리에도 다리가 있다. 아랫말 서남쪽 원논 가운데의 다리가 그것이다. 일제강점기에는 이곳까지 바닷물이 드나들었다. 다리 옆에는 쪽배를 매어두었던 고목나무도 있었다. 아랫말 서쪽에는 뱃터도 있었다. 어민들이 배를 정박했던 곳이다. •



05.

전깃불 들어오면서 대명천지 됐죠



장수리 아랫말 들매물(2020)

과거 농촌마을은 자급자족을 했다. 농기구에서부터 명석, 떡구리(떡동구미), 망태기, 삼태기, 지게, 짚신과 같은 생활 도구도 직접 만들어 썼다. 식수와 농업용수도 자급자족했다고 볼 수 있다. 도정(搗精)도 절구와 맷돌, 채와 같은 도구를 사용했으니 자급자족에 해당된다. 도구는 개인이 소유하기도 했지만 우물이나 도정(搗精) 시설처럼 공동노동이 필요한 것들은 마을에서 공동으로 관리했다. 장수리에는 우물과 보(洑), 연자방아, 디딜방아, 상여, 가마 같은 공동시설이 있었다.

장수리에는 우물이 네 개나 있었지만 식수로 사용했던 것은 아랫말의 들매물과 윗말 설정지물 뿐이었다. 아랫말 사람들은 들매물을 길어 먹었고 윗말에서는 설정지물을 먹었다. 빨래도 두 우물에서만 했다. 다른 우물은 염기가 많아서 머리를 감아도 뻗뻗했고 빨래를 하거나 그릇을 씻으면 삭아버려 허드렛물로만 사용했다. 주민들은 식수를 암물과 솥물로 구분했다. 암물은 색이 뿌옇지만 물이 달고 맛이 좋았으며 솥물은 맑지만 썩다고 말했다. 박순예(여, 1933년생)는 들매물과 집념어물은 암물이어서 물맛이 좋고 설정지물은 솥물인데 수량이 풍부해서 가뭄에도 마르지 않았다고 말했다. 물기는 노동은 주로 여성들이 했다. 과거에는 물동이로 길었지만 한국전쟁 뒤로는 물지게를 많이 사용했다. 하지만 마을 규모가 크다 보니 식수는 늘 부족했다. 그래서 여성들은 새벽에 일찍 일어나 우물가로 종종걸음을 쳤다.

1960, 70년대에는 관정(管井)을 파서 펌프를 설치하는 집이 나타났다. 펌프는 마중물을 한 바가지 넣어 작두 같은 손잡이를 움직여야 물이 나왔다. 그래서 ‘작두물’이라고도 했다. 새마을사업을 하면서 전기가 도입되자 1978년에는 간이상수도를 설치했다. 마을에서는 사업자를 불러 관정을 깊이 파고 마을회관 옆과 어촌계 사무실 옆에 집수정을 설치해서 집집마다 물을 공급했다. 간이상수도를 설치하면서 물지게가 사라졌다. 여성들의 가사노동이 그만큼 줄었다. 2010년에는 광역상수도가 들어왔다. 새마을운동 때 뚫던 간이상수도 관정이 음용수 불가 관정이 나면서 이장 안홍규와 홍세기, 김영일이 권관리 인효환의 도움을 얻어 현덕면 최초로 광역

상수도를 설치할 수 있었다.

집집마다 절구통과 절구가 있었지만 많은 양을 한꺼번에 할 도정(搗精)할 수 없어서 마을에서는 연자방아와 디딜방아를 설치했다. 오재환(남, 1928년생)은 1930년대 말 장수리에는 연자방아가 1개 있었고, 디딜방아는 윗말과 아랫말에 각각 1개씩 있었다고 말했다. 박순예(여, 1933년생)도 1950년대 중반 시집왔을 때 디딜방아가 한 개 있었다고 말했다. 연자방아는 축력(畜力)으로 도정하여 농우(農牛) 키우는 집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다. 농우(農牛)가 없을 경우에는 빌려 쓰고 비용을 지불했다. 디딜방아는 품앗이를 했다. 장수리의 디딜방아는 5인용이었다. 한 명은 화에 곡물을 우겨넣고 4명이 발로 밟았다. 도정할 곡식이 소량이면 절구에 찧어서 도정했다. 정미소는 해방 후 2개가 설치됐다. 통상 푹딱이라고 불렀던 구보다발동기를 사용했는데 윗말의 오덕유의 방앗간은 규모가 작은 개인방앗간이었고 아랫말



장수리 간이상수도 물탱크(2022)

김영기의 방앗간은 발동기가 크고 밤낮으로 운영했을 만큼 규모가 컸다. 1960년 두매리농업협동조합에서 마을회관 옆에 정미소를 설치했다. 조합 방앗간은 곡물 정미 외에도 고추방아와 떡방아도 찧었다. 비용도 저렴해서 순식간에 마을 정미업을 장악했다.

전기가 들어오기 전에는 등잔불을 켜다. 주로 석유등잔이었다. 박순예(여, 1933년생)는 한국전쟁 뒤 시집을 왔더니 석유등잔을 켜고 있었다고 말했다. 전기는 1972

년에 도입됐다. 당시 전기 도입은 마을의 숙원사업이었다. 전기가설을 하려면 한국전력에 보증금을 내고 허가를 받은 뒤 전업사와 계약하여 설비를 했다. 그러다 보니 주민동의가 필요했고 재정적 여력도 있어야 했다. 장수리는 이동농업협동조합에서 정미소와 구판장을 운영했기 때문에 마을 공동기금이 넉넉했다. 대동회에서는 조합기금으로 전기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당시 이장이었던 김영준(남, 1933년생)은 그 금액이 쌀 수백 가마는 되었을 거라고 말했다. 전기가설은 일상생활뿐 아니라 생산 활동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다. TV와 같은 가전제품이 사용되었고 밤



봉하섭 가옥 전기가설 모습(2017)

에도 비교적 자유롭게 일할 수 있게 되었다. 1980, 90년대에는 냉장고, 세탁기, 전기밥솥이 일반적으로 사용됐으며, 주택을 개량하고 심야전기보일러를 설비하는 집들도 많았다.

전화는 1966년 김영준 댁에 설치한 행정 전화가 최초다. 일반 가정에서 전화를 가설한 것은 1975년경부터다. 1980년대 초, 중반에는 대부분 전화를 구비했다. 근래에는 휴대전화가 널리 사용된다. 아직까지 집집마다 유선전화가 있지만 활용도는 떨어진다.

전기, 전화와 같은 근대문물의 도입은 장수리 사람들의 삶을 크게 변화시켰다. 세계동향이나 국내 정치 동향을 안방에서 알게 됐으며 도시인들의 생활풍습이 시골에까지 영향을 끼쳤다. 전화는 인간관계를 직접 소통에서 간접 소통으로 바꿨다. 1970년대의 교육열, 젊은층의 도시 정착도 전기와 같은 근대문물의 영향이 크다. •

06.

어민(漁民)들이 조직한 ‘장수리어촌계’



맨손어업을 했던 장수리 앞 갯벌(2010)



아산만 갯벌에서 갯지렁이 잡던 쇠스랑

해방 전까지만 해도 장수리에서는 어업하는 사람이 없었다. 아산만 바다는 갯고랑이 깊게 패인데다 물살이 썰서 어선 접안이 어려웠다. 갯벌도 깊고 폭폭 빠져서 배를 타고 멀리 가지 않으면 맨손어업도 불가능했다. 맨손어업은 1960년 전후 시작되었다. 1950년대 말 마을 앞 갯벌에 모래톱이 형성되자 삽교천 사람 조태형이 평택군수와 평

택경찰서장 명의로 허가받아 백합양식장을 만들었다. 몇 년 뒤 백사장 위에 갯벌이 뒤덮이자 사업자들이 백합양식장을 폐업했다. 양식업자들이 떠난 갯벌에는 크고 작은 대합이 많았다. 주민들은 아산만 안쪽 모래벌까지 배를 타고 나가 대합을 잡았다.

1974년 아산만방조제가 준공되고 지형의 변화가 생기면서 갯벌로 뒤덮인 모래벌에서 갯지렁이가 서식했다. 갯지렁이는 일본 수출 붐을 타고 높은 가격으로 팔렸다. 당시 서평택지역에는 유지명을 조합장으로 하는 어업협동조합이 운영되었다. 하루는 유지명 조합장이 장수리 이장 김영준에게 만나자고 연락했다. 조합장은 ‘갯지렁이가 일본 수출로 호황을 누리고 있으며, 일본 갯지렁이 수입업자가 한국에 왔는데 장수리에서도 어업협동조합을 조직해서 납품하면 안정적 수익이 보장될 것이다’는 제안을 했다. 그렇게 해서 인천에서 내려온 기술자 20명의 도움을 받아 갯지렁이 잡이가 시작됐다. 처음에는 징그럽다며 손사래를 치던 주민들도 갯지렁이

1kg에 쌀 한 가마씩 할 때 하루 4~5kg씩 잡아내자 너도나도 뛰어들었다. 실력도 점차 늘어 하루 400~500g밖에 잡지 못했던 주민들도 나중에는 800g~1kg씩 잡았다. 맨손어업이 발달하자 어민들의 권익보장을 위해 어촌계도 조직됐다. 어촌계원들에게는 출입증도 발급되었다. 당시에는 바닷가에 해안경계용 철조망이 있어서 출입증을 제시하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었다. 아랫말에 장수리 어촌계 사무실도 건축했다.

초기 20여 명에 불과했던 어촌계원은 나중에 68명으로 늘었다. 어촌계는 주민들이 잡은 갯지렁이를 전량 냉동시킨 뒤 수협중앙회에 판매했고 이것이 일본으로 수출됐다. 나중에는 수협중앙회에 마을주민 2명을 취직시켜 전국에서 생산되는 갯지렁이를 수매했고 대합과 바지락으로 사업도 확장했다. 갯지렁이 잡이가 끝날 무렵부터 바지락을 잡았다. 아산만 중간쯤 자갈이 섞인 갯벌에는 바지락이 많았다. 2000년경 맨손어업이 중단되기 전까지는 맛도 잡았다. 아산만의 맛은 굵직하고 맛이 좋아서 인기가 많았다.

신영식(여, 1939년생)은 배를 타고 서해대교 아래까지 가서 바지락을 잡았다. 서해대교 아래는 갯벌이 단단하고 자갈이 섞여 바지락이 많았다. 바지락이나 맛은 잡은 상태로 팔았다. 이상분(여, 1939년생)의 남편은 배를 갖고 조개잡이 하는 사람들을 태워다 주



맨손어업 최고의 기술자였던 오말영(2020)

고 샷을 받았다. 처음에는 돛을 단 목선이었지만 1980년대에는 선외기를 달았다. 운반선에는 한 번 출어할 때 20명 내외가 탔다. 운임은 1인당 500원이었지만 갯벌에서 잡은 맛으로 대납하기도 했다. 송순자(여, 1935년생)는 대합을 채취할 때부터 맨손어업을 했다. 회사 다닐 때는 조그만 배를 구입해서 직접 운전하며 바지락을 잡았다. 맛은 허리까지 빠지는 갯벌에서 잡았다. 너무 폭폭 빠져서 호미질을 할 수 없어 갯벌에 맨손을 집어 넣어서 잡았다. 갯벌에 나가기만 하면 하루 60~80kg씩은 잡았다. 부부가 함께 작업했던 집은 120kg, 150kg도 잡았다. 바지락과 맛을 잡



아산방조제 건설 전 백합양식장에서 백합채취하는 모습(1969) ©경기도



장수리 어촌계 사무실(2017)

아오면 도매상들이 기다렸다가 사 갔고 나중에는 어촌계에서 위탁판매를 했다. 이 용원(남, 1944년생), 오말영(여, 1949년생) 부부는 사리 때 갯벌에 한 번 나갔다 오면 쌀 한 가마 값을 벌었다고 했다.

맨손어업은 주민들 소득증대에 큰 도움을 주었다. 자녀들의 상급학교 진학률도 높아졌다. 농지가 많았던 사람들은 맨손어업을 하지 않았지만 땅도 없고 가난했던 사람들은 대부분 갯지렁이를 잡고 맛을 잡아서 아이들을 교육하고 부자가 되었다. 맨손어업은 1990년대 평택항 확장공사가 본격화되면서 쇠퇴했지만 공사가 늦어졌던 장수리 지역은 2001년경까지는 신영리 신전포에서 배를 타고 서해대교 아래까지 가서 맛을 잡았다. 주민들의 애환이 서린 맨손어업은 평택항이 장수리 인근까지 확장되면서 완전히 중단되었다. 어민들도 어업보상을 받고 더 이상 갯벌에 나가지 않고 있다. •



07.

주민들의 사랑방 '장수보건진료소'



장수보건진료소(2022)



장수보건진료소 옛 건물(2020)

장수리는 현덕면에서도 오지였다. 오지사람들에게 질병은 서럽고도 고통스러웠다. 밤에 아이들이 열나고 울어대면 어찌 손 볼 방도가 없었다. 전염병이 돌아도 마 찬가지였다. 아이를 낳다 잘못되어도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병든 부모님에게 약 한 첩 지어드리지 못하고 돌아가시게 하는 일은 흔히 있는 일이었다. 그래서 신(神)에게 의지하고 무당에게 기댔다. 불교신자들은 약사여래에게 기원했으며 기독교가 들어온 뒤에는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래도 질병은 쉽게 극복되지 않았다.

민간의료는 의료혜택을 받기 힘든 서민층이 가장 의존했던 치료행위였다. 장수리 사람들은 간단한 배탈은 바늘로 손끝을 따거나 약쑥을 말려두었다가 다려먹었다. 여름철 더위 먹었을 때도 약쑥이 효험 있었다. 낮이나 칼에 베었을 때에도 쑥을 찢어서 붙이면 덧나지 않고 지혈되었다. 박순예(여, 1933년생)는 가렵고 배 아플 때는 아궁이 속의 불에 탄 황토를 곱어먹었다고 했다. 1950, 60년대까지만 해

도 홍역이나 마마(천연두)가 유행했다. 전염병이 돌면 인심이 나빠지고 각 마을에서 죽어나가는 사람이 많았다. 설령 나왔더라도 고열로 청각을 잃거나 곰보가 된 사람들도 있었다. 바닷가는 전염병에 비교적 안전했다. 바닷바람에 실려 오는 염기(鹽氣)가 전염병을 예방했는지도 모른다.

1970년대 초 안중장 근처에 ‘안중의원’이 생겼다. ‘안중의원’은 전공분야가 가정의학과였지만 환자들이 원하면 어떤 질병도 치료해줬다. 여전히 민간의료나 무속 신앙, 침술사에게 기댔던 서민들도 아이들이 갑자기 아프거나 중병에 걸리면 병원을 찾았다. 안은순(여, 1950년생)은 아이들이 아프면 포대기에 들쳐업고 무조건 안중의원으로 달려갔다고 했다. 김춘자(여, 1944년생)도 큰아이를 낳을 때 양수가 터졌는데도 아이가 나오지 않아서 안중의원으로 가서 낳았다.

1983년 장수리에 ‘장수리보건진료소’가 개원했다. 보건진료소 설치에 오장환의 노력이 컸다. 오장환의 노력으로 기산리 가사초등학교 옆에 있던 보건진료소가 장수리 윗말로 이전했다. 2006년 6월에는 옛 장수리이동조합정미소 자리에 지상 2층으로 52평 건물을 신축해서 옮겼다. 보건소장은 여러 번 바뀌었다가 1990년대 초에는 김운배가 근무했고, 1995년부터 오명희(여, 1962년생)가 소장으로 일하고 있다. 오명희는 경주가 고향이다. 대학 졸업 후 영남대학교부속병원에서 일하다가 결혼하면서



장수보건진료소장 오명희(2020)

경기도로 올라왔다. 1995년에는 보건진료직 공무원 시험에 응시해서 합격했는데 첫 발령지가 장수리였다. 발령받고 지도를 보며 물어 물어 찾아온 장수리는 꿈에서나 봤음직한 전원마을이었다. 하지만 시골 생활은 녹록치 않았다. 교통이 불편해서 남편이 수원까지 출퇴근하다 교통사고를 당했고 아이들이 중·고등학교를 통학하며 무척 힘들어했다. 그런데도 25년 동안 장수리를 떠나지 못하고 있다.

교통이 불편하고 의료혜택에서 소외됐던 장수리 주민들에게 보건지소는 하늘의 선물이었다. 독거노인이 증가하고 농촌고령화가 촉진되면서부터는 노인들의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다. 장수리보건지소는 장수리, 권관리 일원 주민들을 돌본다. 환자들은 보건지소에서 진료하지만 관할지역을 돌며 진료하고 관찰하기도 한다. 때론 보건교육과 건강증진사업도 실시한다. 오명희 소장은 장수리 권관리 지역은 농촌 지역이고 고령인구가 많아서 무리한 노동으로 허리와 관절이 망가진 환자들, 혈압



보건소를 찾아온 마을주민들과 이야기 나누는 오명희 소장(2020)



외진나가는 오명희 소장(2020)

이나 당뇨환자, 급성질환자가 많다고 했다. 독거노인이나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도 점점 증가하고 있다. 독거노인들은 고독과 외로움으로 마음의 질병이 깊다. 그래서 진료에도 힘을 쓰지만 외로운 노인들의 말벗이 되어주기도 한다. 소년소녀가장들을 돕고 취업 알선도 했다. 아이들을 독거노인들과 함께 생활하도록 하는 프로젝트도 운영했다.

장수리 주민들은 오명희 소장을 따뜻한 이웃처럼 대한다. 오 소장도 주민들의 가장 가까운 벗이다. 아픈 곳이 없어도 스스로없이 들랑거리는 동네 주민들을 가족처럼 대한다. 노인들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아픈 곳을 어루만져주는 것도 잊지 않는다. 그런 오 소장이 있기에 보건진료소는 늘 동네 사랑방 같다. 아주머니들은 옛 몇 가락을 나눠 먹으며 수다 떨다 돌아가고 할머니들은 밭둑에서 켄 냉이를 한 움큼 놓고 차 한 잔 얻어먹기도 한다. 장수리보건진료소의 일상이다. •

08.

마을 운영의 중심은 대동회, 개발위원회, 이장

마을공동체는 공조직과 사조직이 공존한다. 때로는 공적으로 해결해야 할 일들도 있지만 서로를 깊이 이해하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풀어낼 일들도 많다. 장수리의 공(公)조직은 대동회와 개발위원회, 이장단이 있고 그밖에 자치조직으로는 부녀회, 청년회, 노인회가 있다.

대동회(주민총회)는 최고 의결기구다. 위원장은 이장이 겸임한다. 대동회는 12월 말에 개최한다. 예전에는 1년에 2회 개최했지만 지금은 한 번으로 축소됐다. 대동회에서는 예결산과 이장선출, 마을의 주요 현안을 의결한다. 대동회 산하에는 개발위원회가 있다. 개발위원회가 있기 전에는 '리회(里會)'와 '이동농업협동조합'이 있었다. 그러다가 '리회(里會)'가 1970년대 새마을사업을 이끌면서 '새마을회'로 개편되었다. 새마을회에서는 새마을사업과 관련된 다양한 현안들을 논의했다.

1978년 12월 대동회에서는 새마을회를 '장수리 변영회'와 '장수리운영위원회'로 개편했다. 장수리 변영회는 이전에 존재했던 이동농업협동조합의 업무를 대신했다. 1979년 12월 29일 김진만 댁에서 개최된 제1회 장수리변영회 이사회는 회장 김진만, 이사 오장환, 인태식, 오세용, 김길태, 김정식, 최기수, 이용원이었으며, 감사는 김정수, 오기환이었다. 또 같은 장소에서 조직된 장수리운영위원회는 위원

장 정석진(이장), 청년회장 이정우, 어촌계장 오성근, 변영회원 오무근, 임원상, 김기현 등 14명이었다.

1979년 장수리운영위원회에서는 평택경찰서 현덕지서에 부의금 전달 건, 떡방아와 꽃우방아 가동 건을 의결했다. 또 변영회 이사들에게 구두와 양말, 털신을 선물한다는 내용도 결의했다. 이밖에 마을정미소 신축 문제, 낡은 상여 교체문제 등



장수리마을회관(2022)

마을의 주요 현안들이 논의되고 의결되었다.

장수리변영회는 1983년 '장수리 개발위원회'로 개편됐다. 같은 해 1월 17일에 개최된 제1차 개발위원회 임원은 이장을 위원장으로 인창식, 이용원, 오무근, 오성환, 봉하섭, 홍세기, 김진봉이 이사로 선출됐고, 홍농계장으로 오창세, 김길태가 선출되었다. 개발위원회는 지금도 마을 운영기구로 존재하며 각종 현안을 논의 의결한다. 1980년대 장수리개발위원회 업무 가운데 방앗간 운영이 가장 중요했다. 그중에서도 정미기계 작동과 관리가 중요했는데 1979년 1월부터 관리장을 따로 두어 업무 일체를 총괄하게 하고 '원동기 운영위원'을 따로 선출했다. 당시 원동기 기관장은 오영환이었고 인부로 김종식, 김창수, 한기훈, 이상호, 오충근이 채용되었다.



장수리 이장 공경구(2020)

장수리에서는 이장 임기가 2년이며 1회 연임이 가능하다. 현재와 같은 체제가 된 것은 1981년 홍세기(남, 1947년생)가 이장을 맡으며 2년 임기에 1회 연임으로 정관을 바꾸면서부터다. 이장 아래에는 3명의 반장이 있다. 1970년대 새마을운동을 하면서 새마을지도자도 이장단의 일원이 되었다. 새마을지도자는 한 때 농촌진흥청의 새마을지도자연수와 새마을사업을 주도했지만 지금은 이장을 보좌하는 역할만 한다.

장수리는 2015년까지 리세(里稅)와 새마을기금을 걷었다. 리세(里稅)는 1년에 쌀 15kg였고 새마을기금은 1만 원이었다. 이것으로 공공사업과 이장활동비를 지급했다. 1972년경부터 평택군에서 이장활동비로 5천 원이 지급됐다. 이장활동비가 나올 때도 금액이 너무 적어 마을 활동비를 함께 지급했다. 지금은 월 30만 원이 지급된다. 약간 인상되었지만 순수 활동비에도 못 미치는 금액이다. 그래서 이장(里長)은 마을을 위해 봉사(奉事)하는 직책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1970, 80년대까지만 해도 이장의 역할은 막중했다. 1962년부터 1974년까지 13년 동안 이장을 지냈던 김영준(남, 1933년생)은 당시 수행한 주요 업무로 제3공화국의 ‘토지관련특별조치법’ 수행과 새마을운동, 비료배급, 주민등록관련 업무나 출생 및 사망신고 대행, 퇴거 관련 업무를 들었다. ‘토지관련특별조치법’은 10년간 실소유한 부동산에 등기를 발부하는 조치였는데 당시까지만 해도 이장의 동의가 필

요했고 글을 모르는 주민들을 대신해 행정업무까지 하는 경우가 많았다. 근래에는 이장의 역할과 권한이 많이 축소됐다. 새마을운동은 흐지부지됐고 비료배급이나 주민등록관련 업무, 출생과 사망신고도 개인이 하며, 관(官) 주도의 사업이나 압력도 없다. 입·출입을 할 때도 이장에게 신고할 의무가 없다. 의사결정도 관(官)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데서 탈피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려 노력한다. •



장수리노인회장 김영준(2020)



장수리마을회관을 배경으로 노인회장 김영준(왼쪽), 이장 공경구(2020)



09.

봉사활동과
공공사업에 앞장 선 청년회

장수리는 청년운동이 활발했다. 장수리청년회가 창립된 것은 1974년이다. 중심인물은 오장환, 홍세기, 이강복이었으며 30세 이하 청년층만 가입할 수 있었다. 청년회는 창립목적으로 청년 상호 간의 단합과 위계질서 확립, 마을 봉사를 내세웠다.

청년회 활동이 가장 활발했던 시기는 1970년대 후반에서 1980년대다. 이 시기에는 마을에 청년들도 많았고 단합도 잘되어 각종 목적사업을 전개할 수 있었다. 김영일(남, 1949년생)은 당시 청년회가 주도했던 사업으로 상여집 이전과 관리, 공동 작업을 통한 기금 적립, 마을공공사업 추진을 꼽았다. 공동상여는 본래 마을에서 관리했다. 상례(喪禮)가 발생하면 마을에서 나서서 장례를 도왔다. 이것을 청년회가 맡아 운영 관리를 했다. 청년회는 봉나무골에 있던 상여집을 수리하고 상여관리자를 따로 두었다. 상(喪)이 발생하면 상례 관련 제반 일들을 수행하고 여기서 얻은 수익을 청년회 수입으로 하여 기금을 적립했다. 1970년대 기호농조에서 경지정리와 수로 공사를 할 때는 장수리 부근의 수로 설비를 수주해서 청년회 공동 작업으로 공사하고 수익을 창출했으며 청년회원들도 각자 쌀 1말씩을 거출했다. 이렇게 조성된 기금은 연리 2.5%로 장리(長利)를 놓아 수익률을 높였다. 이렇게 저축하고 수익률을 높이자 1980년대 중반에는 쌀이 몇십 가마로 불어났다.

1987년 당시 청년회 총무였던 이정우는 청년회기금을 마을공공사업에 사용하자

는 의견을 제안했다. 당시까지만 해도 장수리에는 노인정이 없어 마을노인들은 동네 사랑방을 옮겨 다니며 소일했다. 또 날로 학생들은 증가하는데 공부할 장소가 마땅치 않아 곤란을 겪기도 했다. 청년회에서는 열악한 마을환경을 개선할 목적으로 공공건물을 신축하여 절반은 노인정, 절반은 독서실로 활용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그렇게 의기투합한 청년들이 27명이었다. 1987년 김영일, 홍세기, 이정우를 비롯한 마을청년들은 마을회관 건너편에 건물을 신축해서 마을에 기증했다. 그리고 기증자들의 이름을 머릿돌에 새겨 청년들의 뜻을 후대에 알렸다. 청년들이 신축한 건물은 지금도 남자노인정과 자율방범대 본부, 장수리 장학회관으로 사용되고 있다.



장수리청년회 핵심인물이었던 김영일(2018)

1980년대 중반 ‘장수리 마을문고’가 개원했다. 마을문고는 이장 홍세기(남, 1947년생)가 지원하고 이정우(남, 1948년생)가 주도해서 성사됐다. 이정우는 마을에 공부해야 할 학생들은 많았지만 마땅히 공부할 곳이 없는 현실을 안타깝게 생각했다.



청년회비로 건축하여 마을에 기부한 노인정 건물(2017)



장수리노인정 기부에 참여한 청년회원 명단(2017)

여러 가지 궁리를 하던 중 마을문고 설립을 결심하고 뜻을 모았다. 주민들도 집안에 보관하던 책을 기증했다. 이렇게 모인 2천여 권의 책으로 마을문고를 열었다. 기증 도서 중에는 향학열에 목말라 십수 년 동안 독서를 하며 모았던 홍세기의 책 수백 권도 포함됐다. 이렇게 뜻을 모아 마을문고를 개설했지만 운영 기간은 짧았다. 1990년대가 되면서 농촌이 노령화되고 학생수가 급감한데다 책임지고 관리 운영할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다.



한가위축제 팸플릿을 들고 있는 홍세기(2018)

청년회는 추석에는 체육대회와 노래자랑, 장학금 수여식도 개최했다. 청년회가 처음 개최한 것은 체육대회였다. 체육대회는 명절에 고향을 방문하는 출향인들을 대접하고 함께 즐기기 위한 축제였다. 몇 년 뒤에는 노래자랑이 추가됐고 장수리장학회의 장학금 수여식도 겸하게 되면서 규모가 커졌다. 명칭도 '장수리 한가위 축제'로 개칭됐다. '장수리 한가위 축제'가 개최되면 부녀회에서는 음식을 장만하여 주민들과 출향인, 마을을 찾는 손님들을 대접하고 종일 체육대회와 노래자랑을 즐



청년회에서 운영했던 수루골 상여집(2022)

긴다.

매년 개최했던 ‘장수리 한가위 축제’는 2008년부터 격년제로 바뀌었다. 현덕면민 체육대회가 추석에 개최되면서 중복을 방지하기 위해 부득이 바꿀 수밖에 없었다. 2017년 추석에 개최된 ‘장수 한가위 축제’는 마라톤과 선물낚시, 줄다리기, 제기차기, 훌라후프, 가족줄넘기와 같은 민속행사를 중심으로 개최했다. 노래자랑은 안

중에서 악단을 초청하여 성대하게 진행했으며 1등에게는 금반지가 수여됐다. 이날 장수리장학회에서는 모두 11명의 중·고·대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수여했다. 부녀회에서는 돼지불고기와 어묵탕, 막걸리를 준비해서 함께 나눴다. ‘장수리 한가위 축제’는 2001년 KBS ‘6시 내 고향’에도 방영됐다. 마을주민들은 이것을 자랑으로 여긴다. 활발했던 청년회 활동은 2000년대로 접어들며 둔화됐다. 기존 회원들이 나이를 먹고 젊은층이 급격히 감소했기 때문이다. •

장수리

02

사라지기 전
그리움을 남기다

02

제 2 장 사회생활

01. 계몽운동에 앞장 선 조기회
02. 현덕면의 으뜸 '두매리농업협동조합'
03. 서로 돕고 협동하며 봉사하는 자치조직
04. 출향인들이 만든 향우회와 장학회
05. 마을환경을 개선한 새마을운동
06. 우리집이 쌀 100가마 짜리요
07. 광목과 나일론 나오면서 헐벗은 것 면했죠
08. 친정어머니 오셨는데 콩보리밥만 대접했어요
09. 우리 때는 가마 타고 시집 왔수
10. 옛날엔 동네 사람들이 상(喪)을 치렀지

01.

계몽운동에 앞장선 ‘조기회’

장수리 계몽운동은 오재환(남, 1928년생)으로부터 시작됐다. 오재환은 장수리 출신의 출향인(出鄕人)이다. 본관은 해주이고 벽성군파 26세손이다. 공식 학력은 초등학교 졸업이 전부다. 어릴 때 장수리 서당에서 1년쯤 한학을 공부했고 독학으

공회당과 야학교실이 있었던 장수리노인정(2020)



조기회가 조성한 마을 숲에서 더위를 피하는 마을 주민들(2012)

로 중등 과정을 수료했다. 초등학교 졸업 후 잠시 외지에 나갔지만 적응하지 못하고 고향으로 돌아와 농사를 지었다. 고향에 머물 때는 농사를 짓는 한편 중등 과정을 독학하며 공무원 시험을 준비했다.

해방 전후 청소년의 눈에 비친 장수리는 꿈을 잃은 마을이었다. 주민들은 대부분 10마지기 내외의 소작을 지었고 남자들은 징용, 징병으로 끌려가고 없었다. 10대 후반의 여자아이들은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갈까봐 노심초사했다. 초등학교를 중퇴했거나 겨우 졸업한 아이들은 가난한 삶을 대물림했다. 문맹율도 무척 높았다. 희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이웃을 돕고 나누며 공공선(公共善)을 추구하는 것은 무척 힘든 일이다. 자기 살기도 바쁜데 타인의 꿈과 희망에 관심을 갖는 것도 사치였다.

1945년 ‘장수리 조기회’가 창립됐다. 해방되기 직전이었다. 창립을 주도한 인물은

10대 후반의 소년 오재환이었다. 오재환은 주민계몽과 문맹퇴치, 마을환경 개선을 통한 공공선(公共善)의 실현을 지향했다. 의식개혁을 통해 자긍심과 미래의 희망을 갖게 하려고 했다. 그의 뜻에 오창세(1925년생), 오봉환(1929년생)이 함께 했다.

조기회가 가장 먼저 추진한 사업은 ‘야학운동’이었다. 마을 아이들 중에는 상급학교는 물론이려니와 초등학교 진학 조차도 못하는 사람이 많았다. 장년들이나 부녀자들의 문맹률도 무척 높았다. 문맹퇴치는 실력양성운동이면서 주민들을 계몽시키고 미래의 꿈을 갖게 하는 사업이었다. 일제 말에도 장수리강습소가 있었다. 현재 마을회관 자리에 설립되었던 장수리강습소는 문맹퇴치와 근대교육에 큰 역할을 했지만 해방되기 전 문을 닫았다.

오재환이 야학설립의 뜻을 밝히자 오창세(1925년생), 오봉환(1929년생)이 적극 호응했다. 마을 어른들도 훌륭한 일을 한다며 마을사랑방을 내줬다. 야학은 호응도가 무척 높았다. 문자를 모르고는 사람답게 살기 힘들다는 것을 체감한 주민들이 야학으로 몰려들었다. 교실이 모자라서 오재환의 집 사랑방에서도 수업했고 동네 사랑방을 돌아다니며 공부했다. 학급도 장년반, 부녀반, 소년반으로 나뉘었다.

야학운동이 자리를 잡자 1947년에는 ‘가로수 심기’를 했다. 일종의 마을가꾸기 사업이었다. 오재환은 20세 전후의 조기회원들과 야학 학생들을 동원해서 마을 입구 고재봉(고재집떼)에서 마을회관까지와 아랫말 느티나무 주변에 소나무 묘목을 심었다. 매일 새벽 야학 교사였던 오봉환이 나팔을 불면 조기회원들과 야학생들은 호미와 삽을 들고 공회당 앞으로 모였다. 묘목은 야산에서 채취한 치송(稚松)이었다. 김정환 효자비 주위에는 무궁화도 심었다. 거센 해풍에 묘목이 죽으면 다시 심기를 반복해서 나중에는 멋진 가로수길이 탄생했다.

도박 근절과 마을환경개선운동도 했다. 해방 직후까지만 해도 농한기가 되면 남자들은 주막이나 노름방에 모여 화투를 했다. 노름빚 때문에 패가망신한 사람도 많았고 가정불화도 잦았다. 조기회는 주민들을 설득하고 계몽했다. 어른들 중에도 적



조기회에서 식재를 했던 아랫말 느티나무(2020)

극 호응하는 사람이 많아서 노름이 많이 줄었다. 1948년에는 쓰레기장 이전을 추진했다. 당시에는 쓰레기장을 ‘불무덤’이라고 했다. 장수리에는 불무덤이 많았다. 권관리로 건너가는 쪽다리 근처 불무덤은 들밥이 나가는 입구에 있었지만 파리와 구더기가 들끓어서 냄새도 심했고 미관상 좋지 않았다. 조기회는 야학 청소년부 학생들을 동원해서 두 달에 걸쳐 불무덤을 치웠다. 설경지우물 불무덤을 치울 때는 마을 어른들도 함께 힘을 모았다.

조기회는 공회당도 만들었다. 공회당 자리에는 일제강점기 ‘동광학원’이라는 강습소가 있었다. 하지만 강습소가 문을 닫자 민가(民家)로 변했고 야학을 개설했을 때는 공부할 장소가 없어 찢찢매야 했다. 1948년 오재환은 공회당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마을 유지들을 찾아 나섰다. 가장 먼저 부재지주의 마를 봤던 오덕유를 찾았다. 오덕유는 새벽녘에 찾아온 오재환의 설명을 듣고는 선뜻 쌀 3가마를 내놔



조기회가 심었던 고재집때의 소나무 가로수

다. 다른 마을인 노태현도 쌀 2가마를 내놔다. 원논의 마을을 봤던 최수영은 마을 주민이 아닌데도 2가마를 내놔고, 오씨의 백부 오상근도 1가마, 김지철도 1가마를 내놔다. 유지들이 호응하자 주민들도 동참했다. 오재환과 조기회 임원들은 낮에는 들로 산으로 돌아다니고 밤에는 직접 방문하여 기부를 받았다. 그렇게 모은 기금으로 강습소 건물을 매입해서 기존 건물에 7칸짜리 건물을 증축했다. 이렇게 마련된 공회당은 교실과 학습실 겸 사무실, 소방 기구와 혼례용 가마를 보관하는 장소로 사용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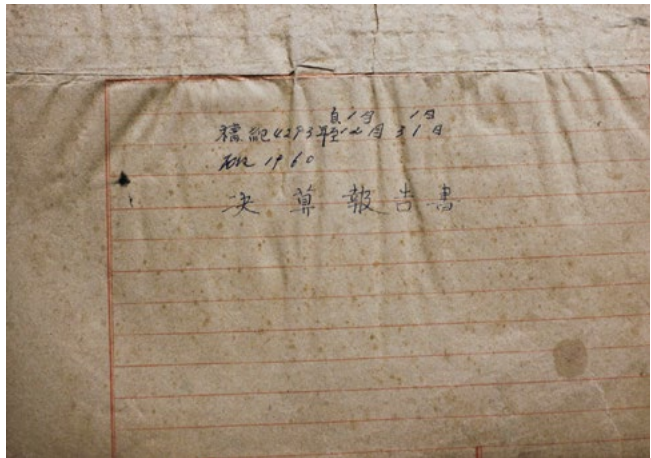
조기회 활동은 1953년 오재환이 결혼 후 서울로 상경하면서 중단됐다. 조기회원들이 심었던 가로수는 새마을운동 때 도로를 확장하며 거의 대부분 베어졌다. 하지만 조기회의 정신은 1950년대 말 이동농업협동조합운동과 1970년대 새마을운동으로 계승됐으며, 야학에서 길러낸 아이들은 장성해서 마을의 중심인물로 활동했다. •

02.

현덕면의 으뜸
‘두매리농업협동조합’

이동농업협동조합(이하 이동조합)운동은 1958년부터 시작됐다. 협동조합운동은 자본주의 농업경제의 모순을 보완하기 위한 대안으로 정부수립 직후부터 제안되었고 제1공화국 정부에서 여러 차례 논의와 수정을 거쳐 시행됐다. 하지만 조직과 운영 미숙으로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다가 1961년 5.16군사정변 뒤 농협중앙회와 8개 도지부, 시·군 조합 및 특수조합, 이동조합 등 3단계 계통조직을 갖추면서 정상화되었다.

1958년 장수리에도 ‘두매리농업협동조합’이 창립됐다. 김정수, 오기환, 홍병욱, 오상근, 인창식이 발기인으로 참여했고 초대조합장으로는 김정수(김영일의 부친)



1960년 장수리농업협동조합 결산보고서

가 선출됐다. 이동조합은 조합원의 출자를 받아 기금을 마련했다. 이것을 조합원에게 저리 대출하여 이자수익으로 자산을 늘렸다. 설립 초기 기본 출자금은 쌀 1가마 수준이었지만 넉넉한 사람은 더 많이 출자했다.

이동조합에게 1960년은 상징적인 해였다. 이 해에 조합원 대출업무와 공동구관 사업이 시작됐고 숙원이던 마을정미소가 설립됐다. 장수리는 교통이 불편해서 생필품을 비롯해서 각종 농자재 구입이 어려웠다. 이 같은 어려움을 감안해서 공회당 옆에 공동구관장을 설립 운영하면서 값싸고 손쉽게 생필품과 간단한 농기구 구입이 가능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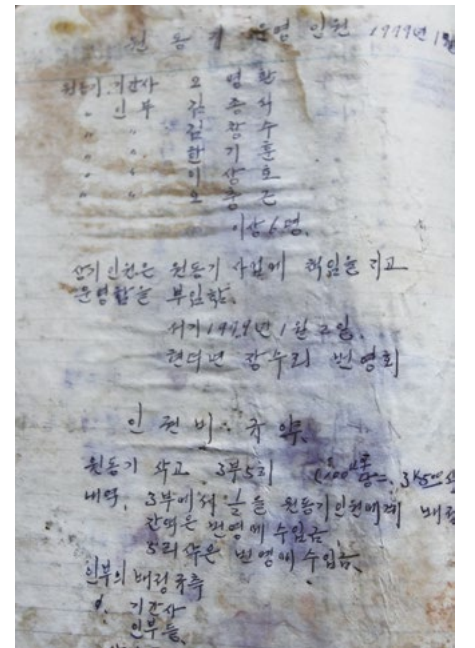
1960년 이전 장수리에는 두 개의 사설 방앗간이 운영됐고 1개는 준비 중이었다. 방앗간은 주민 서너 명이 합자해서 설립한 일명 ‘뚝딱이 방앗간’이었다. 이동조합 정미소는 현 마을회관 옆 장수리보건지소 자리에 위치했다. 운영은 조합장과 이사회가 책임졌다. 시설은 당시로서는 최신식 설비를 갖췄으며 도정료는 사설 방앗간

에 비해 저렴하게 책정되었다. 이동조합이사회는 정미소의 실질적 운영을 위해 기관수와 인부를 고용하고 임금을 지불했다. 1980년 자료에는 기관수 오영환과 그 아래 5명의 인부가 있었다. 기관수와

인부들은 도정(搗精)과 기계 관리, 방앗간의 실질적 업무를 담당했다.

이동조합정미소에서는 미곡과 보리 도정도 했지만 떡방아와 고추방아도 쪼었다. 떡방아와 고추방아는 필요한 시설이기는 했지만 소량을 정맥하면 비용이 많이 들어 어려움이 많았다. 이 문제로 논란이 일자 이동조합에서는 명절이나 애경사가 발생했을 때 3인 이상이 요청하면 가동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정미소 사업과 공동구관장사업, 대출사업이 원활하게 운영되면서 많은 이익이 발생했다. 이동조합은 이익금의 일부는 조합원들에게 배분했고 일부는 마을기금으로 적립했으며 공공사업에 투자하기도 했다. 장수리에서 새마을운동이 원활하게 전개될 수 있었던 것도 이동조합의 조직과 기금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동조합은 1975년까지 운영되었다. 제3공화국 정부는 1960년대 말부터 부실 운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동조합의 내실화를 위해 면(面) 단위 통합을 추진했다. 1972년 현덕면에도 현덕면농업협동조합이 창립했다. 1979년에는 서부 4개 면(面)의 협동조합을 통폐합하여 서부단위농업협동조합(안중농협)이 설립됐다. 1975년 두매리농업협동조합원들도 현덕면농업협동조합에 일정금액을 출자하고 조합원이 되었다. 조합원들이 현덕면농업협동조합에 가입하면서 두매리농업협동조합은 조합원들의 출자금을 반환하고 조합을 다시 구성했다. 새로 구성된 조합은 백미 43kg를 납입한 사람들에게만 회원 자격을 부여했으며, 조합정미소 운영 등으로 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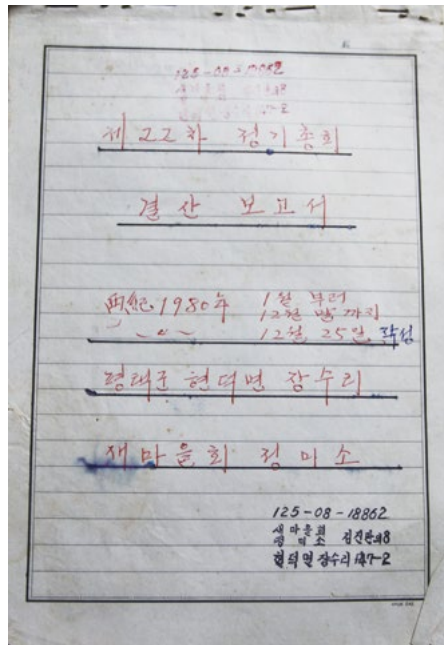
1979년 조합정미소 원동기 운영위원

구분	품명	단위	수량	단가	총액
곡물	벼	가마	100	1000	100000
	보리	가마	50	500	25000
	수수	가마	20	200	4000
	콩	가마	10	100	1000
사료	옥수수	가마	100	1000	100000
	보리	가마	50	500	25000
	수수	가마	20	200	4000
	콩	가마	10	100	1000
비료	요소	가마	100	1000	100000
	인산	가마	50	500	25000
	질소	가마	20	200	4000
	칼리	가마	10	100	1000
농기구	삽	개	100	1000	100000
	괭이	개	50	500	25000
	농가	개	20	200	4000
	농구	개	10	10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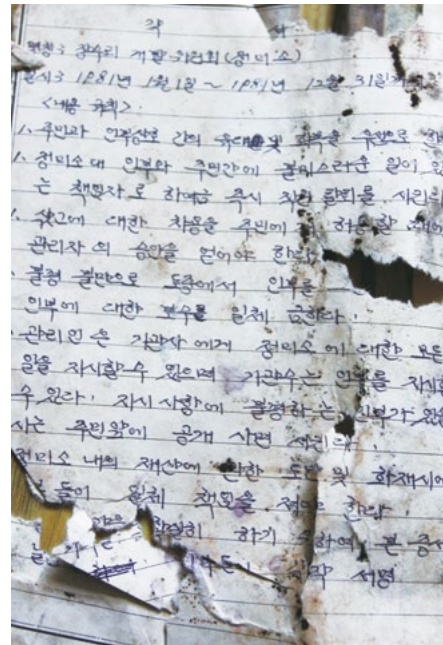
1964년 장수리농업협동조합 구매품 재고표

은 수익은 개인에게 배당하지 않고 마을공공사업에 사용하기로 했다.

공식적으로 두매리농업협동조합은 없어졌지만 조합이 운영하던 정미소와 구관장은 그 뒤로도 계속 운영되었다. 정미소와 구관장 운영권은 새마을회가 가져갔고 명칭도 ‘새마을회 정미소’, ‘새마을구관장’으로 바뀌었다. 1978년 12월에는 장수리 번영회가 조직되면서 다시 이관됐으며, 1983년에는 새마을회가 장수리개발위원회로 개편되면서 또다시 이관되었다. 1978년 정기총회 자료에서 조합장은 이정우였고 조합원은 77명이었다. 총회 안건은 원동기 교체, 인부교체, 상여관리인 임명 건이 논의됐다. 이동조합정미소는 1995년 문을 닫았다. 농협에서 미곡종합처리장을 설치했고 곳곳에 대형정미소가 설립된 데다 일련의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1980년 장수리 농업협동조합(새마을회정미소) 결산보고서



1981년 장수리개발위원회(조합정미소) 각서



장수리 농업협동조합 정미소 기관수 오영환(2015)

공동구관장에서는 생필품 일체와 간단한 의약품을 팔았다. 교통이 불편한 지역의 유일한 상점이다 보니 모든 상품을 독과점했다. 이동협동조합이 운영하던 구관장은 조합이 폐합된 뒤 개인에게 임대됐다. 그러다 새마을부녀회가 맡아 2014년까지 위탁 운영하다가 문을 닫았다.

03.

서로 돕고 협동하며 봉사하는 자치조직



부인회에서 운영했던 장수리주민센터(2012)

장수리 주민들은 마을 발전에 관심이 많다. 지역사회운동에도 적극적이다. 마을 안에는 다양한 자치조직이 활동하고 있다. 1970, 80년대에는 지금보다 훨씬 많은 조직이 왕성하게 활동했다. 농촌마을의 자치조직은 서로 돕고 협동하며 봉사하기 위해 조직된다. 장수리는 과거 조기회, 4H구락부, 연반계가 활동했고, 지금도 노인회를 비롯해서 청년회, 부녀회, 자율방범위원회, 장수리장학회가 활동한다. 출향인들 모임인 장수리향우회도 빼놓을 수 없다.

대한노인회는 1969년 1월 전국노인정 회장들을 중심으로 창립됐다. 같은 해 4월에는 사단법인 대한노인회로 개칭됐고 1970년 법인설립 허가를 받아 1981년 학구단위 노인회로 조직을 개편했다. 장수리노인회는 1975년 공식적으로 창립됐다. 그전에도 대한노인회 산하 지부로 활동했지만 공식적으로는 1975년이 시작점이다. 2000년에는 평택시에서 각 마을의 노인회를 대한노인회 평택시지회 산하로 통합하고 예산지원을 시작했다. 그래서 장수리노인회도 평택시지회 산하로 통합됐다. 또 평택시 예산을 지원받아 경로당을 운영하고 냉난방시설 및 체육



장수리경로당(2017)

시설, 공동식사와 단체목욕, 단체 관광을 실시했다. 2020년 5월 장수리노인회장은 김영준(남, 1933년생)이다. 회원은 65세 이상 노인으로 구성됐고 현재 등록회원만 83명이나 된다. 장수리여성노인들은 마을회관 2층의 경로당에 모인다. 아주 바쁜 농번기가 아니면 함께 모여 쉬기도 하고 공동식사도 한다. 남자노인들은 식사 때만 회관으로 오고 보통은 남자경로당에 모인다.

장수리 연반계는 매우 오래된 것은 분명하지만 창립 시기는 아무도 모른다. 연반계는 상례(喪禮)를 돕고 상호부조하기 위해 만든 상계(喪契)다. 계(契)는 통상 계주를 중심으로 운영된다. 주민들이 계원(契員)이 되려면 쌀 3되를 납부해야 한다. 상(喪)이 발생하면 상가(喪家)에 쌀 3되를 부조하고 장례 일체를 도왔다. 장례식에서 가장 큰 일은 상여를 빌리고 장지를 조성하며 상여를 매는 일이다. 계원이 상(喪)을 당하면 동료 계원들이 상여를 땀다. 연반계는 마을공공사업과 빈민구제도 했다. 장수리 연반계는 2005년 중단됐다. 장례식장이 발달하고 노령인구가 많은데다 상례 관련 일들을 청년회에서 담당하면서부터다.

부녀회는 1970년대 새마을부녀회에서 시작됐다. 새마을사업에서 여성의 참여와 노동력도 매우 중요하게 되었다. 적극적인 여성들은 육묘사업이라든가 채소재배를 주도하며 사업을 이끌었다. 새마을사업으로 여성의 사회적 역할이 중요해지기는 했지만 마을에서 여성은 남성 중심의 사업에 보조적 역할만 했다. 장수리 부녀회도 마찬가지다. 부녀회의 가장 큰 역할은 새마을사업이나 마을사업에서 식사 준비와 각종 음식을 장만하는 것이었다. 그러다가 1980년대부터는 새마을회에서 민간 위탁했던 공동구판장을 직접 운영하기 시작했다. 구판장 운영은 2014년경까지 계속됐다. 지금도 부녀회는 마을의 대소사를 챙기고 한가위 축제와 같은 큰 행사에 음식 준비를 담당하지만 고령화와 수적 감소로 이전보다는 많이 약화된 상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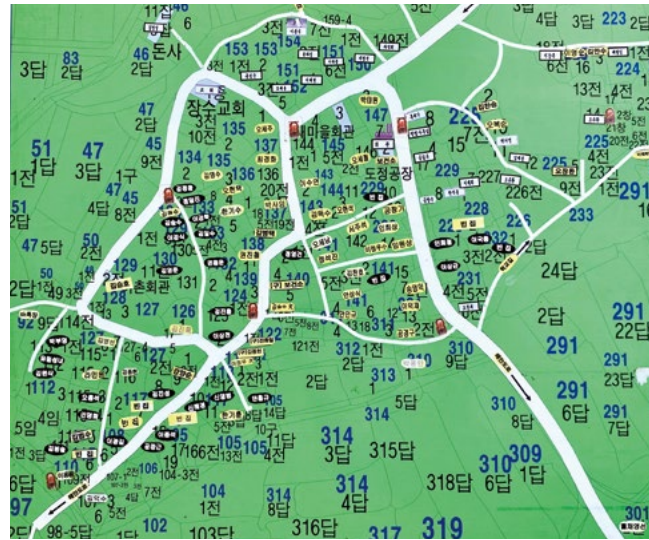
4H구락부는 1960년대 초 인진식을 중심으로 결성됐다. 회원들은 중·고등학생과 청년들이 중심이었다. 4H회원들은 다양한 활동을 했다. 아침 등교하기 전 자갈을



장수리 노인정 풍경(2017)

주워서 마을 진입로에 깔았고 정월대보름에는 연극공연을 했다. 야학개설, 신농법 보급도 주요 사업이었다. 홍세기(남, 1947년생)는 1960년대 말에서 1970년대 초 사이 4H운동을 했다. 여러 가지 활동을 했는데 신농법보급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했다. 수원의 농촌진흥청과 평택농촌지도소에서 신농법을 교육받은 뒤 마을로 돌아와 주민들에게 보급하는 활동이었다. 하지만 새로운 영농방법은 약간의 용기와 모험심이 필요했다. 주민들은 낯선 영농방식에 적극적으로 호응하지 않았다. 정월대보름에는 대대적으로 쥐불을 놓고 쥐약을 보급했다. 4H구락부는 1974년부터 크게 약화되었다. 중심인물들이 장년으로 성장하고 젊은 층의 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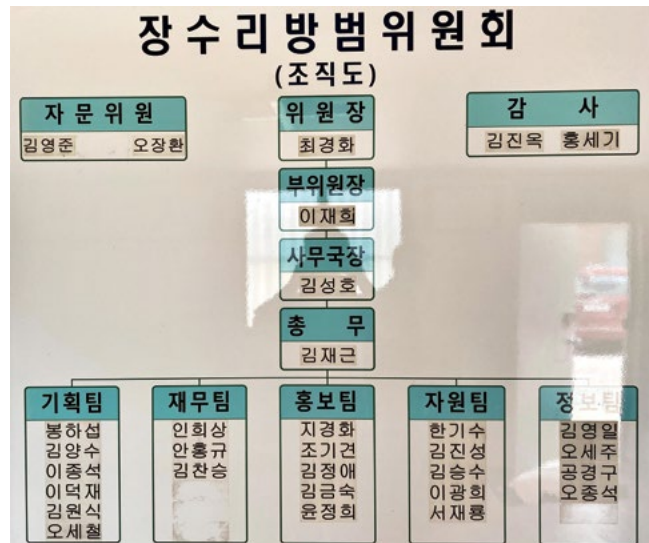
장수리 자율방법위원회는 2010년 조직됐다. 당시 장수리 일대에는 농산물 도둑이 극성을 부렸다. 또 농번기에 집을 비운 틈을 타서 각종 농산물과 금품을 훔쳐갔



장수리 방범위원회 순찰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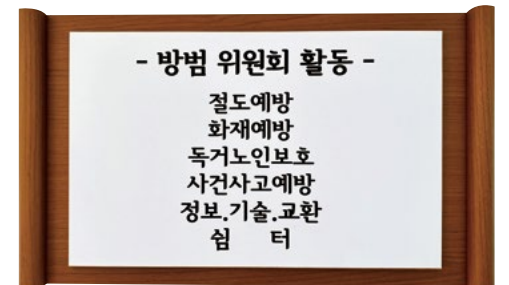


장수리 방법안내문



장수리 방범위원회 조직도

다. 보다 못한 마을의 청장년층이 자율방범대를 조직하고 치안활동을 전개했다. 자율방범대는 마을회관에 사무실을 두고 곳곳에 경고문을 부착했으며 조(組)를 편성해서 밤마다 순찰을 돌았다. 방범대의 활동으로 마을에서는 절도사건이 크게 줄었다. 그래서 근무방식도 순찰을 폐지했고 사무실에 대기하다가 신고접수 후 출동하는 방식으로 전환했다.



장수리 방범위원회 수칙

04.

출향인들이 만든 향우회와 장학회



오재환과 함께 장수리장학회를 이끌어 온 홍세기(2018)

장수리는 이촌향도(移村鄕都)한 사람이 많다. 과거 농지가 부족하고 농업생산력이 떨어질 때는 열 대 여섯살만 되면 고향을 떠나 돈을 벌었다. 상급학교에 진학한 사람들도 마을로 돌아온 사람이 거의 없다. 하늘과 바다만 바라보이는 두메산골에 머물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들을 ‘출향인(出鄕人)’이라고 부른다. 장수리 출신의 출향인들은 전국 각지로 흩어졌다. 부득이 마을을 떠났지만 애향심만큼은 둘째가라면 서러울 만큼 대단하다.

‘장수리향우회’는 출향인들 모임이다. 1988년 출향인 오재환(남, 1928년생)을 중심으로 ‘장수리장학회’가 설립됐는데 이것을 모태로 1991년 창립한 것이 ‘장수리향우회’다. 초대 회장은 김영주였다. 장수리향우회의 설립 목적은 두 가지다. 그중 하나가 출향인들의 소식을 공유하고 애경사를 함께 하며 공동체 의식을 도모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고향마을과 서로 돕고 교류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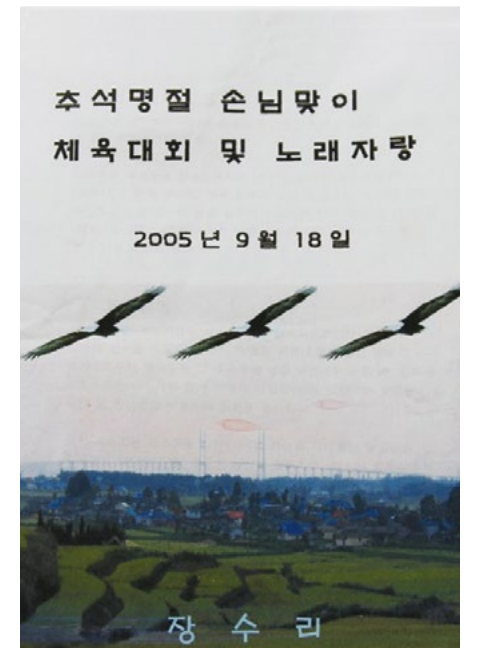
장수리 향우회보 지령100호 기념판



고향방문의 날 모습

향우회는 창립 후 정기적으로 모임을 가졌다. 창립 직후부터 '장수리 향우회보'를 간행하고 고향 소식, 출향인들 동정, 애경사, 고향에 대한 추억도 공유했다. 정화진이 향우회장을 하던 1997년부터는 장수리대동회와 공동으로 '고향방문의 날'을 개최했다. 고향방문의 날에는 출향인들이 전세버스를 전세 내서 마을을 찾았고, 마을에서는 노래자랑과 마을잔치를 열어 함께 즐겼다. '고향방문의 날' 행사는 4회 정도 개최되다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중단됐다. 장수리향우회보도 지령 100호를 끝으로 발행이 중단되었다. 장수리향우회는 지금도 존재한다. 하지만 기존 회원들이 노쇠하고 젊은 회원들의 활동이 미흡해서 예전 같은 활력을 보여주지 못한다.

장수리 장학회는 1988년 설립됐다. 장학회 설립은 해방되던 해 조기회와 야학운동을 전개했던 오재환(남, 1928년생)이 주도했다. 오재환의 뇌리에는 오래된 부채의식이 남아 있었다. 조기회와 야학운동을 전개할 때 야학교실이 모자라 마을 유지들과 주민들의 도움으로 공회당을 건립했지만 뜻을 이어가지 못하고 불가피하게 고향을 떠난 것에 대한 죄스러움이었다. 사업이 바쁠 때는 마음에 담긴 부채를 실행할 엄두를 못 냈다. 그러다가 환갑을 넘기고 사업에서 은퇴하면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뜻을 같이할 사람을 찾다가 출향인 김영주를 만났다. 김영주는 남대문시장에서 '삼성까운'이라는 점포를 운영하고 있었다. 고객들도 많았



2005년 추석명절 손님맞이 체육대회 및 노래자랑 팸플릿

05.

마을환경을 개선한 새마을운동



새마을운동 때 확장한 마을 진입로(2017)



장수리-권관리 간 도로(2017)

새마을운동은 제3공화국 정부에서 실시한 농촌근대화운동이다. 1970년 4월 초 박정희대통령은 농민과 관계 기관, 지도자 간의 협조를 전제로 농촌자조노력진작 방안을 연구하라고 특별 지시를 내렸다. 내무부는 각 지방공무원들에게 명령을 하달했고 관료들이 나서서 일사불란하게 사업을 추진했다. 심지어 내무부는 지방공무원들에게 업무를 배정하면서 새마을운동 성취를 다짐하는 백지 사표를 제출하게 한 뒤 파견했다고 한다. 유달영 등 전문가를 동원하여 근면·자조·협동과 같은 새마을사업의 명분과 이론적 토대도 만들었다.

정부는 1970년 말에서 이듬해 6월 사이 전국 33,267개 리洞(里洞)에 시멘트 335포씩 무상 지급했다. 또 마을마다 개발위원회를 조직하게 하고 이장과 새마을지도자를 선발하여 수원 농촌진흥청 앞 농민회관에 보내 연수받게 했다. 새마을사업은 지역 새마을사업, 부녀새마을사업, 직장 새마을운동으로 분화 발전했다. 이

가운데 가장 먼저 실시된 것은 마을환경개선사업이다. 마을환경개선사업은 지붕개량과 마을길 정비사업, 담장 개선사업이 핵심이었다. 일부 마을에서는 마을회관 신축, 하수로 정비, 간이상수도 설치도 추진했다. 1970년대 중후반에는 퇴비 증산과 개토 사업 등 영농기반 조성 및 소득증대사업, 의식계발사업도 함께 추진했다.

장수리 새마을운동은 이장 김영준(남, 1933년생)과 초대 장수리농업협동조합장을 지낸 김정수, 김진만이 주도했다. 사업 초기 수원농촌진흥청 농민회관 연수는 김진만이 다녀왔고 새마을지도자는 김정수가 맡았으며 김진만이 뒤를 이었다. 장수리 주민들은 새마을운동의 취지와 목적을 전달받고는 크게 고무되었다. 이들에게는 해방 직후 조기회 계몽운동과 이동조합운동의 경험이 남아 있었다. 이동조합의 조직과 자금도 큰 힘이 되었다.



장수리새마을운동 시기 이장을 지낸 김영준(2018)

1971년 정부에서 시멘트 335포가 무상 지급됐다. 장수리 주민들은 지급된 시멘트로 마을안길 넓히기와 하수로 개수사업을 실시했다. 주민들은 새마을사업을 열렬히 환영했고 개인을 희생하면서까지 협조했다. 마을안길 넓히기를 할 때는 개인 소유 토지가 보상 없이 수용되어도 국가시책이고 마을 발전을 위한 것이라며 반대나 논란 없이 협조했고 공사를 마친 뒤에는 평택군에 기부했다.



새마을운동 때 확장한 마을안길(2018)

마을길 넓히기 사업은 큰 변화를 가져왔다. 우마차만 겨우 다닐 수 있었던 좁은 골목길이 넓혀져 자동차와 농기계가 다닐 수 있게 되었다. 1976년에는 국도 39호선과 마을회관 사이의 진입로도 확장됐다. 진입로 확장으로 마을회관 앞까지 시내버스가 운행될 수 있었다. 당시 마을길 확장과 버스 도입을 주도한 인물은 이장을 지낸 김영준(남, 1933년생)이다. 김영준은 이자현 국회의원 사무국장으로 일했던 이주상을 만나 도움을 요청했다. 이주상은 평택군청 새마을과장을 만나도록 주선했고 과장 대신 계장을 만난 김영준은 마을 길 확장과 버스운행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렇게 얻은 800만 원으로 마을진입로를 확장하면서 시내버스가 들어오게 되었다.

지붕개량과 퇴비증산사업도 신속하게 추진되었다. 지붕개량은 2, 3년마다 이엉을 올리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고 벗짚을 가마니나 뿔감으로 활용할 수 있어 이중효

과를 얻을 수 있었다. 정부는 저리로 지붕개량 자금을 융자해줬다. 또 성과에 목말랐던 공무원들은 주민들이 지붕개량을 반대하면 지붕에 올라가 초가지붕을 강제로 걷어내기도 했다. 퇴비 증산은 마을끼리 경쟁을 붙였다. 경쟁에서 앞선 마을은 우수마을로 지정한 뒤 상금과 각종 혜택을 줬다. 그래서 마을마다 경쟁이 치열했다. 일부 마을에서는 퇴비를 부풀리느라 각종 편법을 동원하기도 했다.

새마을운동에는 부녀자들도 적극 참여했다. 197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가정에만 머물렀던 여성들은 새마을운동 과정에서 각종 사업을 돕고 생활개선이나 소득증대사업에 참여했다. 회비를 적립해서 장리쌀을 놓아 자산을 늘렸고 이것으로 마을어른들 식사대접을 하거나 부녀회원 야유회를 다녀오기도 했다. 장수리 부인회는 1972년부터 이동조합에서 운영했던 구판장을 위탁 운영하기도 했다.

새마을사업은 1980년대로 접어들면서 시들해졌다. 제3공화국의 몰락과 국가주도의 농



새마을운동 때 확장한 마을안길과 슬레이트지붕(2020)



1970년대 새마을운동 때 개량한 슬레이트지붕들(2018)

촌근대화운동이라는 한계, 정부주도의 소득증대사업의 실패가 원인이었다. 당시 장수리 이장으로 새마을사업을 주도했던 김영준(남, 1933년생)도 ‘국가차원의 사업이다 보니 협조 안 할수 없는 분위기여서 빠르게 추진됐지만 한계도 많았다고 평가했다. ●

06.

우리 집이 쌀 100가마 짜리였어요



쌀 100가마로 구입한 홍세기씨 덕 내부(2020)

농지가 적었던 근대 이전까지만 해도 장수리에는 큰 부자가 없었다. 그러다가 일제강점기부터 부재지주들이 마을 서쪽 원논을 간척하기 시작했다. 오재환(남, 1928년생)은 해방 전후 가장 큰 지주로 이교원을 꼽았다. 오성면 사람 이교원은 일제강점기 원독을 막아 대규모 간척지를 확보했다. 수원 부재지주 박동근도 농지가 많았다. 박동근은 장수리와 기산리 가사마을 사이의 수릿골과 텃논 일대를 소유했다. 마을에서 부자 소리를 들었던 사람들은 부재지주의 마름들이었고 주민들은 대부분 소작농이었다. 주민들이 자기 땅을 갖게 된 것은 제1공화국 시기의 농지개혁 덕분이었다. 농지개혁으로 지주들은 농지 대부분을 잃었고 소작농들은 비로소 자작농으로 성장했다.

박동근의 마름은 오덕유였고 노태현, 최수용도 마름을 봤다. 마을에서 경제적으로 부유했고 주택규모가 컸던 사람은 오덕유였다. 오덕유는 마름을 보며 재산을 모아 상당량의 토지를 소유했던 토착 지주였다. 그래서 그의 집은 비록 초가였지만 안채와 행랑채를 모두 갖춘 ㄱ자 형태의 큰 집이었다. 행랑채에는 사랑방과 외양간, 곳간을 갖췄고 뒷간이라고 불렀던 화장실은 집 밖에 있었다. 오덕유 가족은 아들 오경환이 몰락한 뒤 거의 빈집상태로 남아 있다가 지금은 외손들이 살고 있다. 1950년대 오덕유 덕에는 유성기가 있었다. 당시만 해도 유성기는 부잣집에나 한 대쯤 있을까 말까 했던 귀물이었다. 주민들은 틈틈이 오씨 덕으로 유성기를 들으러 다녔다. 오덕유의 집 옆에 있었던 노태현의 집과 최수용의 집도 제법 넓었다. 노태현의 집은 나중에 홍병욱이 매입했다.

한국전쟁 전까지만 해도 장수리는 마을 전체가 초가집이었다. 같은 초가라도 마름들의 집은 제법 규모를 갖췄지만 일반 주택들은 초가삼간, 초가 다섯 칸이 고작이었다. 장수리에서 안채와 함께 사랑채를 두기 시작한 것은 1960, 70년대부터다. 새마을운동을 전개할 때는 초가집이 슬레이트 지붕으로 바뀌었다. 일부는 시멘트로 찍어낸 새마을 기와를 얹기도 했다. 아산만방조제 준공과 야산개발로 경제력이



1936년 지어진 공길구 가옥(2020)

향상되면서 주택개축이나 신축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이들은 과거 마름들의 집을 본떠 본채와 행랑채를 구분했고 재정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들은 한식 기와를 얹었다.

1970년대에는 주택개량과 함께 부엌환경과 화장실도 개선됐다. 정부는 아궁이 개량이나 개량식 화장실 개선사업을 지원했다. 그래서 집집마다 부엌에는 연탄 아궁이를 설치했다. 1970년대 중, 후반에는 새마을 보일러도 설치했다. 연탄 사용은 땀값 연료를 감소시켜 여성들의 가사노동과 생활개선에 큰 영향을 끼쳤다. 분뇨와 재를 거름으로 사용하도록 설계된 전통 화장실도 개선됐다. 개량식 화장실은 거름 확보보다는 안전하고 쾌적하게 배변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 특징이었다. 시대가 바뀌면서 분뇨와 같은 천연비료보다도 화학비료의 사용이 증가하면서 나타난 현상이었다.



소화11년(1936년) 명문이 씌여진 공길구 가옥 상항문(2020)



1960년대 후반 기와집으로 신축된 집은 오봉석, 김진옥, 안병석 가옥이었다. 오봉석의 기와집은 1967년 신축했다. 이 집은 신영리 매상동에 거주하던 김진홍의 외사촌 매형 박녹환이 지었다. 오봉석의 집은 마루에 유리창을 달아서 주위에서는 호화주택이라고 부러워했다. 김진홍(남, 1938년생)의 집은 오봉석의 집과 비슷한 시기에 신축했지만 초가집이었다. 건축은



오른쪽이 홍세기 왼쪽이 공길구 가옥(2020)

목수였던 부친 김정기가 했다. 김정기는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며 민가(民家)를 건축했는데 농사짓고 목수를 하며 모은 돈으로 새 주택을 신축했다. 목재는 서울에서 덤프트럭 1개 분량(7천사라고 표현함)을 사왔다. 지점 다지고 지붕을 올릴 때는 마

을 주민들이 나서서 도와줬다. 건축 기간은 두 달이 걸렸다. 상량을 올릴 때는 팔떡과 시루떡으로 기원했고 마을 사람들과 음식을 나눴다. 이렇게 건축한 김진홍의 집은 전형적인 ㅁ자 구조다. 과거에는 사랑채와 행랑채에 소여물을 쐼는 방과 외양간과 창고가 있었다고 한다.

1990년 전후에는 입식 부엌과 보일러로 주택을 개량하는 사람이 많았다. 개중에는 정부의 주택개량지원금을 대출받아 슬라브 주택을 신축하기도 했다. 봉하섬은 1984년경 입식으로 주택을 개량했다. 1998년에 신축한 이용원(남, 1944년생)의 집은 윗말에 거주하는 목수 서명석이 지은 슬라브 주택이다. 서명석은 콘크리트 주택뿐 아니라 흙벽돌집도 많이 지었다. 이용원의 집은 주택신축에만 6천만 원, 인테리어와 부속건물까지 합쳐 거의 1억 원 가까이 소요되었다.

홍세기(남, 1947년생)의 부친 홍병옥은 마름이었던 노태현(노병택)의 집을 매입했다. 본래 아랫말과 윗말 경계에 있었던 그의 집은 술 마시고 지나던 사람이 화장실에 빠져 죽은 일이 있던 뒤로 상서롭지 않은 일들이 자주 발생해 쌀 100가마를 주고 노씨의 집을 매입했다.

1990년 전후 주택개량이 이뤄지면서 난방시스템에도 변화가 나타났다. 1970년대 새마을 보일러는 1990년 전후 기름보일러나 심야전기보일러, 화목보일러 등으로 교체됐다. 주방에서도 전기밥솥이나 가스레인지 사용이 일반화되었다. 1978년 윗말과 아랫말에 간이상수도가 설치되면서 입식 부엌에서도 편리하게 수도를 사용했고 수세식 화장실도 가능해졌다. 경제적으로 여유를 갖게 되면서 농기계나 농사 도구, 어구(漁具)를 보관하거나 농산물 보관을 위해 창고를 따로 마련하는 경우도 많아졌다. •



목수였던 아버지가 지은 김진홍 가옥(2017)



부친이 사용했던 문틀 홈 대패를 보여주는 김진홍(2017)



장수리 최초의 기와집 오명석 가옥(2022)



서명석 가옥(2019)



옛집을 리모델링하여 살고 있는 봉하섬의 가옥(2019)



초가삼간을 리모델링한 신영식 가옥(2019)



맨손어업으로 돈을 벌며 1998년 건축한 이용원 가옥(2019)



김영일 가옥(2019)

07.

광목과 나일론 나오면서
헐벗은 것 면했죠

조선 후기로 오면서 여성들의 사회적 지위가 매우 낮아졌다. 재산상속권도 박탈당했고 각종 규례로 억압받았으며 철저히 남성에게 예속되었다. 여성의 가정교육은 어머니 몫이었다. 어머니는 혼기가 찬 딸에게 삼종지도(三從之道), 칠거지악(七去之惡)부터 길쌈이나 바느질, 요리, 육아와 관련된 지식을 가르쳤다. 길쌈과 바느질은 생존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옷감을 구하기 힘들었던 시대에는 농가에서 직접 삼과 목화를 재배하고 물레로 실을 뽑아 옷감을 짰다. 옷감을 재단해서 맵짠 바느질 솜씨로 옷을 짓는 것도 여성들의 몫이었다. 이처럼 복잡하고 고된 노동을 거쳐야 했기에 옷이 무척 귀했다.

해방 전후만 해도 시골 농가에서 길쌈하는 모습은 흔한 풍경이었다. 시장에는 광목이나 양단, 공단 같은 옷감이 널렸지만 서민들은 광목과 무명을 제외하고는 사입기가 힘들었다. 계절마다 옷을 해 입거나 여러 벌의 옷을 갖춘 사람은 흔치 않았다. 겨울옷 한 벌과 여름옷 한 벌로 일 년을 나는 사람이 많았고 가난한 여성들은 훌쩍 적삼으로 겨울을 나기도 했다. 오재환(남, 1928년생)에 따르면 일제강점기 장수리 아이들은 광목옷이나 무명옷(면포)을 입었다고 말했다. 그가 초등학교에 입학했을 때는 어머니가 무명을 여러 겹 덧댄 양복을 지어 주었다고 한다. 홍병욱(남, 1922년생)도 겨울에는 광목으로 지은 누비바지를 입었고 여름에는 무명 적삼을 걸

쳤다고 말했다. 모두가 가난하고 힘들었을 때였지만 그래도 경제적으로 넉넉한 집 아이들은 양복이나 맞춤옷을 입었다. 그런 아이들은 동네 아이들의 부러움을 샀다.

신발은 와라지(짚으로 썰피나 게다처럼 만든 신발)나 게다, 짚신을 신었다. 고무 신이나 운동화가 보급됐지만 가난한 농촌 아이들 중에는 구입해서 신을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았다. 와라지와 게다는 만들기도 쉽고 튼튼해서 아이들이 많이 신었다. 신발이 귀하다 보니 여름철에는 맨발로 걸어 다니는 아이들도 많았다. 어른들은 짚신을 신거나 여름에는 맨발 차림이었다. 겨울에는 와라지에 버선을 신었다. 그러다 보니 와라지를 신고 눈길을 걸으면 발이 축축하게 젖었다. 일제 말 오재환은 운동화를 한 켤레 얻었다. 너무 귀해서 아끼느라고 학교를 오갈 때는 맨발로 걷다가 교실에 들어갈 때만 잠깐씩 신었다.

장수리 사람들의 의(衣) 생활에 큰 변화를 가져온 것은 나일론과 고무신의 보급이다. 해방 후에는 장수리 사람들 중에도 고무신을 신는 사람들이 생겼고 한국전쟁 뒤에는 보편적으로 많이 신었다. 고무신은 안중 장날에만 구입할 수 있었다. 대부분 김정고무신을 신었고 어른들이나 특별한 사람들만 흰고무신을 신었다. 구두는 잘 사는 집이나 한 켤레씩 있었다. 1950, 60년대만 해도 양복에 구두를 신으면 ‘양복쟁이’라고 부러워했



공길구의 조부 공재덕 부부의 회갑연



공길구의 부친 공창식 부부의 복식

다. 운동화는 1960년대 중·후반이 되면서 보급량이 증가했다. 중·고등학교 진학률이 증가하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나일론은 1957년 한국나일롱(주)이 설립되면서 보급되기 시작했다. 한국나일롱(주)은 그 뒤 (주)코오롱으로 성장했는데 옷감이 질기고 따뜻해서 선풍적인 인기를 누렸다. 장수리 사람들도 1950년대 말쯤부터는 나일론 옷을 입었다고 말했다. 나일론 옷은 안중장 기성복 상점에서 사거나 마을로 들어오는 보따리장수에게 구입했다.

나일론 옷, 나일론 양말이 보급되면서 길쌈과 바느질의 중요성이 크게 줄었다. 세탁도 간편해졌다. 안중장 포목점에서 광목이나 무명을 사서 밤새워 옷을 지었던 여성들도 이제는 기성복 가게에서 옷을 구입했고 널리 보급되었던 세탁비누로 쓱쓱 빨아서 깨끗하게 입었다. 나일론은 아이들과 청장년층의 의생활에 혁명적 변화를 가져왔지만 노인들 중에는 여전히 한복만을 고집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장수리에서 한복이 사라진 것은 1980, 90년대 이후다. 1776년 강화도조약으로 근대문물이 들어온 뒤 무려 1백 년이 지난 시점이었다.

나일론이 보급되었지만 가난한 집에서는 옷을 자주 구입할 여력이 없었다. 송순자(여, 1935년생)는 아이들을 키울 때 새 옷은 명절에나 한 벌씩 사주었다고 말했다. 형제가 많은 집에서는 형이나 누나의 옷을 동생이 물려 입는 경우가 많았다. 옷이 해져 기워 입는 경우는 흔했다. 일반 가정에서 바느질고리가 사라진 것은 1990년대 이후다. 설령 있다고 해도 단추를 달거나 바느질 몇 땀 뜨는 것이 전부다. 지금은 옷이 해져서 못 입는 것이 아니라 유행이 지났거나 입기 싫어서 안 입는다. 그래서 여성 노인들은 세상 참 살기 좋아졌다고 말한다. 매일 맛있는 음식을 먹고, 계절마다 새 옷을 구입하며, 세탁기와 건조기가 빨래해주는 세상은 상상조차 못했다는 말이다. •

08.

친정어머니 오셨는데
콩보리밥만 대접 했어요

이정인 가옥 장독대(2017)

전통사회에서 여성은 ‘끼니’를 해결하기 위해 하루 종일 일했다. 밥을 하려면 땀감도 필요했고 우물에서 물도 길어야 했다. 남자들이 농사를 지어 쌀독을 채워야 하듯 여성들은 물을 길어 물독을 채우고 잔걸음으로 산에 올라 땀감을 장만했다. 절구나 디딜방아로 곡식을 도정(搗精)하는 일도, 빨래와 육아도, 밭농사도 대부분 여성들의 몫이었다.

여성들이 물길을 때는 물둥이와 물지게를 사용했다. 물둥이는 균형을 잡기가 힘들어 미숙한 사람은 반 동이만 채워서 이고 다녔다. 물지게는 나중에 보급되었다. 빨래도 두 우물에서만 했다. 다른 우물은 염기가 많아서 빨래를 하거나 그릇을 씻으면 삭아버렸다.

땀감은 흔한 편이었다. 장수리 주변 구릉들은 1970년대 야산개발을 하기 전까지만 해도 나무가 많았다. 여성들은 부지런히 나무를 했다. 때론 남자들이나 학교에 다녀온 아이들도 책보를 풀어 던지면 나무하러 갔다. 나무하다가 산 주인에게 걸리면 욕을 먹었지만 어지간하면 눈감아주었다. 땀감으로는 솔가지나 솔가리, 벚짚이나 참깨 대, 콩대를 많이 사용했다. 벚짚은 가마니와 새끼를 꼬고 초가지붕을 엮어야 했다. 근처 도대리에서는 토탄(土炭)이 나왔다. 1950년대에는 토탄을 말려서 땀감으로 팔기도 했는데 장수리 사람들 중에는 이것을 사다 때는 사람도 있었다. 김진홍(남, 1938년생)은 땀감이 없어 나무 밑동을 잘라 때기도 했다고 말했다. 비록 힘은 들었지만 커다란 나무 밑동 한 개면 엄동설한에도 방을 절절 끓게 할 수 있었다. 땀감부족은 1970년대 연탄아궁이를 설치하고 연탄보일러, 기름보일러, 가스레인지가 보급되면서 해소되었다. 지금은 아궁이 있는 집을 발견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산마다 나무가 지천인데도 아무도 가져가는 사람이 없다.

1960, 70년대만 해도 가난한 사람이 많았다. 가난한 사람은 일 년 내내 쌀밥 구경을 못했다. 설령 쌀이 조금 있다고 해도 시부모님과 남편 밥을 퍼내고 나면 남는 것은 콩보리밥뿐이었다. 동네에서 하루 세끼 쌀밥 먹으면 부자라고 했다. 옛날에는

하루 두 끼로 연명하는 사람이 태반이었다. 보리밥은 가마솥에 한 번 삶아서 큰 바구니에 담아 뒀다가 조금씩 덜어서 밥했다. 그래서 가난한 집 부엌에는 커다란 보리쌀 바구니가 걸려 있었다. ‘시레기죽’, ‘푸레기죽’도 많이 먹었다. 곡식을 아끼기 위해 쌀이나 보리쌀에 씨레기를 듬뿍 넣어 끓인 것이 씨레기죽이었고, 밀가루에 호박과 콩을 넣어 끓인 것이 푸레기죽이었다. 메밀죽도 많이 먹었다. 가뭄이 들어 모내기를 못하면 논에 생육기간이 짧은 메밀을 심었다. 이것을 껌질째 맷돌에 갈아서 죽을 쑤 먹었다.

이정인(여, 1939년생)은 화성시 양감면 독줄이 친정이다. 22살에 신랑 얼굴도 보지 못하고 서명석(남, 1941년생)과 혼례를 올렸다. 시댁은 오막살이에 농지도 없어서 소작 짓고 품팔아서 먹고살았다. 1960~70년대 초반에는 하루 품삯이 5일 일해주면 쌀 1말이었다. 돈으로 받으면 하루 400원, 500원에 불과했다. 남편은 목수였다. 동네 주택들은 남편 손길로 신축됐지만 실제로 벌어들인 돈은 많지 않았다. 시부모와 시동생, 아이들이 줄줄이 있는 집안에서 가정을 지탱했던 것은 이정인이다. 이씨는 먹고 살 수 있는 것이라면 닥치는 대로 일했다. 이정인은 “내가 소로 논갈이만 해보지 않았지 안 해본 일이 없다”고 말한다. 이른 봄이면 남의 집 밭을 매쳤고, 모내기철에는 하루종일 허리가



이정인(2017)

부러지도록 모를 심었다. 짬이 나면 쉬지 않고 갯벌로 달렸다. 어촌계에 가입해서 어선을 타고 아산만 안쪽 갯벌까지 나가서 바지락과 갯지렁이, 맛, 시라시(전기뱀장어 새끼)를 잡았다. 갯가에서 돌아오면 집안일을 했다. 그렇게 하루종일 정신없이 일하고 나면 밤 12시, 새벽 1시가 넘었다.

그렇게 빠빠지게 일했어도 가난에서 벗어나는 일은 쉽지 않았다. 어느 해 보릿고개에는 식량이 떨어져서 보리쌀 1가마를 장리로 얻어먹고 가을에 쌀 1가마 반을 갚았다. 일 년 내내 쌀밥 한 번 제대로 먹지 못했다. 봄에서 가을까지는 푸레기죽으로 연명했고, 이른 봄에는 쑥에다가 메주콩(노란콩)을 갈아 넣어서 콩죽을 먹었다. 보리쌀과 수수를 갈아 쑥을 넣어 만든 개떡도 한 끼 식사였다. 식구들 밥 퍼주고 나면 밥이 부족해서 굶기도 많았다. 이정인에게 가장 가슴 아픈 기억은 새끼들 쌀밥 한 번 제대로 먹이지 못하고 키운 것과 친정어머니가 오셨을 때 콩보리밥만 대접한 것이다.



이정인의 남편 서명석(2017)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양감면 독줄에서 친정어머니가 찾아왔는데 쌀밥 한 그릇 대접할 형편이 안 되었어. 어머니가 몇 끼를 보리밥만 드시더니 돌아가시며 눈물을 지으시더라. 그러고는 얼굴 한 번 못 뵈고 돌아가셨어. 지금 생각해도 가슴이 터질 것 같아.”



가을날 집앞에서 콩을 까는 이정인(2017)

어려운 형편에도 자녀들은 잘 자랐다. 남편도 요즘에는 회사 경비일을 하며 돈을 잘 벌어난다. 일곱 식구, 여덟 식구가 북적이던 집도 어른들 돌아가시고 아이들 나가고 나니 텅 빈 집 같다. 그래도 가난했던 시절을 옛이야기처럼 말할 수 있어 좋다. •

09.

우리 때는 가마 타고 시집왔어요

여성의 삶에서 혼례(婚禮)는 가장 중요한 의례였다. 남존여비(男尊女卑) 사회에서 여성에게 남자를 잘 만나는 것은 가장 큰 행복이었다. 오죽했으면 ‘여자 팔자 뒤 웅박 팔자’라고 했을까. 이렇게 중요한 혼인이었지만 전통사회에서 스스로 배우자를 선택하기란 무척 어려웠다. 혼인은 개인사가 아니라 집안의 대사(大事)였기 때문이다. 매파를 놓거나 장터 나들이에서 돌아온 아버지가 ‘몇 월 며칠에 누구와 혼인하기로 했다’고 선언하면 그뿐이었다. 후대로 오면서 맞선이란 게 생겼다. 중매쟁이가 누구네 처자가 좋다고 하면 부모가 아들을 대동하고 여자 집에 가서 슬쩍 얼굴을 보는 방식이었다. 조금 개방된 부모라면 둘이 말을 섞어 볼 수도 있도록 했다. 1960, 70년대로 넘어오면서부터는 시내 다방에서 맞선보고 데이트를 즐겼다. 데이트라고 해봤자 밥을 먹고 미장원에 다녀오는 것이 전부였지만 크게 변한 풍속도였다.

1970년 전후 구식혼례가 점차 신식혼례로 바뀌기 시작했다. 처가집 마당에서 구식혼례를 마치고 첫날밤을 보낸 뒤 가마 타고 시댁으로 돌아오는 전통혼례가 사진관이나 예식장에서 혼례를 올리고 사진을 찍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예물도 바뀌었다. 해방 전후만 해도 가난한 농가에서는 구리반지나 은반지 고무신 한 켤레를 받으면 감지덕지했지만 점차 생활환경이 나아지면서 쌍가락지에 금목걸이, 시계를 세트로 건네는 사람도 나타났다. 1970년 전후에는 신혼여행을 다녀 오는 사람들도



봉하섭 부부(2017)



홍세기 부부(2017)

생겼다. 기껏 서울이나 온양온천이 고작이었지만 놀라운 변화였다.

가마타고 신행(新行) 가던 풍속도 한국전쟁 뒤에는 도라꾸(트럭)나 버스를 탔고 나중에는 택시나 자가용을 타고 시택으로 들어왔다. 1960년대만 해도 결혼 후 몇 해는 부모 형제와 같은 집에서 사는 것이 당연했다. 그래야만 정이 두터워진다고 믿었다. 그러다가 집과 전답을 장만해서 분가시켜주면 독립된 가정을 꾸렸다.

청주가 친정인 김춘자(여, 1944년생)는 28세에 혼인했다. 중매는 시아주버니가 했고 도대1리 샘골 외가에서 맞선을 봤다. 신랑은 썩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외삼촌이 좋은 집안이고 형제들도 우애가 깊다고 해서 승낙했다. 맞선을 본 뒤 안중장에 나가 사진을 찍고 밥을 먹었다. 일종의 약혼식이었다. 맞선 뒤 7개월 동안 편지를 주고받으며 사랑을 키웠다. 혼례는 친정에서 구식으로 했다. 예물은 금반지와 시계



청주가 친정인 김춘자(2017)

를 받았다. 남편에게는 시계와 양복을 선물했다. 신행(新行) 올 때는 시내버스를 타고 고재집때 정거장에서 내려 마을까지 걸어 들어왔다. 혼례 후 시댁에서 석 달을 살다 세간(분가)났다. 분가할 때는 논 5마지기를 받았다.

김재분(여, 1937년생)은 21세에 고덕면 방축리에서 시집왔다. 이웃 마을에 살았던 집안 아저씨가 중매했다. 중매쟁이에게는 감사하다며 신발을 사줬다. 맞선도 보지 못하고 친정에서 구식혼례를 치렀다. 혼례 전날에는 함도 팔았다. 혼례 후 하룻밤을 자고 시댁으로 왔다. 도라꾸(트럭)를 타고 마을 입구까지 온 뒤 고재집때에서 가마를 탔다. 시댁에서 3일을 잔 뒤에는 친정으로 재행을 갔다. 재행 가면 동네 청년들이 몰려와 신랑달기를 했다. 신랑달기를 할 때면 재를 뿌리고 장작으로 발바닥을 찼다. 신혼살림은 시댁에서 시작했고 딸 셋을 낳은 뒤에야 분가했다. 분가할 때 초가삼간과 논 5마지기를 분배받았다.



고덕면 방축리에서 시집 온 김재분(2017)



청북읍 울포리에서 시집 온 안은순(2017)

안은순(여, 1950년생)은 청북읍 울북2리에서 시집왔다. 울북2리에 시집온 시누이가 중매했다. 맞선은 친정집에서 봤다. 우선 어른들끼리 만나 혼담을 나눈 뒤 본인들이 직접 얼굴을 보고 혼례를 결정했다. 혼례를 약속한 뒤 친정 마을에서 몇 번 데이트를 했다. 시댁에서는 결혼을 서둘렀다. 그래서 만난 지 서너 달 만에 구식혼례를 올렸다. 당시만 해도 신식혼례가 많았고 안씨도 면사포를 쓰고 싶었지만 시댁에서는 구식혼례를 하자고 밀어붙였다. 혼수로는 4계절 동안 입을 옷 5벌과 4자짜리 장롱, 이불을 준비했고, 폐물로 금반지, 금목걸이, 시계를 받았다. 예단은 하지 않았다. 혼례 하루 전에 함을 팔았다. 함에는 사주단자와 예물만 넣었다. 시댁에서는 새댁에게 농사일을 시키지 않았다. 그래서 한동안 집안일만 하며 아이들을 키웠다.

장수리에서도 1970년대 중반부터 신식혼례가 일반화됐다. 안중이나 평택시내 결혼식장에서 혼례를 올릴 때는 전세버스를 대절했다. 잔치도 식당에서 해결했다.



공창수 부부(2017)

1980년대에는 제주도 신혼여행이 붐을 이뤘다. 예식장 혼례가 일반화되면서 마을에 보관했던 혼례용 가마는 쓸모없게 되었다. 족두리나 병풍, 예복들도 쓸모없기는 마찬가지였다. •

10.

옛날엔 동네 사람들이 상(喪) 치렀지

장수리는 경주 김씨, 김해 김씨, 해주 오씨가 대성(大姓)이다. 일가친척들이 함께 살다 보니 상호부조와 결속이 강하다. 해방 후 조기회, 이동협동조합, 새마을운동, 청년운동을 거치며 축적된 상호신뢰의 전통도 결속을 다지는 데 도움이 되었다.

전통사회에서 상례(喪禮)는 마을의 가장 중요한 의례(儀禮)였다. 집성촌을 이룬 마을에서는 따지는 것도 많았다. 장수리에서는 상(喪)이 나면 문밖에 제사상을 차려두고 쌀과 망자의 옷을 올려두었다. 이장은 동네 사람들에게 부고(訃告)를 알렸고 청년들 몇 명을 선발해서 이웃 마을에도 부고(訃告)를 돌렸다.

마을에는 연반계라는 상계(喪契)가 있었다. 연반계원들은 상(喪)이 나면 쌀 3되를 부조하고 장례 일체를 도왔다. 계원이 아니어도 동네 사람이면 생업을 미뤄두고 서라도 상가(喪家)에 모여 어려운 일을 서로 나눴다. 여자들은 안중장에서 굵은 마포를 떠다가 상복을 만들고 음식을 준비했다. 남자들은 상여를 준비하고 만장을 만들었으며 묘(墓) 자리를 손봤다. 염은 염장에게 부탁하기도 했지만 장수리에서는 경험 있는 사람이 대신했다.

상여는 마을의 위상과 사회관계의 범위를 결정하는 수단이다. 농촌마을에서는 상여의 존재 유무에 따라 마을의 위상을 따졌다. 상여가 없는 마을에서는 있는 마



수루굴 상여집(2018)

을에서 빌려 장례를 치르고 비용을 지불했다. 혼례 때 사용하는 가마도 마찬가지였다. 그래서 마을 기금이 마련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상여 구입과 가마를 마련하는 일이었다. 장수리에는 일제강점기에도 공동 상여와 가마가 있었다. 출향인 오재환(1928년생)은 어렸을 적에도 상여와 가마가 있었다고 말했다. 상여집은 지금도 수릿골 부근에 있다. 상여는 마을에서 관리인을 두었다가 나중에는 이장이 관리했다. 1980년대 초에는 상여가 낡아서 새 상여를 구입하자고 논의했다. 다양한 의견들이 오가는 중에 청년회 주도로 최신식 플라스틱 상여를 구입했다.

1980년대 중반 청년회활동이 활발할 때는 청년들이 마을에 봉사하고 수익사업

을 하겠다고 주장해서 청년회에 상여 관리를 맡겼다. 상여를 대여하는 집에서는 따로 비용을 지불하지 않았다. 다만 상여 나가면서 노제를 지낼 때 망자의 노잣돈이라고 해서 상여줄에 돈을 꽂는데 이것을 청년회에서 수거하여 수익으로 삼았다.

선소리(상부소리)는 두레패 상쇠였던 허능봉이 했다. 오재환(1928년생)은 허능봉의 선소리는 하도 구성져서 이웃 마을에서도 초청받았다고 말했다. 노인회장 김영준(남, 1933년생)은 허능봉의 상부소리는 기억하지 못했고 인태식의 소리만 기억했다. 누구의 기억이 정확한지는 모르지만 저간의 사정으로 볼 때 허능봉이 하다가 인태식이 물려받았던 것으로 이해된다.

만장은 마을 노인 중에 학식과 경륜 있는 사람이 썼다. 부잣집에서는 만장을 많이 들었고 가난한 집일수록 만장 수가 적거나 없기도 했다. 부잣집에서는 별도로 꽃상여로 장례를 치르기도 했다. 꽃상여는 화려한데다 부귀를 상징하는 것이어서



청년회에서 운영했던 수루굴 상여집 내부(2018)

마을 사람들이 부러워했다.

상례(喪禮)에서 중요한 절차는 상여를 메고 운구하는 과정이다. 상여는 연반계원들이 지만 계원이 아니어도 주민들이 서로 메줬다. 1980년 경 연반계가 중단되고 청년회활동이 활발해지면서부터는 청년들이 상여관리와 묘역조성, 상여메기 등 상례(喪禮) 일체를 도왔다. 지금은 대부분 장례식장을 이용하고 마을에 청년들도 없어 상여 메 사람을 구하기가 어렵다.

상여가 나갈 때는 만장이 앞장서고 상두꾼이 상여에 올라타서 선소리를 하면 상여꾼들이 뒷소리를 하며 나아갔다. 상여 뒤로는 상주들이 따랐다. 1960년대까지만 해도 60세가 넘어서 사망하면 장수했다고 했다. 70, 80세가 넘어서 사망하면 호상(好喪)이라고 해서 큰 소리로 울지도 않았다. 묘지를 만들고 정리하는 것은 연반계원들이 하거나 마을 청년들이 했다. 매장이 끝나면 흙을 돋우고 잔디를 심어 말끔하게 정리했다.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교인들은 전통적인 장례 풍속을 거부했다. 장수전원교회 장로 이용원(남, 1944년생)은 교인 중에 상(喪)이 나면 동네 상여를 사용하지 않고 교회에서 염을 하고 꽃상여를 준비해서 기독교식으로 치렀다고 말했다. 그것은 천주교인들도 마찬가지였다. 19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로 넘어오면서부터는 가정에서 장례 지내는 경우가 거의 없고 대부분 장례식장을 이용한다. 자녀들이 출향했을 경우에는 서울이나 대도시 장례식장에서 치르기도 한다. 그래서 요즘은 상(喪)이 나면 공동스피커로 방송해서 알리고 친척들끼리는 전화나 SNS로 소식을 전한다. 부고(訃告)를 돌리는 풍속도 사라졌으며 상여를 사용하는 사람도 없다. 문상은 자가용을 타고 다녀오거나 안중장례식장에서는 조문 버스를 보내주기도 한다. 마을의 대사(大事)였던 상례(喪禮)가 이제는 개인적인 일, 종교적 절차가 되었다. •



경주 김씨 묘역(2015)



해주 오씨 벽성군파 묘역(2018)

장수리

03

사라지기 전
그리움을 남기다

03

제 3 장 생산활동

- 01. 간척과 경사지 개발로 경작지가 확장되다
- 02. 분배농지 없었으면 아직도 소작농(小作農)이죠
- 03. 아산만방조제가 장수리 농업 살렸어요
- 04. 옛날에는 두레패가 논매기했죠
- 05. 요즘에는 농기계 없이 농사 못 지어요
- 06. 고추 시설원에는 나 따라올 사람 없어요
- 07. 젊을 때부터 낙농업이 꿈이었어요
- 08. 요즘엔 안중장 나갈 일도 없어
- 09. 아산만 생선은 영복호가 다 잡았죠

01.

간척과 경사지 개발로 경작지가 확장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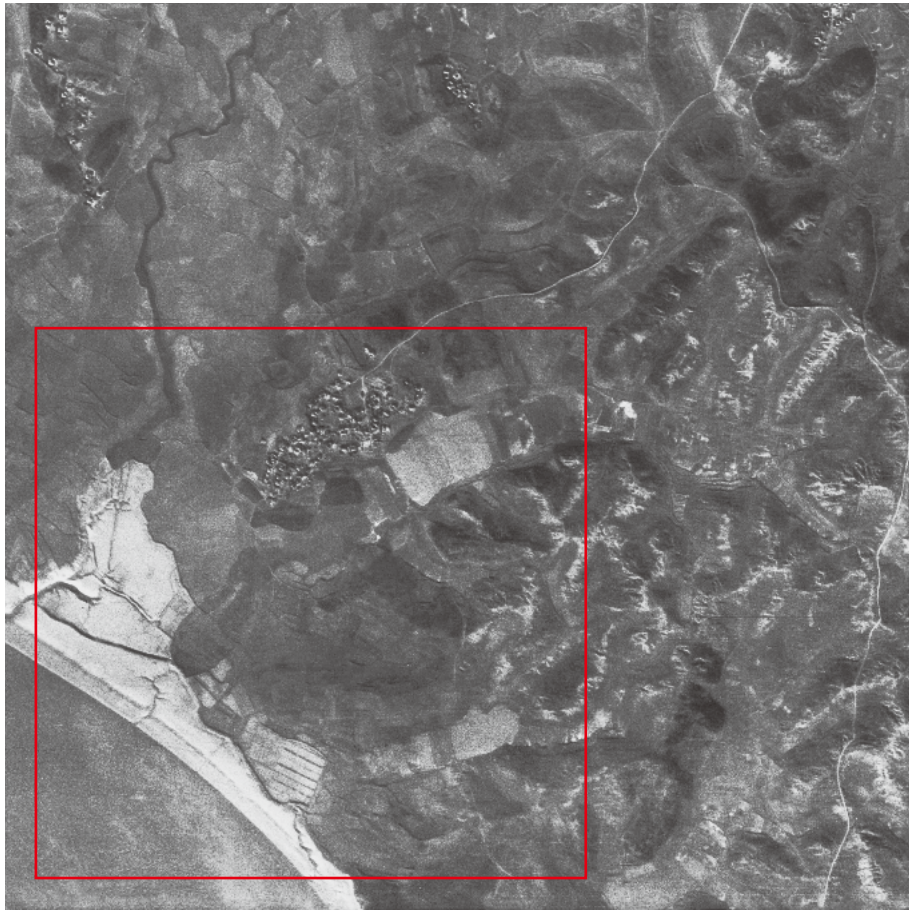
수루골 일대 5월 풍경(2020)



1919년 아산지도 중 장수리(붉은 ○표시)

조선 후기 장수리는 가사곶, 보시곶이었다. 곶(串)의 주민들은 반농반어의 생활을 했다. 구릉지대에는 밭을 일궈 곡식을 얻었고 때때로 갯벌에 나가 어패류를 채취했다. 근대 전후 저습지와 갯벌을 간척하면서 논농사가 발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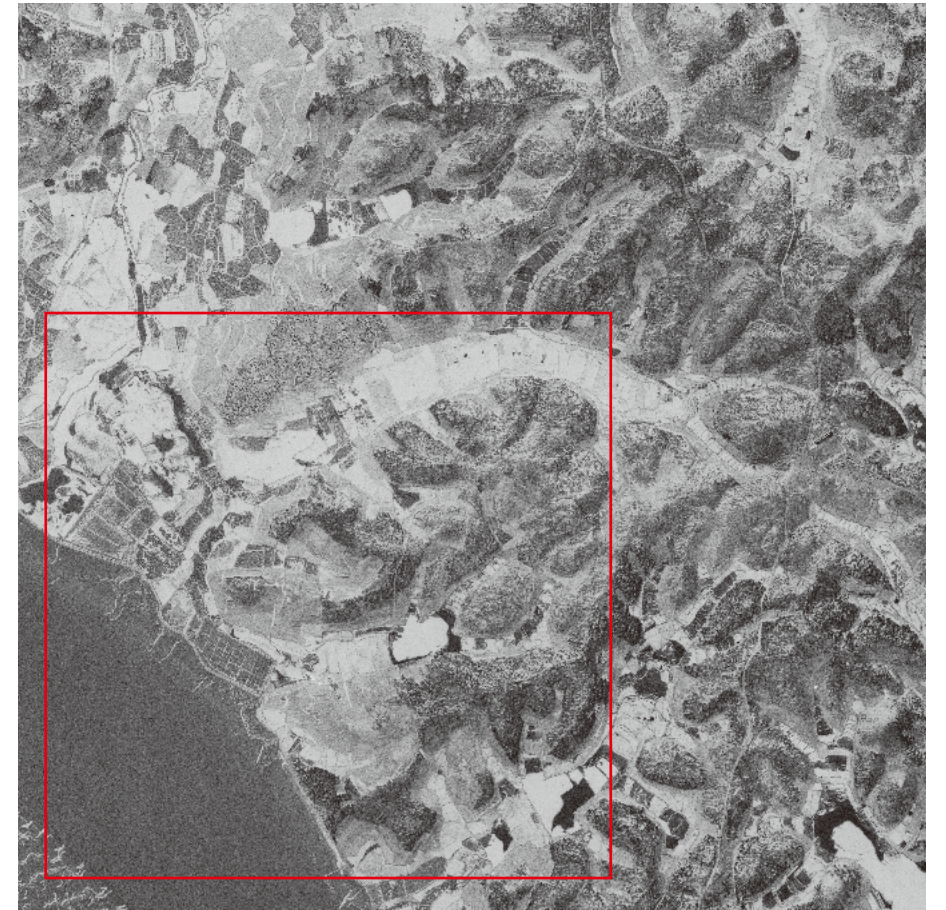
간척은 수전(水田)농업을 할 수 있는 경작지를 얻기 위해 실시됐다. 농민들은 바닷물이 적게 들어오던 곶(串)의 위쪽부터 간척을 했다. 경제수단이 필요했던 궁실(宮室)이나 권력자들도 농민들을 동원해 갯벌에 독을 쌓고 대규모 간척을 시도했다. 이렇게 형성된 간척지를 ‘원’, ‘원논’이라고 불렀다. 제언(堤堰) 또는 언(堰)을 사투리로 ‘원’이라고 부른 것이다.



1954년 현덕면 장수리 항공사진(국토지리정보원)

장수리에는 ‘원(堰)’이 많다. 1970년대 야산개발을 했던 다랑논이 아니면 대부분 ‘원’이다. ‘안새원’은 장수리 서남쪽 들이다. 텃논도 본래는 ‘터원’이었던 것이 구개음화된 것이다. 아래들은 안새원 아래에 다시 간척된 들이고, 소원들은 구릉과 갯벌이 만나는 곳에 간척된 들이다.

간척은 조선 후기부터 시작되었지만 근대 이후 더 많이 간척되었다. 주민들이 간



1969년 현덕면 장수리 항공사진(국토지리정보원)

척한 소규모 경작지는 소원틀, 텃논 등으로 짐작되며 궁실(宮室)에서 간척한 땅은 ‘궁논’이라는 지명으로 확인된다. 궁논은 ‘궁방전(宮房田)’의 흔적이다. 흔히 왕이나 왕족들이 사는 집을 ‘궁궐(宮闕)’, 또는 ‘궁(宮)’이라고 했는데 이곳에서 간척한 땅을 궁방전이라고 한다. 궁논은 고재집떼에서 마을 방향으로 내려오는 길의 우측 골짜기다. 깊게 파여 계곡이 형성된 곳으로는 과거 바닷물이 드나들었을 것이다. 궁논



1977년 현덕면 장수리 항공사진(국토지리정보원)

은 가뭄에 취약해서 장수리에서도 가장 척박한 땅에 속했다. ‘궁논 땅을 흉년에 국한 그릇과 바꿔먹었다’는 말은 그와 같은 상태를 말해준다.

쪽다리 아래쪽인 안새원과 아래들 일대는 일제강점기 부재지주들이 간척했다. 오재환(남, 1928년생)은 원둑 아래 간척지는 1939년(소화 14년) 가뭄 때 오성면의

이교원이 주민들을 동원해서 간척했다고 회고했다. 일제는 전시체제가 한반도 일대에 기록적인 가뭄이 들자 군량미 증산과 궁민(窮民) 구제를 위해 간척과 도로 확장, 수리시설 확장을 대대적으로 전개했다. 이교원은 국유미간지 간척허가를 받아 소작농과 주민을 동원하여 간척했던 것으로 보인다.

부재지주 이범태도 1939년(소화 14년) 가뭄 때 간척사업을 했다. 작고한 홍병옥(남, 1923년생)은 이범태는 흉년이 들자 빈민구제를 명분으로 원둑 아래를 간척했다고 말했다. 지주들의 간척사업에 장수리 주민들이 동원됐다. 각 지역의 궁민(窮民)들도 대거 몰려들었다. 도구래야 지계와 삼, 가래가 고작이었다. 더구나 애써 간척한 땅은 아산만의 거센 물살에 금방 포락(浦落)되고 말았다. 포락된 땅은 방치되었다가 다시 간척했다.

간척은 한국전쟁 뒤에도 계속되었다. 정부는 피난민정착과 전후 복구, 식량자급



봄논갈기(2017)



봄논에 물대기(2017)



한기수의 다람이는 씨래질(2020)

을 위해 세계구호단체의 지원을 받아 간척을 장려했다. 최수영은 1950년대 후반 주민들을 품꾼으로 동원해서 서동대로(해안도로) 부근 수만 평을 간척했다. 하지만 적은 임금 때문에 일하려는 사람이 적어 공사가 지지부진해지자 속칭 ‘평떼기(일한 면적에 따라 비용을 지불하는 방식)’를 했다. ‘평떼기’가 시작되자 주민들은 한 푼이라도 더 벌려고 주변 구릉을 헐어 갯벌을 메웠다. 최수영이 품삯으로 내민 것은 구



평택호 수로의 수감 신명호(2017)

호 밀가루였다. 하지만 최씨의 간척도 거센 조세(潮勢)로 인해 얼마 지나지 않아서 포락되었다. 최씨가 실패한 간척지는 1960년대 다른 사람이 시도해서 성공했다.

1960년대에도 간척을 했다. 정부는 농촌소득증대를 명분으로 ‘현포수리계’를 조직하여 장수리 서쪽을 간척했다. 간척 도구는 여전히 지게와 삽, 가래뿐이었다. 간척에 동원된 주민들은 갯벌에 참나무 말뚝을 박아 거센 조세를 막아내어 간척에 성공했다.



논일하고 돌아오는 이희수(2020)

물댄 논에서 썰레질을 도와주는 손기분(2020)



농약치고 오는 김재분(2018)

장수리 논들은 대부분 천수답이었다. 특히 간척으로 조성된 원논은 기름에 취약했다. 수원의 부재지주 박동근이 소유했던 수릿골 논도 저수답도 있었고 논우물도 댔지만 그것으로 못자리와 모내기를 하고 나면 말라버렸다. 해방 후 방림천 입구에 보(淤)를 쌓았다. 하지만 봇물도 양수기가 없으면 물을 퍼낼 수 없었다. 1960년대부터는 논에 관정을 뚫다. 관정을 박으면서 농업용수 부족은 어느 정도 해결되었다. 토지가 척박하고 농업용수가 부족하다 보니 모내기는 항상 늦었다. 때론 기름이 심하면 시기를 놓쳐 메밀을 심기도 했다. 단위 면적 당 소출도 적었다.

장수리 농민들을 살린 것은 1950년대 농지개혁과 1970년대 아산만방조제 준공이다. 야산 개발, 경사지 개발도 농지 확대에 큰 도움이 됐다. 주민들은 분배농지에 야산개발로 얻은 농지를 더하면서 자영농으로 성장했다. 1974년 아산만방조제가 준공되고 경지정리를 하면서부터는 안정적인고 풍부한 농업용수를 공급받아 소출이 두세 배씩 올랐다. •

02.

분배농지 없었으면 아직도 소작농(小作農)이죠



모내기를 끝낸 수루굴 일대(2018)

땅이 넓은 지역은 수탈도 심하다. 농지개혁 전까지만 해도 평택평야의 농민들은 송곳 하나 꽃을 데 없는 소작농이었다. 소작농의 삶은 고달팠다. 소작지를 얻기도 힘들었고 땅에서 나는 소출도 적어 수확을 해도 이것저것 제하고 나면 빈털터리가 되었다.

장수리에는 지주가 거의 없었다. 마름들이 지주와 같은 위세를 부렸고 농민들은 기껏해야 논밭 몇 마지기를 소유했거나 순 소작농이 대부분이었다. 해방 전후를 살았던 홍병욱(남, 1923년생)이나 오재환(남, 1928년생)도 농지개혁 전에는 자작농이 거의 없었다고 말했다. 해방 전후 지주로는 수원의 박동근, 서울의 이범태와 정계원, 오성면의 이교원이 유명했다. 박동근은 음식굴, 수루굴, 텃논 일대의 수령논을 대부분 소유했다. 박동근의 소유지에는 논방죽도 있어 가뭄에도 모내기를 할 수 있었다. 박동근의 마름은 오덕유였다. 오덕유는 마름으로 부(富)를 축적했고 평택 시내에 상점도 운영하여 부자가 되었다. 이교원이나 이범태의 땅은 원논(간척지)에 많았다. 이들은 일제강점기 간척을 통해 농지를 확보했다. 그래서 소출도 적고 가뭄 피해도 심했다.

마름은 부재지주의 대리인이다. 장수리의 마름으로는 김경숙, 오덕유, 노영주, 노태형, 최수형이 있었다. 마름에게는 소작료 징수와 소작권 이동이라는 막강한 권한이 있었다. 밭보이거나 집안에 장정 남자가 없어 노동력이 부실하면 소작을 주지 않았다. 지주는 멀리 있고 마름은 가까이 있다 보니 주민들은 늘 마름의 눈치를 봤다. 명절에는 술 한 병에 소고기 한두 근이라도 바쳐야 소작권이 유지되었다.

소작료는 수확량의 절반이었다. 지주가 부담하는 세금이나 품삯, 수세, 각종 잡비도 때론 소작농들에게 전가되었다. 어떤 마름은 소작농들을 믿지 못해 타작도 마름 집 마당에서 시켰다. 마름과 친하거나 수완이 있으면 20마지기까지 소작을 얻었지만 일반 소작농들은 대여섯 마지기가 고작이었다. 생산력이 낮았던 시절에

는 이것을 농사지어서는 입에 풀칠하기도 힘들었다. 더구나 일제 말에는 수확량의 30%나 절반을 공출당했다. 해방되면서 소작료가 30%로 줄었지만 이번에는 수해와 가뭄이 닥쳤다. 한국전쟁 뒤에도 3년 내리 가뭄였다. 가혹한 수탈과 천연재해가 거듭되면 기댈 곳 없던 소작농들은 지주나 마을에게 장리쌀을 얻어 연명했다. 논 몇 마지기 있던 사람들은 헐값에 전답을 팔았다. 일제 말 구장 보조를 하며 전시체제기 소작농의 실상을 보고 겪었던 홍병욱은 ‘소작농은 노예(奴隸)’였다고 잘라 말했다.



모내기를 끝낸 원논 일대(2018)



안홍규의 논못자리(2017)



논못자리를 끝낸 안홍규 가족(2017)



모내기끝낸 논(2018)



벼가 싹틔 자라는 여름(2017)

농지개혁법은 1950년 6월 1일에 발효되었다. 하지만 전쟁으로 중단됐고 휴전협정이 타결될 즈음 다시 시작됐다. 정부는 지주들의 토지를 유상몰수 한 뒤 소작농들에게 5년 분할 상환 조건으로 분배했다. 농민들이 분배농지라고 부르는 ‘농지개혁’이었다. 상환금은 수확량의 20% 수준이었지만 과거 절반을 지주에게 바쳤던 시절에 비하면 헐값이었다.

장수리에서는 농지개혁을 미리 예측하고 사전 강제 매도했던 지주는 없었다. 마름들도 별다른 움직임은 보이지 않았다. 어쩌면 설마 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농지개혁으로 토지가 몰수되자 지주들은 몰락했다. 보상비를 받았지만 몇 년 동안 분할 수급 형태였고 이것이 산업자본으로 재투자되지도 않아서 이전과 같은 경제력을 유지할 수 없었다. 농지개혁으로 마름들도 동반 몰락했다. 본래 마름이라는 존재가 지주의 토지의 관리자였기 때문에 자영농지가 없는 마름들은 몰락할 수밖에 없었다. 마름이었던 부친의 그늘 밑에서 호의호식하던 후손들 가운데는 노름에 빠져 남은 재산마저 날린 사람도 있었다. 반면 소작농들은 상환을 마친 뒤 등기이전을 통해 자영농으로 성장했다. 지주나 마름에게 굶실거렸던 허리를 펴고 당당해질 수 있었다.

김진홍(남, 1938년생)은 부친이 부재지주 이교원의 땅을 소작했다. 소작지는 장구배미에 있었다. 농지개혁 때 이것을 모두 분배받았는데 논 9마지기과 밭 2마지기였다. 농사만 지어서는 가족 부양이 힘들어 아버지는 다른 마을을 돌아다니며 목수로 일했다. 그만그만했던 살림은 1975년 야산개발로 밭들이 논으로 전환되면서 크게 나아졌다. 농업기계화를 선도한 것도 경제력 향상에 도움 됐다.

공창수(남, 1938년생)는 부친 때 기산1리에서 이주했다. 이주 초기에는 원논에서 소작을 지었다. 원논은 염해(鹽害)도 잦고 소출이 적어 먹고 살기가 빠듯했다. 부친은 구릉지대에 밭을 일구고 보리농사를 지어 부족한 식량을 채웠고 맨손어업

을 해서 살림을 늘렸다.

한국전쟁 직후 혼인한 박순예(여, 1933년생)는 혼례를 올린 뒤 1년 동안 시댁에서 살다가 분가했다. 남편은 분가 직후부터 소작을 지었다. 논 1만 평 농사지었는데 지주에게 도조(賭租)를 주고 나면 남는 것이 없었다. 어느 해는 쌀 50가마를 수확했는데 도지로 36가마를 주기도 했다. 어려운 살림을 펴게 한 것은 맨손어업이었다. 아산만 갯벌이 없었다면 자식들 교육시켜 출가시키지 못했을 것이다. •

03.

아산만방조제가 장수리 농업 살렸어요

장수리에서 수루굴(수릿골)과 텃논은 가장 오래된 논농사지대다. 고재집떼와 장안말떼에서 모아진 빗물이 수루굴과 텃논으로 흘러내렸다. 수리시설이 없을 때는 계곡물이 모이는 논이 최상급이었다. 들판의 논들이 농업용수가 부족해서 모내기

평택호와 아산방조제(2021)



를 못해도 계곡의 논들은 못자리와 모내기를 할 수 있었다. 이런 논들을 고실논, 수령논이라고 했고 가뭄에도 굶지 않는다고 해서 ‘홍년 밥그릇’이라고도 했다.

수루골과 텃논의 논들은 고실논, 문전옥답이라고 불렸다. 농지가격도 원논(간척지)보다 두세 배나 비쌌다. 수루골 논은 수원의 부재지주 박동근 소유였고 오덕유가 마을을 봤다. 소작농들은 어지간한 뒷 배경이 없으면 수루골 논을 넘보지 못했



수루골 방죽 터(2017)



수루골의 가을(2020)

다. 일제강점기 수루골에 방죽을 만들었다. 수루골 방죽은 겨울에 물을 가뒀다가 모판 만들고 모내기를 할 때 주변 논에 물을 공급하고는 방죽 안에도 모를 심었다. 이것을 논방죽이라고 했다.

한국전쟁 뒤 방림천 입구에 보(淤)를 쌓았다. 보(淤)는 안새원에서 농사짓는 사람들이 직접 만들었다. 붓물은 1960년대까지만 해도 용두레로 퍼 올리다가 1970년대부터는 양수기로 뿔다. 그러다보니 양수기가 없는 집에서는 물을 대기가 힘들었다. 보(淤)는 제법 컸지만 봄 못자리를 만들면 금세 말랐다. 방축리로 넘어 가는 독골에도 방죽이 있었다. 독골방죽도 논방죽이었는데 넓은 들에 비해 규모가 작았다.

원논은 순수한 하늘바라기였다. 장수리에서는 천수답을 ‘하늘바라기’라고 했다. 수루골이나 텃논의 논들도 모내기철에는 하늘만 쳐다봤다. 가뭄에 하염없이 하늘



장수리 황금들판



아랫말 쪽다리 근처 농수로(2020)

만 바라보다 다행히 칠월칠석에 비라도 짙끔 내려주면 모내기를 했다. 이정인(여, 1939년생)은 그것을 ‘칠석물’이라고 했다. 칠석물마저 내리지 않으면 호미모를 심었다. 음력 칠월칠석은 양력으로 8월 중순이어서 모에서 벼이삭이 나왔다. 호미모 심을 시기마저 놓치면 메밀을 심었다. 생육기간이 짧고 척박하고 냉한 기운에도 잘 자라는 메밀은 구황작물로 많이 심었다. 이정인은 수확한 메밀을 맷돌에 갈아 껍질을 벗기고 녹살을 낸 뒤 물에 담갔다가 갈아서 메밀묵으로 먹거나 메밀죽을 끓이고 했다. 먹을 게 부족해서 아이들은 메밀죽이라도 많이 먹으려고 서로 다투었다.

간척지였던 안새원 바깥쪽에는 제방이 있었다. 1960년대만 해도 제방 바깥쪽은 바다였다. 제방은 조수간만의 차가 가장 심했던 백중사리에는 종종 터졌다. 김영준(남, 1933년생)은 1년에 한 번 이상은 붕괴됐다고 회고했다. 제방이 붕괴되면 주민들이 나서서 가래와 흙으로 보수했다. 하지만 다음 해에는 다시 터졌는데 이런 일



장수리 농수로(2020)



궁노 일대의 가을(2020)

이 서동대로(해안도로)가 만들어지기 전까지 계속되었다.

농업용수를 구하기 힘들었던 일부 농민들은 논우물을 팠다. 논우물에서는 건수(짭짤한 물)가 나왔지만 그것만으로도 감사했다. 식수로 사용하는 들매물이나 설정지물을 제외한 나머지 우물들도 농업용수가 되기도 했다. 1960년대 중 후반부터는 관정(管井)을 파는 사람이 늘었다. 논바닥에 깊이 관을 박아 지하수를 끌어올렸던 관정은 농업용수 부족에 시달렸던 장수리 사람들에게는 단비였지만 그것도 돈이 드는 일이라 아무나 파지는 못했다.

농가에서 모판을 만들고 벼씨를 뿌리는 일은 절기상 곡우(穀雨, 양력 4월 20일 경)에 맞췄다. 곡우(穀雨)에는 신기하게도 비가 내렸다. 벼씨는 모판에서 한 달을 키워 논에 심었다. 모내기는 절기상 망종(양력 6월 5일)에 맞췄다. 김영준(남, 1933년생)도 망종에 맞춰 모내기를 했다. 이강학(남, 1947년생)은 모내기를 할 때



궁노 일대의 가을(2020)

나 추수할 때는 품앗이를 했다고 말했다. 뜻이 맞는 사람끼리 팀을 이뤄 서로 일해주는 방식이었다. 1960년대에는 작목반이 조직되었다. 작목반은 관(官)에서 강제적으로 조직한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작목반장을 선출하고 15명~20명 내외의 사람을 모아 운영했다. 작목반장은 과거 두레조직에서 좌장과 같은 역할을 했다. 모내기와 추수의 순서를 정하고 반원들을 통솔했으며 품삯을 정산했다. 이강학은 작목반에 나가 하루 종일 모내기를 하다보면 허리가 끊어지는 것 같았다고 말했다.

가뭄도 심하고 농업용수도 부족해서 전전긍긍하며 농사짓다 보니 생산력이 매우 낮았다. 김영일(남, 1949년생)은 수루골이나 텃논의 경우에는 양식(벼 두 가마)이 나왔지만 원논에서는 한 가마 반이나 한 가마쯤 생산했다고 말했다. 장수리 농업환경이 급격히 좋아진 것은 1974년 5월의 아산만방조제 준공과 이듬부터 시작된 야산개발이다. 정부는 방조제 준공과 함께 경지정리사업과 수로건설을 했다. 경지정리사업에는 반대하는 사람이 많았다. 경지정리는 절대농지를 양산하여 정부의 세금징수에는 유리하지만 땅값이 떨어진다는 주장이었다. 그래서 집념어들은 했지만 쪽다리 좌우의 원논들은 경지정리를 하지 못했다. 1975년부터 시작된 야산개발은 숲을 감소시켰지만 농지를 크게 늘려주었다. 김영준(남, 1933년생)도 야산개발로 장수리의 경지면적이 100정보 이상 늘었다고 말했다. 방조제 건설로 농업용수도 원활하게 공급되면서 농업생산량이 비약적으로 증가했다. 근래 어지간한 논에서는 150평 한마지기에 2가마 반에서 3가마까지 배출된다. 흉년도 없고 수해나 염해도 없다. 아산만방조제가 가져다준 축복이다. •



안산원 일대 추수 풍경(2020)

04.

옛날에는 두레패가 논매기했죠



가을 피 뽑기(2017)

농기계가 발달하기 전까지만 해도 농사는 마을 공동작업이었다. 한두 사람의 힘이나 가족노동만으로는 농사를 지을 수 없었다. 농번기에는 굴러다니는 부지깽이도 아쉽다고 할 만큼 일손이 모자랐다. 논농사는 타이밍이 중요해서 짧은 기간 집중적으로 일해야 했기 때문이다. 두레는 들이 넓은 농촌지역에서 조직된 공동노동 조직이다. 모내기나 추수는 품앗이나 가족노동만으로도 할 수 있었지만 짧은 기간 집중적으로 노동을 해야 하는 김매기(논매기)는 조직적이고 집단적인 노동이 필요했다. 두레는 좌상을 중심으로 15~30명 이내로 조직되었다. 논이 모양과 크기에 따라 인원이 달라지기도 했다. 좌상 아래에는 총무 역할을 했던 공배(공배)를 두었다. 풍물패는 상쇠를 중심으로 부쇠, 기수, 북, 장구, 법구로 조직되었다.

오재환(남, 1928년생)은 장수리에는 윗말과 아랫말에 두레가 따로 있었다고 말했다. 일제강점기까지만 해도 두 마을이 서로 다른 리(里)로 구분되었기 때문이었다. 장수리 두레는 풍물패를 포함해서 각각 30명 내외였다. 좌상을 중심으로 조직됐으며 규율이 매우 엄격했지만 실질적 운영은 상쇠가 했다. 통상 모내기가 끝나고 15일쯤 뒤에 조직해서 백중(음력 7월 15일)까지 일했다.

두레는 좌상이 우두머리였지만 풍물패 상쇠의 능력에 따라 격(格)이 달랐다. 상쇠가 뛰어나야 잘한다고 소문났고 다른 두레와의 경쟁에서 형님두레가 될 수 있었다. 상쇠는 두레패도 이끌었지만 정월대보름 지신밟기를 이끌거나 상(喪)이 나면 선소리(상부소리)도 했다. 장수리 두레패의 상쇠로는 허늬봉이 유명했다. 아랫말 사람 김영준(남, 1933년생)이 다른 인물을 거론하는 것으로 봐서 허늬봉은 윗말두레 상쇠였을 것이다. 허늬봉은 쇠(쟁가리)도 잘 쳤지만 호적(날라리)의 명수였고 선소리(상부소리)도 잘했다. 허늬봉은 마을 주민이 아니었지만 워낙 기예가 뛰어나서 머슴으로 초빙받아 풍물패를 이끌었다. 두레꾼은 보통 17, 8세면 가입 자격을 줬다. 서명석은 14세에 공배(공배)로 가입했다가 17세에 정식 두레꾼이 되었다. 두레패에 정년은 없었다. 어떤 사람은 40대 중반이면 손을 뗐지만 어떤 이는 환갑을 넘

겨서도 활동했다.

두레패는 농사짓는 사람은 대부분 가입했다. 두레가 아니면 논매기를 할 수 없었다. 두레패끼리는 상하 질서가 존재했다. 상하 질서는 두레싸움과 풍물패의 기예로 판가름했다. 근동에서는 신영리 매상동 두레와 방림리 살치미 두레, 방축리 국말 두레가 형님두레로 대우받았다. 장수리도 풍물패끼리 놀 때는 다른 동네서 상쇠와 범구잡이를 사다가 놀았다.

두레는 논매기를 위한 노동조직이다. 모내기를 한 뒤 보름이 지나면 논매기가 시작됐다. 두레꾼들은 공회당이나 풍물패의 악기를 보관하는 마을사랑방에 모였다. 좌상이 그날 일할 장소를 정해주면 두레패는 ‘농자천하지대본’이라고 쓴 깃발과 풍물패를 앞세워 논으로 나갔다. 오재환은 해방 전 윗말 두레의 기수였다. 기수는 ‘깃대잡이’라고 해서 가장 힘 센 사람을 임명했다. 홍병욱(남, 1923년생)은 논매기는 세 번을 했다고 말했다. 가장 먼저 애벌매기를 하고 두벌매기와 흙치기를 했다. 들판으로 나가서 한바탕 논 뒤에는 상쇠만 남고 두레꾼들은 허리춤에 호미를 달은 뒤 논에 들어갔다. 그리고 상쇠의 선소리에 후렴구를 넣으며 풀을 뽑았다.

장수리 두레패는 1960년대 중·후반 해체되었다. 오재환은 한국전쟁 뒤 해체된 것으로 기억했지만 김영준(남, 1933년생)이나 이강학(남, 1947년생)은 1960년대 중·후반으로 기억했다. 어쩌면 윗말 두레는 한국전쟁 뒤, 아랫말은 1960년대 중반에 해체되었을 수도 있다. 두레패 해체에 결정적 영향을 끼친 것은 제초제였다. 제초제가 보급되면서 논매기의 필요성이 크게 줄자 두레패도 해산되었다.

작업반은 1960년대에 조직되었다. 품앗이로 모내기와 추수를 했던 농민들이 공동노동의 필요성을 느껴 뜻 맞는 사람들끼리 조직한 것이 작업반이다. 장수리에도 여러 개의 작업반이 운영됐다. 조직은 작업반장과 계원들로 조직됐는데 두레패와

품앗이의 중간 형태라고 할 수 있었다. 작업반장은 두레패의 좌상처럼 일의 장소와 순서를 정했다. 일을 모두 마치면 셈을 했다. 주민들은 각자 보유한 농지가 달라서 농지가 많으면 돈을 내놓았고 일을 많이 한 사람에게는 품삯을 지급했다. 안은순(여, 1950년생)은 논 3마지기 있는 사람과 5마지기 있는 사람이 서로 품앗이를 하면 나중에 5마지기를 소유한 사람이 3마지기를 소유한 사람에게 두 마지기 분량의 품삯을 지급했다고 말했다. 이강학은 1960년대 후반부터 작업(목)반에서 활동했



작목반 활동을 했던 이강학(2020)



이른 봄 벼씨고르기(2020)

다. 작업반은 15명 내외로 조직했다. 이씨가 활동할 때는 작업반이 모내기과 김매기를 함께 했다. 두레패의 역할이 작업반으로 이전된 경우다. 추수는 품앗이로 했다. 품앗이는 보통 6~7명에서 10명 내외로 조직되었다. 벼를 베서 논바닥에 깔아 놓은 뒤 이걸 묶어 논두렁에 세워 말리고, 지게와 우마차로 날라 탈곡하는 일은 가족노동과 품앗이로도 가능했다. 작업반과 품앗이는 1980년대 초 농기계가 보급되면서 사라졌다. 농기계는 과거 수십 명이 며칠 동안 일해야 할 분량을 단번에 해치웠다. •

05.

요즘엔 농기계 없이 농사 못 지어요

문명은 도구와 함께 발전했다.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 된 것도 지혜로운 두뇌와 도구의 사용 때문이다. 인간이 발전시킨 도구는 사냥과 채집 도구에서 시작되어서 농경을 위한 도구, 곡식을 조리하는 도구, 저장하는 도구, 운반하는 도구로 발전했다. 땅을 파고, 고랑과 이랑을 만들고, 곡식을 심고, 김매고, 추수하는 과정에는 서로 다른 도구들이 필요했다. 농한기 농가 부업을 위한 도구도 있었다. 여성들이 실을 뽑고 베를 짜는 직물 도구도 발달했다.

농기구의 형태는 1970년대 중·후반을 중심으로 나뉜다. 이전에는 대장간에서 제작한 간단한 철제농기구나 사람이 손으로 제작한 목기(木器)를 사용했다. 철제농기구로는 쟁기와 삽, 괭이, 호미, 가래, 보습 등 다양했다. 이들 도구는 인간의 힘이나 축력 없이는 사용할 수 없었다. 논갈이, 밭갈이를 할 때는 축력과 쟁기를 사용했지만 축력조차 이용하기 힘든 산간지대 다랑이 밭은 따비를 이용했다. 1970년대 중반 기계동력을 이용한 농기구가 나타났다. 경운기가 가장 먼저 보급됐고 1980년 전후에는 이앙기, 콤바인, 트랙터가 보급됐다. 농기계나 농산물 운송을 위해 트럭을 사용하기도 한다.

1970년대까지 장수리 사람들은 지게라든가 간단한 농기구는 나무를 깎아 만들었지만 철제농기구는 안중장에서 구입했다. 안중장에는 철물점이 있었다. 김영준

(남, 1933년생)은 안중시장 문화철물점에서 주로 구입했다고 말했다. 쟁기는 보습을 자주 갈아줘야만 했다. 호미와 팽이, 쇠스랑도 사용하다 보면 금방 닳아버렸다. 나무 씨레는 직접 만들어서 사용했다. 씨레를 만들려면 곧게 자란 물푸레나무가 좋았다. 그래야 튼튼해서 오래 사용할 수 있었다. 지계를 만들 나무는 미리 가지를 끈으로 묶어 모양이 만들어지게 기다렸다가 베어서 만들었다.

쟁기나 연자방아를 사용하려면 농우(農牛)가 필요했다. 농가에서는 안중장이나 평택장에서 송아지를 사다가 길을 들여 농우로 사용했다. 이런 농우들은 죽을 때까지 잡아먹지 않았다. 일부 농가에서는 여름에 어린 송아지를 사서 겨울에 길을 들인 뒤 봄 농사에 사용하고 일 년 뒤에 되파는 방법으로 수익을 올렸다. 이용원(남, 1944년생)은 농우를 길러 안중우시장에서 팔아 이익을 남겼다고 했다. 김진홍(남, 1938년생)은 농우를 구입하고 싶었지만 비싼데다 길들이기가 힘들어 친척인 김진옥 덕에서 빌려다 썼다. 농우를 빌릴 경우에는 며칠 일해주거나 일정한 비용을 지불했다.

1970년대 중반 농기계가 보급됐다. 처음 보급된 농기계는 경운기였다. 농기계는 안중에서도 구할 수 있었지만 선택의 폭이 넓은 평택에서 구입했다. 김진홍은 1973년 평택시내 남흥철공소에서 경운기를 구입했다. 그해에 평택전화국이 개국했기 때문에 연도를 뚜렷하게 기억한다. 김씨의 경운기는 현덕면에서 두 번째였고 장수리에서는 첫 번째였다. 당시만 해도 농기계를 구입하려면 평택농촌지도소(현 평택농업기술센터)에서 교육받아야 했다. 교육 이수증을 내밀어야 경운기를 인수할 수 있었는데, 교육을 마치고 남흥철공소로 갔더니 벽에 이상한 기계를 찍은 사진이 붙어 있었다. 호기심에 뭐냐고 물었더니 ‘이양기’라고 했다. 사장은 이양기만 있으면 손으로 모내기를 하지 않아도 하루 수만 평을 심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래서 나중에 이양기도 구입했다. 1970년대 후반에 출시된 이양기는 산파형과 조파형으로 구분됐는데 김씨는 승용할 수 있고 용도가 다양한 산파형을 구입했다. 1980년대에는 트랙터와 콤바인이 보급되었다. 트랙터로 논밭을 갈고 운반하며, 콤바인으로 벼 베기를 하면서 물꼬 보는 일을 제외한 농사짓는 전 과정을 농기계가 하게



김진홍의 농기구(2017)



안홍규의 콤바인 작업(2017)



관리기로 발두독에 비닐 씌우는 장면(2018)



이재희의 콤바인과 트랙터(2022)

되었다. 제5공화국 정부는 농업기계화정책을 펴면서 농기계 구입비를 저리로 대출 해줬다. 그때 농기계를 구입한 사람이 많다. 지금은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기계 대여도 한다.

이용원도 농업기술센터에서 교육받고 농기계를 구입했다. 현재 50마지기 농사를 짓지만 농기계는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를 모두 갖추고 있다. 이강학(남, 1947년생)은 기술교육을 받지 않아서 경운기로 논밭을 갈고 나머지 일은 농기계를 소유한 사람에게 품삯을 주고 일을 시킨다. 한기수(남, 1954년생), 손기분(여, 1954년생) 부부는 화성시 조암에서 농사지를 떼는 10만 평을 경작했지만 장수리로 이사 와서는 3만 평을 자작한다. 농기계를 가진 젊은 사람들 중에는 600마지기를 농사짓는 사람도 있지만 부부끼리 일하기에는 3만 평이 적당하다. 한기수는 대형 이앙기, 트랙터, 콤바인에 1톤, 2.5톤, 3.5톤, 4.5톤 트럭을 모두 갖추고 있다. 농기



이강학의 경운기(2020)



이용원의 트랙터(2020)



한기수, 손기분의 트랙터(2020)

계 운반이나 농산물 운반을 위해서는 다양한 크기의 트럭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다 보니 농사짓고도 농기계값 제하고 나면 남는 것이 없다. 농기계 가운데 가장 비싼 것이 콤파인이다. 2, 3년 전 신형 콤파인값이 1억 2천만 원이었는데 근래에는 1억 7천만 원까지 한다. 트랙터는 1억을 호가하고, 이앙기는 승용할 수 있는 것이 4, 5천만 원쯤 한다. 농기계는 길게는 7, 8년 사용하지만 짧게는 5, 6년 사용하면 고장난다. 거기에 트럭까지 구입하면 농사지어도 남는 것이 없다고 할만하다. 농지가 적고 농기계가 없는 영세농들은 기계농을 하는 사람들에게 논 갈고, 모내고, 벼 베는 것을 의뢰한다. 거기에 농약값, 비료값이 들어가고 도정비까지 제하면 수확량의 2/3가 소요되어 농사지어도 소득이 없다. 그래서 임차를 주고 도지 받는 사람도 많다. •

06.

고추 시설원예는 나 따라올 사람 없어요



장수리 고추밭 풍경(2020)

장수리는 벼농사와 간단한 밭농사 외에는 다른 농사를 짓지 않았다. 축산업도 한 집뿐이었고 과수재배도 한 집만 했다. 홍세기(남, 1947년생)는 특이하게도 시설원예를 한다. 처음에는 참외농사를 짓다가 요즘에는 고추를 재배한다. 한때는 농가공예 손을 대기도 했다.

홍세기(남, 1947년생)의 집은 중농(中農)에 속했다. 매일 쌀밥을 먹고도 남아 장리쌀을 놓았다. 농우(農牛)도 길렀다. 재산이 축난 것은 지금 살고 있는 집을 매입하면서부터다. 옛집은 마을 가운데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임대 영장을 받고 만취되어 골목길을 지나던 청년이 홍씨네 화장실에 빠져 죽었다. 그 일이 있은 뒤로 식구들은 밖에 나가기를 무서워하고 할머니와 어머니가 시름시름 앓았다. 보다 못한 아버지는 과거 마름을 봤던 노씨네 집을 매입해서 이사했다. 마을에서 몇 채 안 되는 기와집이었다. 방도 여러 개였고 행랑채와 광도 넓었지만 문제는 비용이었다.



장수리 고추박사 홍세기(2020)

아버지는 쌀 100가마를 지불했다고 말했다.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전답도 팔았다. 이사 후 아버지는 길게 한숨을 내쉬며 ‘가세가 심히 기울었다’고 말했다.

지병으로 중학교를 중퇴한 홍세기는 열여섯에 ‘가나안농군학교’에 입학했다. 평북 오산학교 출신의 김용기가 설립한 가나안농군학교는 민중계몽과 농촌개혁을 지향했다.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마라’, ‘공군은 하늘의 적을 막고 해군을 바다의 적을 막지만 농군은 가난을 막는다’와 같은 구호를 수없이 외쳤다. 가나안농군학교에서의 경험은 청년 홍세기에게 농촌계몽과 농업혁신에 대한 꿈을 갖게 했다. 다양한 농사와 농법에 관심 갖게 된 것도 이때부터다.

가나안농군학교를 다녀온 어느 날 ‘밭 1백 평에 보리를 심으면 보리 10가마를 수확하지만 배추를 재배하면 10배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아버지가 물려준 밭 700평에 배추를 심었다. 1970년대 축산업 붐이 일 때는 돼지사육을 했다. 사료가 변변찮아서 농가에서 구정물을 수거해서 코로넬라균을 배양한 뒤 먹였다.

비닐하우스 시설원예는 1970년대 후반부터 시작했다. 밭 700평에 풋고추를 재배했다. 풋고추는 7월 중순에서 10월까지 지속적으로 수확할 수 있어서 작은 농지로도 고소득을 올릴 수 있다고 생각했다. 기술 습득을 위해 우선 수원농촌진흥청에서 교육도 받았다. 결과는 대성공이었다. 수확량도 많았고 값도 좋았다. 동네 아주머니들을 품꾼으로 고용해서 매일매일 수확하여 통북시장의 천일상회로 납품했다. 덕분에 돈도 많이 벌었다.

고추 농사로 얻은 수입과 야산 개발한 논 4천 평을 팔아서 셋째 동생에게 서울 방학동에 가방공장을 차려줬다. 공장은 제3공화국 정부의 수출드라이브정책에 힘입어 날로 성장했다. 일손이 부족해서 형제들이 생업을 버리고 회사에 매달렸다. 하지만 악재가 닥쳤다. 회사가 성장하자 대기업이 핵심기술과 인재를 빼갔다. 1979년에는 10.26사건이 발생하면서 선적한 상품이 제때 납품되지 못했다. 회사



비닐하우스에서 밭을 일구는 오말령(2020)

는 큰 손해를 봤고 결국 폐업했다. 회사에만 매달렸던 형제들도 실업자가 됐다. 홍씨도 ‘뇌신경 발작’ 증세로 오랫동안 고생하면서 잘 되던 고추농사까지 접었다.

몇 년 동안 요양과 치료에 전념하면서 병세가 호전됐다. 그래서 1983년 금싸라기 참외재배를 시작했다. 당시 참외농사는 ‘가시권 사업’이라고 해서 소비자들의 눈에 띄게 해서 판매했던 사업이었다. 홍씨는 큰 길가의 밭에 참외를 심은 뒤 마을 노인 3명을 고용해서 하루종일 참외를 따게 했다. 밭 옆에는 원두막을 지어 놓고 참외 시식을 유도했다. 그러자 구매자들이 몰려들었다. 홍씨가 참외농사로 돈을 벌자 마을 주민들이 너도나도 뛰어들었다. 그래서 이번에는 참외장아찌 가공업을 생각해냈다. 참외는 출하 기간이 20여 일밖에 안 돼서 수익률이 지속되지 못해 이것을 보완하려는 구상이었다. 농협과 사업을 논의했지만 가능성을 낮게 보는 바람에 성공하지는 못했다.



밭두둑에 비닐을 씌우는 김영준(2020)

마을밭 가꾸기(2020)



블루베리농사를 짓는 봉하섭 부부(2017)

2011년부터 다시 고추농사를 시작했다. 밭 1,200평에 하우스시설을 하고 고추를 심었다. 고추는 일 년에 세 번 수확한다. 첫 번째 수확한 풋고추는 수원 경매시장으로 출하했다. 두 번째 수확물은 안중시장이나 통복시장 상인들에게 도매로 넘겼다. 나머지 고추는 완전히 익힌 뒤 고춧가루로 판매했다. 수익률도 매우 좋다.

홍세기는 고추박사로 통한다. 그는 누차 과학영농을 강조했다. 과거 경험에만 매달려 농사지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농지부족이나 농업환경은 과학적 영농과 새로운 유통방법으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홍씨는 지금도 시설재배의 기계화로 인건비를 줄이려고 한다. 저장 방법을 획기적으로 변화시켜 유통의 혁신도 고민한다. 진정한 농업 전문가다. •

07.

젊을 때부터 낙농업이 꿈이었어요



김영일의 돈사(2021)

평택지역은 한국낙농산업의 메카다. 박정희대통령은 1964년 12월 서독을 방문할 때 드넓게 펼쳐진 낙농단지를 보며 감탄했다. 박대통령의 ‘낙농입국’ 꿈은 1968년 뉴질랜드 방문을 통해 결실을 봤다. 1969년 1월에는 ‘평택축산업협동조합’이 설립됐고, 같은 해 6월에는 뉴질랜드와 ‘평택시험낙농장 및 운영에 관한 협정’이 체결되었다. 고덕면 여염리 일대 50여만 평에는 ‘한·뉴시범목장’이 조성되었고, 1970년 축산업협동조합에서 뉴질랜드 젖소 101마리를 도입했다. 박정희대통령의 뉴질랜드 방문에 동행했던 김복용은 1969년 정부와 50:50을 투자하여 낙농가공업체인 한국낙농가공(주)를 창업했다. 1974년에는 진위면 견산리에 한국낙농가공(주) ‘중부공장’을 준공했으며 나중에 회사명을 매일유업(주)으로 바꿨다.

평택지역이 정부의 전폭적 지원으로 축산업의 메카로 자리 잡자 각 지역에서는 축산업 붐이 일어났다. 수익률도 대단이 높아 젖소 1마리를 사육하면 논 10마지기 수익과 맞먹는다는 말이 나돌 정도였다. 국가에서는 연일 홍보하고 젊은층은 낙농으로 부자 되는 꿈을 꿔다. 축산농가도 해가 다르게 증가했다. 1975년 145호에 불과했던 평택지역 축산농가가 1979년에는 524호로 급증했으며, 1993년에는 젖소와 육우를 합쳐 2,181호 24,037두로 늘었고, 2010년에는 32,783두로 증가했다. 재밌는 사실은 1980, 90년대에는 축산농가는 많은데 사육두수는 적었고, 근래에는 농가는 줄어드는데 사육두수는 많아진다는 점이다. 이것은 1970년대까지만 해도 젖소 한두 마리, 서너 마리를 사육하는 농민들이 많았음을 의미한다.

장수리에서 돈사(豚舍)를 운영하는 김영일(남, 1949년생)은 중학생 때부터 축산업을 꿈꿨다. 서울대학교 농과대학을 졸업한 안중중학교 은사님이 미래 한국의 농업은 벼농사보다 ‘축산업’이라고 강조했다. 당시 선생님의 말씀은 가슴을 설레게 했다. 덴마크처럼 푸른 초원 위에 소떼들이 노니는 상상도 했다.

중학교를 졸업하고 잠시 도시에 나갔지만 재미도 없고 희망도 없어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다. 1974년부터는 7천여 평의 논을 경작했다. 하지만 정부가 통일벼 강



돈사를 운영하는김영일(2017)

요에 저곡가정책을 펴면서 벼농사의 수익률은 날로 떨어졌다. 이래서는 희망이 없다고 판단되어서 농사를 접고 안중으로 나가 세탁소를 차렸다. 세탁소 운영은 잘 되었다. 4년 동안 매달 월 3백만 원씩은 벌었다. 자본이 어느 정도 축적되자 어릴 때 꿈꿨던 축산업이 하고 싶어졌다.

김영일이 축산업에 뛰어든 것은 1984년이다. 김영일이 축산업을 시작하자 다른 한 집도 같이하겠다고 나섰다. 자본은 확보됐지만 김영일에게는 경험과 기술이 없었다. 그가 머뭇거릴 때 돌아가신 부친께서 적극적으로 지지해줬다. 용기를 얻은 김영일은 서울대학교 유달영 교수가 설립한 농촌지도소 산하 서울농업기술자회에서 낙농기술을 전수받았다. 교육을 마친 뒤 그가 선택한 것은 젖소나 육우가 아니라 돼지였다. 젖소에만 머물러 있던 관심이 교육을 받고나서는 육우와 돼지, 닭 사육으로까지 확장됐다.



공창수의 닭장 (2017)



공창수의 우사(2017)

함께 교육받으며 사귀 강화도 사람에게 어미 암돼지 10마리와 새끼 종돈을 구했다. 농사짓던 땅에 돈사(豚舍)도 마련했다. 그렇게 돼지사육이 시작됐다. 돼지사육은 1980년대 축산물 가격 하락과 각종 전염병 유행으로 몇 차례 위기를 맞았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위기를 잘 넘겨 지금은 사육 돼지가 1,000마리로 불었다. 돈사(豚舍) 관리는 동남아 출신 직원들을 고용해서 해결한다.

돼지는 110~120kg 정도일 때 가장 맛이 좋다. 새끼 돼지를 이 정도로 키우려면 5~6개월이 걸린다. 출하는 도축업자들과 계약하면 실어간다. 과거에는 고기값이 들쭉날쭉해서 고생했다면 지금은 사료값과 전염병이 가장 큰 적이다. 침출수와 냄새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다. 다행히 몇 십 년 동안 마을 사람들이 이해를 해줘서 큰 문제없이 운영하고 있다.

2019년에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엄청나게 긴장했다. 전염병이 급속하게 확산되면 관련 지역의 돼지들은 살처분해서 묻어버린다. 예전에는 피해농가에 100% 보상해줬는데 근래에는 70~80% 선에서 차등 보상한다. 2020년부터 시작된 코로나19의 유행도 걱정거리였다. 다행히 돼지고기 수요가 늘어나 오히려 돼지 값이 좋아졌다. 앞으로 황해경제자유특구 현덕지구 공사가 시작되면 돈사(豚舍)도 옮기거나 처분해야 한다. 젊은 시절의 꿈이 담긴 돈사(豚舍)지만 이제 방향을 정할 때가 됐다. •

08.

요즘엔 안중장 나갈 일도 없어요

장(場)은 교역과 소통의 공간이었다. 장시는 삼국시대에도 존재했지만 지방에 장시가 발달한 것은 조선 전기부터다. 조선 후기 농업생산력이 증대되고 상품작물재배가 확대되면서 장시는 더욱 많아졌다. 장시가 발달하면서 농민들은 자급자족이 아닌 이윤을 얻기 위해 농사를 지었다. 상품작물 중에는 쌀이 으뜸이었다. 양난(兩難) 뒤에는 고추나 담배 같은 작물이 들어왔고 개성 인근에서는 인삼도 재배되었다.

장수리 근처에서는 안중장이 가장 가깝고 컸다. 해방 전후에는 발안장, 오산장, 평택장, 둔포장도 컸고 인근에는 오성면의 숙성리장, 청북읍의 너더리장, 신포장이 있었지만 너무 멀거나 규모가 작아 특별한 볼일이 아니면 다녀오지 않았다. 장수리에서 안중장까지는 20리 남짓이다. 주민들은 버스가 다니지 않을 때도, 하루에 서너 대씩 다닐 때도 걸어 다녔다. 안중장으로 가려면 고재집떼를 지나 도대1리 샘골에서 한 번 쉬고, 푸세미다리를 건너 화양리 돼지벌에서 다시 한번 쉬었다. 장(場)을 보러 가는 일은 일제강점기만 해도 남자들의 몫이었다. 하지만 해방 후부터는 남자, 여자를 가리지 않고 다녔다. 갓 결혼한 새댁들도 일정 기간이 지날 때까지는 장(場) 나들이를 시키지 않았다.

1960, 70년대 버스가 다니기 시작하면서부터 평택장이나 천안장을 다녀오는 사

람들이 생겼다. 이상분(여, 1941년생)은 남편이 20t짜리 어선으로 낙지, 대하, 갯지렁이를 잡으면 마을까지 들어오는 오후 4시 40분 버스를 타고 평택장에 내다 팔았다. 1970년대만 해도 국도가 아니면 대부분 비포장도로여서 안중에서 평택까지 가려면 시간이 많이 걸렸다. 그래서 서둘러 평택장 도매가게에 생선을 넘기고 돌아와도 장수리로 들어오는 9시 40분 막차를 놓치기 일쑤였다. 막차를 놓치면 택시를 타야 했는데 택시비가 3,500원이나 됐다. 3,500원이면 안중으로 통학하는 아이들 일주일 치 버스비여서 쉽게 용기를 내지 못하고 걸어왔다. 박순예(여, 1935년생)도 안중까지 왕복 버스비 500원을 아끼느라 아주 특별하지 않으면 걸어 다녔다고 말했다.

1970년대 이전에는 벼농사뿐 아니라 밭농사도 많이 했다. 밭에는 보리나 밀, 콩, 고추, 깨, 채소를 심었다. 배를 부리는 사람들은 강다리, 뱀어, 우어, 준치, 송어를 잡았고, 맨손어업을 하는 사람들은 대합과 바지락, 맛을 잡았다. 어패류는 대부분 도매로 넘겼지만 일부는 시장에 내다 팔기도 했다.

해방 전에는 주로 농산물을 내다 팔았다. 오재환(남, 1928년생)도 해방 전에는 어패류를 잡지 않아서 장에 갈 때면 농산물을 이고 지고 갔다고 했다. 그러다가 1960년대 어패류를 잡으면서 현금이 생기자 농산물 판매가 줄었다. 해방 전후에는 가마니도 많이 쳤다. 가마니는 농한기 농가(農家)의 가장 큰 부업이었다. 안중 장날은 1일과 6일이었다. 장날이면 장수리 사람들은 달구지나 손수레에 가마니를 싣고 장터로 갔다. 그마저도 없으면 가마니 10장 12장을 지게에 지거나 머리에 이고 걸어갔다. 안중고등학교 후문 앞에는 가마니장이 열렸다. 그곳까지 꼬박 20리길을 걸어가면 고개가 꺾였다.

박순예(여, 1933년생)는 안중장을 다녔다. 다른 장들은 멀어서 다닐 엄두를 내지 못했다. 간혹 젊은 사람들은 평택장을 다녀오기도 했다. 안중장은 뭐든 비쌌다. 박씨도 1960년대에는 아이를 등에 업은 뒤 쌀 두 말을 머리에 이고 안중장까지 걸어



안중장을 보러 걸어다녔던 박순예(2017)



오랜 노동으로 굵어진 박순예의 손(2017)



해산물을 팔러 장에 다녔던 송순자(2017)

갔다고 했다. 싸전에서 쌀 두 말을 팔은 돈은 용돈으로 조금 남겨두고 생필품과 아이들 학용품을 샀다. 때론 우시장이나 가축시장에서 돼지나 토끼, 닭을 거래하기도 했다.

안은순(여, 1950년생)도 안중장에 다녔다. 안씨가 시장에 다니기 시작한 것은 시 어른들이 돌아가시고 나서다. 안씨는 현물보다는 현금을 갖고 장에 갔다. 걸어간

적은 많지 않고 대부분 마을 안까지 들어오는 시내버스를 탔다. 안중장에 가서는 옷이나 비누 같은 생필품을 구입했다. 소소한 것들은 마을 구판장에서 구입했다. 마을에 이동조합에서 운영했던 구판장이 생기면서 생필품 구입은 한결 편해졌다. 밭농사에 필요한 농기구들도 어지간한 것은 구판장에서 구입했다.

마을 안까지 버스가 들어오면서 장(場)을 보러 나가기가 훨씬 수월해졌다. 지금은 버스도 자주 다니고 자가용을 갖춘 집들도 많아서 안중 나가기가 훨씬 편해졌다. 교통이 편리해서 마음만 먹으면 평택장이나 당진에도 다녀올 수 있다. 안중에는 홈플러스같은 대형아울렛이 생겨 언제 가도 좋은 물건을 구할 수 있다. 세상 참 좋아졌지만 요즘에는 아이들도 없고 식구도 적어서 딱히 나갈 일이 많지 않다. •

09.

아산만 생선은 영복호가 다 잡았죠



부친과 함께 어업을 했던 안홍규(2015)

바다와 갯벌은 가난했던 사람들에게 생명줄과도 같았다. 조선 후기 실학자 이증환도 ‘택리지’에서 ‘평택지역은 경작지가 적지만 바다가 가까워 흉년을 나기에 좋다’라고 평했다. 바닷가는 가난한 농민들이 흉년을 나기 위해 몰려드는 곳이었다. 흉년에 굶주린 사람들은 산에서 나무와 나물을 구하고 바다에서 어패류를 채집해 연명했다. 때론 바닷물이 드나들지 않는 갯벌을 골라 원뚝을 쏘고 논밭을 일구기도 했다.

일제강점기까지만 해도 장수리에서는 어업을 하지 않았다. 김영준(남, 1933년생)도 어업 하는 것을 본적이 없다고 말했다. 장수리 일대에서 어업이 발달하지 않았던 것은 조수간만의 차와 거친 물살 때문이었다. 조선 후기에 편찬된 읍지(邑誌), 지리지(地理志)에도 ‘아산만은 조세(潮勢)가 사납다’는 표현이 자주 나온다. 거친 조세(潮勢)로 선박의 접안이 어렵고 갯벌이 깊어 맨손어업도 힘들었다. 그러면 오재환(남, 1928년생)의 기억을 들어보자.

“옛날 우리 동네 앞으로는 배를 탈만한 해변이 없었어요. 물살이 무척 썰다고. 갯고랑에만 배를 탈 수 있었는데 고기잡이는 힘들었지. 해방 전에는 배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없었어. 물골이 장수리 앞으로 깊게 패었거든. 거기가 도계(道界, 충청남도)였어. 장수리 앞으로 난 물골이 저기 국화도(아산만 입구)까지 연결됐었다고.”

어업과 맨손어업이 시작된 것은 1950년대 중후반부터다. 안홍규(남, 1953년생)는 신왕리가 고향이다. 신왕리에서 어업을 했던 부친 안병석(남, 1926년생)은 덕목리를 거쳐 1955년 장수리로 이주했다. 조그만 어선도 구입했다. 1.3t 규모의 소형 어선이었다. 어선의 이름은 ‘영복호’였다. 영복호는 황포돛배였다. 이물에 작은 돛, 중앙에 큰 돛을 달았고 가까운 거리나 바람이 불지 않을 때는 노를 저었다. 포구는 방림천 입구에 있었다. 방림천 입구는 아산만의 조류 영향을 적게 받아서 접안하기 쉬웠다. 1970년대 중반에는 동력선이 등장했다. 어선전용 기계가 보급되기 전이어

서 무동력선에 선외기, 양수기, 경운기 엔진을 떼어 장착했다. 동력선은 무풍지대에도 출항할 수 있었고 그물을 놓을 때나 거둘 때 일손을 덜었다.

부친 안병석(남, 1926년생)은 안성천 하류와 아산만 일대에서 송어, 대하, 준치, 웅어를 잡았다. 시기적으로는 3월에서 7월까지의 송어와 대하를 잡다가 한여름에 잠시 쉬었고 가을에는 다시 포승읍 홍원리까지 가서 송어와 뱀장어를 잡았다. 그물은 ‘삼마이’라고도 했던 삼중망을 사용했다. 1970년경까지만 해도 그물은 인천의 선구상회에서 그물과 부속도구를 사다가 진흥으로 그물추를 만들어 집에서 직접 만들었다. 몇 년 뒤에는 선구상회에서 직접 사람을 고용해 완성된 어구를 판매했다.

아산만 어장은 어로 활동의 보고(寶庫)였다. 1960년대 말까지만 해도 한 번 출어하면 배가 가리얏을 만큼 많이 잡았다. ‘물 반 고기 반’이라는 말이 실감났다. 고기는 주체할 수 없을 만큼 잡았지만 냉동, 냉장시설은 물론이고 판로가 마땅찮았다. 1950년대 말, 1960년대 초에는 잡아온 생선을 지게나 다라(함지박)에 이고 마을을 돌아다니며 외상을 주거나 곡식과 바꿔 먹었다.

안홍규(남, 1953년생)는 16, 17세부터 아버지와 고기잡이를 다녔다. 그물도 직접 만들었다. 병역을 마치고도 잠시 어업을 했다. 그가 어업을 할 때는 잡아온 생선을 가마니에 담은 뒤 트럭에 실어 수원어판장에서 경매로 넘겼다. 잡어는 함지박을 이고 온 생선장수들에게 넘겼다. 5월 성어기에는 장수리 뱃터에 천막을 치고 생선회와 막걸리를 파는 사람도 생겼다. 유통망이 확대되면서 수익도 증가했다. 매일 현금을 만질 수 있는 것도 매력적이었다.

1980년대에는 아랫말에서 두세 집이 어업에 뛰어들었다. 전기뱀장어 새끼(시라시)가 고가에 일본으로 수출되면서 이웃 마을 신영리에서도 어업을 시작한 사람이



생선을 손질하는 공창수(2017)

많았다. 맨손어업을 위해 선박을 구입한 사람들도 간간이 어업을 했다. 장수리의 어업은 2000년경 중단됐다. 평택항 확장공사가 장수리 일대까지 확대되면서 어민들도 보상을 받고 어업을 중단했다. ●

장수리

04

사라지기 전
그리움을 남기다

04

제 4 장 교육과 문화

- 01. 근대교육에 기여한 사립 동광학원
- 02. 장리쌀 빌려다 등록금 냈어요
- 03. 효자마을의 상징 '김정한 효자비'
- 04. 우리 할아버지가 천도교인이었어요
- 05. 두매교회가 장수전원교회가 되다
- 06. 당제(堂祭)를 잘 지내야 마을이 평안하지
- 07. 추수 끝나면 굿하느라 시끄러웠어요
- 08. 장수리의 대동잔치 '한가위축제'

01.

근대교육에 기여한
사립 동광학원

근대교육은 민중들의 꿈이고 희망이었다. 신분의 굴레 속에 갇혀 꿈조차 박탈당했던 민중들은 갑오개혁으로 신분제가 폐지되면서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했다. 근대교육은 민중들이 새로운 세계로 나갈 수 있는 출구였다. 하지만 1910년대까지만 해도 장수리 인근에는 근대학교가 없었다. 천도교에 입교해서 근대교육을 접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것은 극소수에게 부여된 기회였다.

1922년 안중장 근처에 안중공립보통학교가 설립됐다. 안중까지는 불과 8km여서 경제적으로 부유한 아이들은 근대교육을 받을 수 있었지만 비싼 학비와 입학정원 부족으로 가난한 아이들은 입학할 엄두를 못 냈다. 홍병욱(남, 1922년생)은 자신의 직전 선배들 중에는 안중공립보통학교에 다닌 사람이 있었다고 말했다. 홍병욱의 직전 선배라면 1910년대에 태어난 사람들을 말한다. 김정수(남, 1926년생)는 4년제 현덕공립보통학교를 졸업하고 6년제 안중공립보통학교에 편입해서 졸업했다. 학생들은 고재집떼, 도대리 푸세미다리, 인광리 돼지벌을 지나 안중까지 걸어서 통학했다. 거리는 멀었지만 야학이나 강습소가 아니라 공립보통학교에 다닌다는 자부심도 컸다.

1934년 현덕면 인광리에 현덕공립보통학교가 설립됐다. 장수리에서 인광리가

지는 4km 남짓. 1930년대에는 장수리에도 근대교육 요구가 점차 높아지던 시기였다. 현덕초등학교가 설립되면서 장수리에서는 이전보다 훨씬 많은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했다. 1928년생인 오재환도, 1933년생인 김영준도 현덕공립보통학교에 다녔다. 오재환은 학교에 입학하자 어머니가 무명천을 덧대 교복을 만들어줬다. 김영준이 입학할 때는 입학시험을 치렀다. 전시체제인데다 입학희망자는 많은데 입학정원이 너무 적다 보니 시험을 통해 걸러내지 않으면 안 되었다. 입학시험은 사물의 이름을 일본어로 물어보거나 자신의 이름을 일본어로 쓰는 것처럼 간단했지만 종종 탈락자도 발생했다. 창씨개명(創氏改名)도 걸림돌이었다. 초등학교에 입학하려면 가족 모두가 창씨개명을 해야만 했다. 개명(改名)하지 않은 사람은 입학하면서 선생님이 이름을 바꿔주기도 했다. 일제 말에는 일본어로만 교육받았다. 학교생활이나 동네에서 놀 때도 조선말을 사용하다 적발되면 경고를 받거나 매를 맞았다.

현덕초등학교 설립으로 근대교육의 문은 더욱 넓어졌지만 장수리에는 가난과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근대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아



현덕공립보통학교에 다녔던 김영준(2020)

이들이 많았다. 여자아이들의 경우는 더욱 심각했다. 전통적 사고방식에 젖어 있던 부모들은 여자교육에 매우 부정적이었다. 근대교육에서 소외된 아이들에게 야학과 강습소는 축복이었다. 비록 교실은 비좁고 운동장을 갖추지는 못했어도, 또 교사의 수가 적고 자질이 부족했어도, 배울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했다.

장수리 최초의 근대교육기관은 동광학원이다. 동광학원은 1930년대 후반 이춘희(오재환은 이규태로 기억함)가 설립했다. 홍병욱(남, 1922년생)은 동광학원에서 근대교육을 받았다. 동광학원은 처음에는 야학으로 시작했지만 이춘희(이규태)가 학교 부지를 희사하면서 주간 교육기관으로 성장했다. 이춘희(이규태)는 안중공립보통학교 1회 졸업생으로 서울로 유학을 다녀온 인재였다. 학교는 현재 마을 회관 터에 있었다. 건물 규모는 전체 15칸으로 교실 2개, 교무실 한 개였고 학생 수는 70여 명이었다. 학비는 한 달에 20원을 냈다. 교사는 이춘희(이규태), 우상호, 오재천이 가르쳤다. 이춘희(이규태)는 수신(修身, 도덕)을 가르쳤고, 우상호가 습자(習字),



장수리 동광학원에서 공부한 홍병욱(2006)



가사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서당에서 공부한 이강학(2020)

오재천이 국어를 가르쳤다. 통상 강습소는 일제의 초등교육체제에 따라 교육했지만 동광학원은 일반학교의 체제와 내용을 갖추지 못했다. 교육 기간이나 나이 제한도 없이 누구든 배우고 싶으면 입학했고 완전히 익힐 때까지 배웠다. 그러다 보니 더벅머리 총각부터 어린아이들까지 학생들의 나이 차가 많았다. 일제 말 장수리의 가난한 아이들은 대부분 동광학원을 다녔다. 동광학원을 통해 근대사회를 알게 됐고 세상을 넓게 볼 수 있었다. 동광학원은 해방 직후까지 있었다. 그러다가 해방 이듬해 초등교육 의무교육제가 실시되면서 폐교됐다.

해방되던 해 조기회를 조직하고 농촌계몽에 앞장 섰던 오재환(남, 1928년생)은 1948년 장수리아학을 열었다. 당시 장수리 주민들 가운데는 문맹자가 많았고 근대교육을 받지 못한 여성들도 많았다. 야학은 부녀반, 소년반, 장년반으로 나뉘어 교육했으며 교사는 오재환을 비롯한 농촌지식인들이 담당했다. 교육여건은 나빴지만

교육열만큼은 뜨거웠던 장수리야학은 한국전쟁 직전 문을 닫았다.

1958년 현덕면 기산리에 ‘가사초등학교’가 개교했다. 현덕초등학교로 등교하기 위해 고재집떼와 푸세미다리를 넘었던 아이들은 불과 2km 거리의 가사초등학교를 다니게 되었다. 1947년생 홍세기, 1949년생 김영일, 1953년생 안홍규도 모두 가사초등학교 출신이다. •



가사국민학교 제3회 졸업앨범

02.

장리쌀 빌려서 등록금 냈어요

장수리 노인들의 교육수준은 높지 않다. 경제적 여건도 열악했지만 무엇보다 학교와의 거리가 너무 멀었다. 글방(서당)에서 한자를 깨치거나 야학에서 글자를 익힌 사람도 많다. 1930년대 장수리에는 글방(서당)이 있었다. 글방 선생님(훈장)은 안성 사람이었다. 들리는 소문에는 안성 3.1운동에 가담했다가 곤욕을 치른 뒤 처가 동네인 현덕면 방축리로 이사 왔다고 했다. 학교에 입학해서는 저학년 때 조선어도 조금 공부하다가 나중에는 일본어만 배웠다. 홍세기(남, 1947년생)와 이강학(남, 1947년생)은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도대1리 샘골 글방(서당)에 다녔다. 당시에는 초등학교 입학 전이나 졸업 후 글방에 다니는 사람이 많았다. 글방에서는 천자문과 통감을 떼고 사서(四書)를 읽다 중단했다.

초등교육기관은 안중공립보통학교(1922년 개교), 현덕공립보통학교(1936년 개교), 그리고 1958년 개교한 가사초등학교가 있었다. 1930년대 후반에는 마을에 사립 동광학원이라는 강습소가 있었고 1948년 오재환이 설립한 장수리야학도 있었다.

해방 전후에는 서평택 일대에 중등교육기관이 없었다. 그래서 중·고등학교에 진학하려면 수원이나 서울로 유학해야 했다. 1948년 대한성공회 안중교회에서 사립 안중고등공민학교를 설립했다. 이것이 1953년 안중중학교로 발전했고 나중에는



교육열이 남달랐던 신영식(2020)

고등학교 과정도 개설했다. 1955년에는 안풍중학교가 개교했다. 안풍중학교는 뒤에 안일여중·고(현 안일중학교, 경기물류고)로 발전했다.

오재환(남, 1928년생)은 1935년 현덕공립보통학교에 입학했다. 현덕공립보통학교는 1938년 현덕소학교로 명칭을 바꿨고 1941년에는 '현덕국민학교'가 되었다.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에는 마을 서당에서 1, 2년쯤 한문을 배웠다. 당시에는 한문을 알아야 행세할 수 있었다. 호적 서류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행정서류는 국한문혼용이었고 일본어에도 한자가 섞여 있었다. 글방에서는 천자문과 동몽선습까지 배웠다. 현덕초등학교까지는 십리(4km)였지만 빨리 걸으면 40분 만에 당도할 수 있었다. 아이들은 동네에서 함께 모여 걸어갔다. 근처에 중등학교가 없던 시절이라 초등학교를 졸업하면 대부분 객지로 나가거나 농사를 지었다.

김영준(남, 1933년생)은 현덕국민학교에 다녔다. 창씨개명하고 입학시험을 치러

서 합격했다. 일제 말에는 일본어만 배웠다. 국어시간이 일본어 시간이었다. 졸업 뒤 서울로 유학해서 중앙중학교에 입학했다. 하지만 재학 중에 한국전쟁이 발발했고 그 와중에 중학교가 중·고등학교로 분리되면서 학업이 중단됐다. 현재 그의 학력은 중앙중학교 졸업이다.

김진홍(남, 1939년생)은 현덕국민학교를 졸업했다. 졸업 후에는 현덕초등학교 뒤쪽에 있었던 현덕고등공민학교에 진학했다. 당시 현덕고등공민학교는 신설된 비인가 중학교여서 교실도 흙벽돌이었고 교육여건이 매우 열악했다. 등교해도 공부보다는 일을 많이 해서 며칠 다니다가 그만두고 1955년 설립된 안풍중학교 1회로 입학했다. 안풍중학교도 교사(校舍)가 마련되지 않아서 인근 야산에 천막을 치고 공부했다. 안풍중학교가 안일중학교로 교명이 바뀔 때까지 다녔는데 사정이 생겨 자퇴했다.



현덕국민학교를 졸업하고 안풍중학교를 중퇴한 김진홍(2017)

홍세기(남, 1947년생)는 9살에 도라모라는 질병에 걸려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못했다. 중학교 입학시험에도 합격했지만 병약해서 진학을 포기했다. 중학교 과정은 강의록을 구해서 공부했다. 그러다가 부친의 권유로 기산1리 샘골의 공재선이 운

영하는 한문서당에 다녔다. 홍씨는 4년 동안 천자문과 동몽선습, 통감을 배우고 논어와 맹자까지 공부했다.

이강학(남, 1947년생)은 한국전쟁 후 낙향해서 가사초등학교에 다녔다. 학교를 졸업한 뒤에는 기산1리 샘골의 한문서당에서 3년 간 공부했다. 이씨도 맹자까지 공부했다.

김영일(남, 1949년생)은 가사초등학교를 졸업하고 1962년 안중중학교에 진학했다. 그가 입학할 때는 중학교 진학희망자들이 증가할 때다. 입학시험도 치렀다. 개중에는 입학시험에 떨어지는 사람도 있어 초등학교 고학년 때부터 열심히



김영일 안중중학교 졸업앨범

공부했다.

1970년대 중·후반 경제력이 향상되면서 중·고등학교 진학이 일반화됐다. 일부는 대학진학도 했다. 전기 도입 후 텔레비전이 보급되면서 세상 변화에 자극받은 영향이 컸다.



소작짓고 맨손어업을 해서 아들 셋을 대학에 보낸 김순예(2017)

박순예(여, 1933년생)는 소작짓고 맨손어업을 하고 송아지를 길러서 아들 3명을 모두 대학에 진학시키고 딸 둘은 고등학교까지 가르쳤다. 아이들이 학교 다닐 때는 버스비가 없어 옆집으로 꾸러 다니고 장리쌀을 얻어 대학등록금을 냈다. 하지만 그때 정말 선택을 잘했다고 생각한다. 아이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시공무원, 중견기업의 본부장, 금융기관에서 일한다. 외손녀 둘은 미국에서 의사와 교사가 되었다.

신영식(여, 1939년생)은 아들 셋을 평택기계공고에 진학시켰다. 가난한 형편에 대학진학을 못 시킬 거면 기술을 배우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다. 아이들이 학교 다닐 때는 정말 고생했다. 등록금뿐 아니라 버스비가 없어 찢찢맸다. 그래도 아이들은 깨끗하게 자랐다. 지금은 각자의 자리에서 잘살고 있다. •

03.

효자마을의 상징 ‘김정한 효자비’



김정한 효자비각과 경주 김씨 사당(2017)

장수리에는 몇 가지 이야기가 전해온다. ‘두매리’에 대한 이야기다. 오랫동안 장수리 사람들은 ‘두매’라는 이름에 시달렸다. 주변 마을에서 두매를 ‘두메’로 오역해서 ‘두메산골 뉘들’이라고 폄훼했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교통도 불편하고 근대시설의 혜택도 못 받는 처지에 ‘두메산골’이라는 이미지는 자존감에도 상처를 냈다. 그 시절에 전해오는 이야기다. ‘옛날 어떤 처녀가 시집을 때 고재집떼 산마루에 올라섰는데 마을은 보이지 않고 푸른 바다만 넘실거려 울면서 돌아갔다’는 이야기가 그것이다.

홍병욱(남, 1922년생)은 ‘고재집떼’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줬다. 홍씨는 고재집떼와 그 옆의 장안말떼는 조선시대 국영 마장(馬場) 터라고 주장했다. 오장환도 그 말에 동의했다. 나이든 사람들은 모두 알고 있다고 했다. 홍병욱은 조선시대 외적의 침입으로 난리가 났을 때는 내시와 궁녀들이 피난 내려오기도 했다고 말했다. ‘내



고재집떼 전설을 전해준 홍병욱과 마을 노인들(2006)

시와 궁녀요?’라는 반문에, ‘외적의 침입으로 궁궐이 불타고 임금도 경황 중에 피난을 떠나버리자 내시와 궁녀들이 살길을 찾아 장수리로 도망쳐 내려왔다는 것이다. 고재집떼와 장안말떼 부근에는 토성(土城)이 있다. 토성은 마장(馬場)의 말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쌓은 목장토성이다. ‘마장(馬場)’은 조선 후기 허목이 그린 ‘목장지도’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읍지(邑誌)나 지리지(地理志), 19세기 지도에서는 흔적을 찾을 수 있다.

김정한 효자비는 일제강점기 경주 김씨 가문에서 세웠다. 유교사회에서 ‘충효(忠孝)’는 가장 중요시되던 덕목이었다. 제3공화국 정부에서도 통치목적으로 충효(忠孝)를 강조했다. 그래서 충신(忠臣), 효자(孝子), 열녀(烈女)를 구분하여 정려(旌閭)를 내리고 상을 줬으며, 유력한 성씨나 가문에서는 그것을 내세워 가문의 위세를 드러내곤 했다. 일부 가문에서는 ‘충효열(忠孝烈)’ 정려를 모두 받으면 ‘삼강정려(三綱旌閭)’를 세워 널리 알렸다.

“김정한(1864~1907)은 근대 전후의 인물이다. 본관이 경주로 두매마을에서 태어났다. 어려서부터 효성(孝誠)이 지극했고 성장한 뒤에도 그 마음이 변하지 않았다. 어느 겨울 아버지가 중병에 걸렸다. 입맛도 잃어 목구멍으로 음식도 넘기지 못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병간호를 하던 중 갑자기 아버지가 생선이 먹고 싶다고 했다. 때는 엄동설한, 바다를 가까이 둔 장수리라고 할지라도 생선이 있을 리 만무했다. 불가능한 상황이었지만 김정한은 효성 하나로 얼음을 깨고 그물을 던졌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커다란 송어가 잡혔다. 너무 감사하고 기뻐 얼른 집으로 돌아와 송어를 고아서 아버지께 드렸다. 아버지는 김정한이 만든 송어탕 한 그릇을 맛있게 드시고는 씻은 듯 병이 나았다. 환갑을 맞았을 때는 생명이 위독했다. 목숨이 위태로워지자 김정한은 손가락을 잘라 피를 입에 넣어드려 하루를 더 살게 했다. 이 같은 효성에도 아버지는 끝내 세상을 떠났다. 김정한은 정성껏 장례를 치른 뒤 산소 옆에 여막을 짓고 3년 시묘를 살았다. 시묘살이를 하면서는 미음만 먹고 머리도 빗지



왼쪽 경주 김씨 사당과 오른쪽 장수리 마을제당(2017)

않은 채 정성을 다했다. 한 번은 한겨울 물이 얼어버려 기갈에 허덕일 때 무덤 앞을 뚫더니 물이 쿵쿵 쏟아졌다. 그 후로 사람들은 그 물을 ‘효자수’라 하고 뒷산을 ‘시묘산’이라고 불렀다. 어떤 날은 호랑이가 나타나 상복을 찢으며 목숨을 위협했지만 시묘를 멈추지 않았다. 그러자 호랑이가 감동해서 먹을 것을 물어오고 겨울에는 옆에서 잠을 자며 춥지 않도록 돌봐주었다. 시묘를 살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지나가는 사람이 ‘임종 시에는 무명지를 잘라 피를 입으로 넣어드려야 효험이 있다’는



2003년 장수리 노인들의 서울 경로여행-청와대 방문기념사진

말을 했다. 김정한은 통곡하며 ‘부모가 돌아가신 뒤 무명지는 뵈다 무엇하랴’며 무명지를 잘라 피로 환을 만들어 가족들에게 나눠줬다. 김정한이 죽은 뒤 효성이 나라에 알려져 1908년(순종2)에 효자 정려(旌閭)가 내려지고 효자비를 세웠다.”

효자 정려가 내려지자 1937년 지역유지들은 비각(碑閣)을 세워 기렸다. 이것이 남아 못쓰게 되자 1975년 다시 세웠고, 해방 직후 청소년 단체였던 조기회는 효자비 주변에 무궁화를 심었다. 지금도 김정한 효자비는 ‘효자마을 장수리’의 상징이다. •

04.

우리 할아버지가 천도교인였어요

천도교는 1860년 교조 최제우가 창시한 동학(東學)에서 시작되었다. 2대 교주 최시형의 노력으로 교세가 크게 확장됐으며, 1894년에는 동학혁명을 전개했다. 1905년 3대 교주 손병희는 동학을 천도교로 바꿨다. 1919년에는 3.1운동의 중심 역할을 했으며, 일제강점기에는 조직과 인물, 자금력을 바탕으로 교육·문화운동에 선도적 역할을 했다.

평택지역은 1880년대부터 천도교 신앙을 받아들였다. 그러다가 정부의 탄압이 거세지면서 명맥을 유지하기 힘들 정도가 됐는데, 안성의 김한식(金漢式), 현덕면 권관리의 이민도가 노력하여 교세가 회복되었다. 1905년경에는 진위군 교구(당시 평택지역은 진위군이었음)가 설립됐으며, 수원교구 관할이었던 현덕면에는 전교실이 설립됐다. 당시 현덕면 전교실의 중심인물은 이민도(李敏道)였다. 이민도는 현덕면 기산리, 권관리 일대 3.1운동을 주도했던 인물이다. 그 외에 손수한(孫壽漢), 오기영(吳起泳), 이유상(李儒像), 박이엽(朴利燁), 장용준(張容俊), 최정래(崔貞來), 임경한(林景漢), 최이래(崔利來), 김화경(金化景), 이병헌(李炳憲), 최종환(崔宗煥), 이인수(李麟秀)가 전교사와 종리사로 활동했다. 1910년대에는 교구별 교리강습소를 설치했다. 교리강습소는 3년제로 천도교 교리와 역사, 지리, 과학 등 근대교육을 실시했다. 이것은 개화운동에 앞장섰던 손병희의 뜻에 따른 것으로 현덕면에서



권관리에 있는 평택3.1운동기념비(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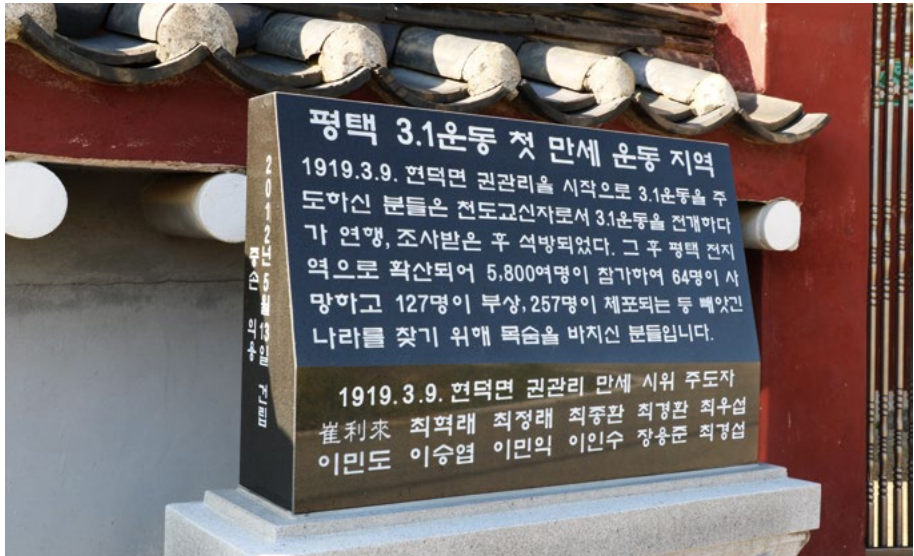
도 수원교구에서 교리강습을 받은 청년들이 많았다.

1919년 3.1운동 때에도 현덕면 전교실은 적극 참여했다. 3월 9일에는 평택지역 최초로 옥녀봉과 계두봉에서 만세를 불렀다. 이때 만세운동을 주도한 사람들은 현덕면 전교실의 이민도 등이었다. 3월 21일에는 이승엽, 최이래, 최혁래, 장용준, 이인수, 최종환, 이민익, 최정래, 최우섭이 예비검속을 당해 진위경찰서에서 심한 고문을 당했다. 3.1운동 이후에도 천도교인들은 감시와 탄압을 받았다. 그런데도 현덕면 지역 천도교인들은 신앙을 굳게 지켰고 집회와 강습을 통해 결속을 다졌다.

현덕면 천도교 지도자 이민도의 아들은 해방 후 천도교 부교령을 지낸 이병헌이다. 이병헌은 3.1운동 때 손병희 선생의 비서로 만세운동에 참여했고, 제2공화국 시기에 평택지역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됐던 인물이다. 현덕면 권관리에서 이민도와 함께 활동했던 이인수의 신앙은 아들 이병석과 손자 이용기(1928년생), 이권기

(1930년생)에게 전승됐다. 분당에 거주하는 이용기와 권관리의 이권기 가족들은 지금도 서울의 천도교 집회에 참석하며 신앙생활에 열심이다. 최이래의 후손 최윤희와 후손들의 신앙도 독실하다. 한국전쟁 때 피난 내려온 이상현, 이상록 형제, 권관리의 이덕우, 황규백도 신앙을 지켰다. 해방 후 현덕면의 신앙모임은 이권기의 사랑방이나 교인들 집을 돌아가며 가졌다. 이권기의 부인 김재옥(여, 1935년생)도 지금까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매일 저녁 9시에 청수를 올리고 기도하며 종종 남편 이권기와 함께 서울의 천도교중앙본부가 있는 수운회관에 다녀온다고 말했다.

장수리는 일제강점기까지만 해도 천도교(동학) 교인들이 많았다. 장수리 천도교의 핵심 인물은 오기영(吳起泳)이다. 오기영은 권관리의 이민도와 막역한 사이였고 이병헌과도 교류했다. 이민도는 면(面) 집주로 동학혁명 뒤 쇠퇴했던 천도교를 다시 일으켰으며 현덕면 3.1운동을 주도했던 인물이다. 오기영(吳起泳)은 오재환(남,



권관1리 최이래 효자문 앞 3.1만세운동 표지석(2019)

1928년생)의 조부다. 오재환에 따르면 조부는 천도교 집강(執綱)을 했다고 말한다. 집강(執綱)은 1884년 해월 최시형이 손병희 등 15인과 익산 가섭사에서 49일 동안 공부한 뒤 만든 6임제 직책 가운데 하나다. 6임제에 따르면 집강(執綱)은 ‘옳고 그름을 분명히 가려 판단을 내릴 사람’으로 임명해야 한다고 명시했는데 현덕면 전교실에서는 오기영이 그와 같은 역할을 했다. 조부의 천도교 신앙은 조모와 큰아버지 오상근에게 전승됐다. 오재환은 어릴 적 할머니가 ‘시천주...’로 시작되는 기도문을 매일 외우며 기도하던 모습을 자주 목격했다. 큰아버지 오상근은 수원교구로 교리강습을 다녔다. 교리강습의 영향으로 인식도 상당히 근대적이었던 것으로 기억했다. 현덕면 3.1운동의 주역이고 현덕면 전교실의 핵심 인물이었던 권관리 이인수(李麟秀)는 오재환의 친구(아웅기) 아버지였다.

하지만 오기영의 천도교 신앙은 손자 대까지 확장 계승되지 못했다. 마을 주민들에게도 크게 전파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작고한 홍병욱(남, 1922년생)이나 김영준(남, 1933년생)도 오재환 가문과 천도교의 관계를 알지 못했다. •



오기영의 후손 오재환(2020)

05.

두매교회가 장수전원교회가 되다

장수리 주민들이 천주교를 믿기 시작한 것은 한국전쟁 이후다. 오재환(남, 1928년생)도 전쟁 전에는 천주교인들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정인(여, 1939년생)은 50여 년 전부터 동네 사람들이 다녔다고 말해 대략 1966년 안중성당이 본당으로 승격되면서 시작된 것으로 생각된다.

이정인은 천주교인이다. 1980년대 초 손아래 동서가 전교했다. 천주교를 믿기 전에는 무속신앙에 의지했다. 신년에는 신점을 치며 한 해 운수를 가늠했고 늦가를 추수가 끝나면 많은 돈을 들여 굿을 했다. 그러다가 성당에 나가면서 무속신앙을 끊었다. 송순자(여, 1935년생)도 성당에 다닌다. 송씨는 1980년대 초 둘째 며느리를 얻을 때 아들이 천주교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결혼을 꺼리자 성당에 나갔다. 박순예(여, 1933년생)도 1960년대 후반부터 성당에 다닌다. 당시에 여덟, 아홉 집이 안중성당까지 걸어가서 미사를 드렸다. 1980년대 마을 안까지 버스가 들어오면서 신자 수가 증가했었으나 지금은 다섯, 여섯 집뿐이다.

우리나라 나사렛성결교회는 안중지역을 중심으로 발전했다. 특히 1940년 박기서 전도사에 의해 교세가 크게 성장했다. 박기서 전도사는 인광나사렛교회에서 목사안수를 받은 뒤 교회 성장을 이뤄내고 안중나사렛교회, 신포나사렛교회, 내기나사렛교회를 개척했다.

장수전원교회는 1964년 인광교회 지교회로 창립했다. 초기 교회 이름은 ‘두매교회’였다. 교회를 창립하기 전 교인들은 십리가 넘는 인광나사렛교회에 나갔다. 거리가 4km가까이 되었지만 주일 낮과 저녁 예배, 수요일예배를 빼먹지 않았다. 교인 수가 증가하면서 장수리에 지교회 창립이 논의됐다. 당시 나사렛교단은 지교회 창립에 적극적이었다. 인광나사렛교회도 적극 지원했다.

두매교회는 6가정 20여 명의 교인이 시작했다. 초기에는 교회당이 없어 마을공회당에서 예배를 드렸다. 초대 담임목사는 인광나사렛교회 김종수 목사가 겸임했다. 김목사는 인광나사렛교회에서 예배를 마친 뒤 두매교회로 와서 예배드렸다. 1966년에는 이봉환목사가 부임했다. 이봉환목사는 교회 신축부지 300평을 매입했다. 교인들은 건축현금으로 목사님의 뜻을 적극 지원했다. 이것으로 최초의 예배당을 신축했다. 신축한 교회는 예배당 한 칸, 기도실 한 칸 규모로 매우 작았지만 교인들의 기쁨은 이루 헤아릴 수 없었다.



웃말과 아랫말 사이 장수전원교회(2017)



장수전원교회(2017)

건축 후 기도하고 전도에 힘쓰면서 교회는 날로 부흥했다. 1973년에는 자립교회로 성장했고 윤희춘 목사가 초대 담임목사로 부임했다. 1970년에는 두매리가 장수리로 이름을 바꾸면서 교회 명칭도 ‘장수교회’로 바꿨다. 윤희춘 목사는 교회 건물도 신축 확장했다. 과거 이봉환 목사가 건축했던 것으로는 늘어난 교인 수를 감당하기 어려웠다. 신축건물을 헌당할 때는 이명옥의 장로 임직식도 거행했다.

교회가 부흥하면서 교인 수가 120명까지 증가했다. 교인들은 장수리를 넘어 이웃 마을 권관리와 신영리, 방축리에서도 왔다. 하지만 먼 거리를 오가며 신앙 생활하는 것은 불편한 점이 많았다. 장수리교회가 한참 성장할 때쯤 ‘권관리 교회’가 지교회로 독립했다. 권관리 교회의 독립은 장수교회의 성장을 위축시켰지만 교인들은 적극 지원했다.



장수전원교회 이용원 장로(2017)

2008년에는 교회 건물을 신축하며 ‘장수전원교회’로 이름을 바꿨다. 교회 이름을 바꾸는 데는 500만 원의 거금이 들었지만 반대하는 사람이 없었다. 신축교회를 헌당하면서 이용원과 정화영이 장로 임직했으며 17명이 임직식을 가졌다. 두매리공회당에서 처음 예배를 드리고 44년 만에 장로를 비롯한 중직자 30명을 가진 교회로 성장했다.

장수전원교회는 2014년 정덕섭 목사가 10대 담임목사로 부임했다. 그동안 신앙 여건은 더욱 나빠졌다. 농어촌 고령화와 함께 교인들의 고령화가 촉진됐고, 젊은층의 도시 정착으로 교회 안에서 청장년 신자가 급격히 줄었다. 아산만 갯벌의 맨손 어업 중단도 교회 재정에 어려움을 주었다. 정덕섭 목사는 현재 재직 교인 50명에 출석 교인 30, 40명 수준이라고 말했다. 장수전원교회는 아직까지 황해경제자유특구 현덕지구 사업이 본격화되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없



장수전원교회 예배장면(2017)



장수전원교회 목사님과 교우들(2017)



장수전원교회 정덕섭 담임목사(2017)

다. 어쩌면 경제자유특구 종교부지에 새로운 등지를 틀고 이전보다 크게 성장할지 모르지만 수십 년 교회를 지키며 신앙생활을 했던 교인들이 흩어지는 것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

06.

당제(堂祭)를 지내야
마을이 평안하지



장수리 당집과 당목(2018)

장수리는 음력 10월에 당제(堂祭)를 지낸다. 제당(祭堂)은 수루굴 가는 길옆에 있다. 제당 주위로는 엄나무와 참나무가 당숲을 형성한다. 당제는 오재환의 어린 시절에도 지냈다. 그렇다면 최소한 100년 이상의 내력을 지녔다고 할 수 있다.

당집은 시멘트벽에 기와를 얹은 1칸짜리 집이다. 내부에는 북쪽 벽면에 낮은 시멘트 제단을 만들었고 그 위에 어른 주먹 두세 개 크기의 돌을 올려놨다. 홍세기(남, 1947년생)는 이 돌이 거북이를 상징한다고 했다. 오재환에 따르면 과거에는 돌 대신 부서진 배의 파편을 올려놨는데 삭아 없어지면서 돌맹이로 바꿨다고 했다. 돌맹이는 ‘장수리가 바다였을 때 천지개벽이 이뤄지며 바윗돌이 굴러와 멈춘 곳에 집을 짓고 마을을 형성했기 때문’에 섬긴다. 김영일과 오재환은 옛날에는 당집을 해신당(海神堂)이라고 불렀다고 말한다. 해신당은 어민(漁民)들의 수호신을 섬기는 마을제당이다. 그렇다면 해신당은 과거 장수리가 어촌(漁村)이었다는 것을 의미한



장수리 마을제당(2019)



당제(산신제) 제물 진설 모습(2020)



당제 지내는 모습(2020)

다. 바다에서 생산물을 얻고 갯벌을 간척해서 먹고사는 사람들이 마을을 이뤘을 가능성을 엿보게 한다.

해신당(海神堂)은 섬기는 대상이 각기 다르다. 변산의 수성당은 마고할미를 섬기



장수리 당제 제물진설(2020)

고 동해안 삼척에서는 남근석을 섬긴다. 하지만 서남해안 일대에서는 용신(龍神) 숭배가 많다. 장수리 해신당도 용신(龍神)을 섬겼을 것이다. 1968년에 신축한 당집 상량 앞머리에도 용(龍) 자를 선명하게 써 놔고, 과거 당집 안에 뱃조각을 섬겼던 것을 통해서도 미뤄 짐작할 수 있다.

해신당(海神堂) 당제가 10월 상달에 산신제를 지내는 것으로 바뀌게 된 것은 간척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이다. 간척으로 만(灣)으로 유입되던 바닷물이 차단되고 갯벌이 메워져 농경지가 되면서 해신(海神)은 더 이상 의미가 없어졌다. 농민들에게는 해신(海神)보다는 산천을 주관하고 마을을 지켜주며 풍농과 안전을 도와주는 산신(山神)이 더 절실하게 다가왔을 것이다. 신격(神格)은 바뀌었지만 수백 년 모셔 온 신물(神物)과 신당(神堂)까지 버리지는 못했다. 본래 해신당이었던 제당에 산신제를 지내는 것이나 뱃조각과 돌맹이를 섬기는 것은 그와 같은 내력 때문일 것이다.



당제 중 소지올리기(2020)

장수리 당제는 음력 10월 초하루에 지낸다. 10월 당제는 추수감사의 의미가 강하다. 신격(神格)은 산신(山神)이다. 마을에서는 당제 일주일 전에 생기복덕(生氣福德)을 따져 흙 없고 정결한 사람으로 제관과 당주를 정했다. 장수리에서는 제관(祭官)을 ‘제주(祭主)’라고 불렀다. 제주와 당주가 선출되면 주민들에게 알렸고 금기를 철저히 지키도록 했다. 대문 양 옆에 황토를 펴고 청수를 떠 놓은 뒤 금줄을 쳤으며, 당샘의 물로 정결의식을 행하고 부부관계도 금했다. 동구(洞口)에도 금줄을 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했다. 옛날에는 제사비용을 집집마다 걷었다. 한국전쟁 뒤 천주교인과 개신교인들이 증가했지만 제비(祭費)만큼은 모두 냈다. 장수전원교회 이용원장로도 마을의 오랜 전통이라 동참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제일(祭日)이 다가오면 마을 청년들은 당우물을 깨끗하게 청소했다. 당우물은 평소에는 웅덩이였지만 당제를 지낼 때는 깨끗하게 청소했고 그 물로 당주가 제사음식을 만들었다. 흥병옥은 제물(祭物)로 잡 털 하나 없는 검은 돼지 두 마리와 삼색 실과, 떡, 조라술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백설기도 집에서 쌀가루를 찼어 직접 만들

었다. 그러다가 김영준이 이장했던 1960, 70년로 접어들면서 돼지는 한 마리만 잡았다.

당제 하루 전날에는 소염을 맡은 사람이 제당에 올라가 등불을 켜줬다. 밤 12시가 되면 제주와 축관, 그리고 마을유지들 몇 명이 제당에 올라갔다. 대체로 축관은 이장이 담당했고 제물을 진설하는 것은 반장들이 했다. 제의절차는 절하고 축원하고 헌작한 뒤 소지를 올리는 순서로 진행했다. 소지는 세대마다 하나하나 올려줬다. 시간은 많이 걸렸지만 그래야 액운을 막고 건강하며 복이 창성리라 믿었다. 제

의가 끝나면 간단히 음복하고 당주 집으로 내려갔다. 당주 집에서는 네모반듯한 한지를 펴놓고 제물을 공평하게 나눴다. 이것을 소염 맡은 사람이 지게에 지고 새벽 동 트기 전까지 집집마다 나눠줬다. 먹을 것이 부족했던 옛날에는 이 때래야 고기 한 점을 먹을 수 있었고, 제물(祭物)을 먹어야 일 년 동안의 액운이 막아진다고 믿었다.

장수리 당제는 후대로 오면서 제의 방식과 절차가 조금씩 변했다. 1960년대 후반에서 1970년대로 넘어오면서부터는 마을기금이 풍족하자 제비(祭費)를 마을기금으로 충당했다. 근래에는 제주나 당주를 서로 기피해서 이장이나 반장들이 직접 하거나 경륜 있는 분에게 부탁한다. 제물도 정육점에 돼지머리를 주문했다가 사오고 떡도 방앗간에서 찐다. 2019년도 당제의 제주(祭主)는 홍세기였다.

제의절차가 바뀌고 제관을 이장이 한다고 해서 정성과 간절함이 줄어든 것은 아니다. 지금도 주민들은 마을제를 지내서 마을이 평안하고 개인이 복을 받는다고 믿는다. 장수리 당제가 중단되지 않고 전승되는 이유다. •



장수리 마을제당 상량문(2017)

07.

추수 끝나면
굿하느라 시끄러웠어요

전통사회에서 무속과 민속은 떼려야 뗄 수 없었다. 의료혜택을 받지 못했던 사람들은 아프거나 문제가 발생하면 무당에게 달려가 기원하고 빌었다. 설령 집안에 나쁜 일이 자주 발생하지 않더라도 나쁜 액운을 막거나 건강과 복을 빌기 위해 달려가기도 했다. 새해 신점(新占)을 칠 때도 마찬가지였다. 무당의 입에서 한 해 운수가 좋다는 점괘가 나오면 마음이 평온해졌다. 집안 곳곳에도 신(神)을 섬겼다. 터주, 제석, 대감독, 조왕신, 측신 등 종류도 다양했다. 마을에도 당신(堂神), 산신(山神), 우물신, 서낭신, 거리신, 장승 등 벼라 별 신들이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나쁜 일이 반복되면 무당을 불러 굿을 했다. 추수가 끝나거나 새해가 되어도 굿을 해서 안전과 복을 기원했다. 무속인들의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보편적이었다. 질병에 걸려 무당에게 가면 푸닥거리도 했지만 침을 놓고 약을 지어 주기도 했다. 이정인은 이렇게 말했다.

“옛날에는 굿하고 점보고 그랬죠. 집안에도 터주, 성주독, 제석주머니 다 있었어요. 성주독은 가을에 햇 농사짓고 바뀌웠는데 급하면 먹기도 했슈. 새해 일이 안 풀릴 때는 무당한테 가서 신점도 보고, 굿도 했는디 그건 비쌌어요.”

장수리는 한국전쟁 전까지만 해도 주민들 대부분이 무속에 의지해서 생활했다. 무속이나 민속은 자연스런 삶의 일부였다. 그래서 마을에 무당이 있었고 희곡1리 땃골이나 만호리, 신영리에도 무당들이 있었다. 마을이나 주변에 거주하는 여자무당을 만신 또는 단골이라고 불렀다. 만신은 높임말이고 단골은 주민들이 마을 무당이나 일상적으로 찾아가는 무당을 일컬었던 표현이다. 해방 전까지만 해도 주민들은 추수가 끝나면 단골의 뒤편으로 곡식을 가져다 바쳤다. 또 단골들이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곡식을 걷기도 했다. 대가로 무당들은 주민들의 안녕과 복을 정기적으로 빌어줬다. 지금으로 말하면 주치의나 전문 상담사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장수리 무속신앙과 가정신앙을 증언한 오순분(2017)

멀리서 용한 만신을 모셔와 굿을 하면 몇백만 원씩 들기도 했다. 신영식(여, 1939년생)은 추수가 끝나면 이집에서도 쿵덕쿵덕 저 집에서도 푸덕푸덕했다고 말했다. 온 동네가 굿하며 감사하고 기원했음을 알 수 있다. 한국전쟁 뒤 천주교나 개신교를 수용하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무속이나 민속 행위를 배척하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1970년대 새마을운동 때 미신타파 분위기도 무속신앙을 약화시켰다. 세상이 바뀌고 주택개량이 이뤄지면서 가정 안에 모셨던 가신(家神)들도 더 이상 모시지 않게 되었다.

안은순(여, 1950년생)은 청북읍이 친정이다. 1972년에 혼인하여 장수리에서 살았다. 그도 신혼 때는 무속신앙을 의지했다. 가족 중에 병에 걸리거나 우환이 생기면 단골에게 달려가 점을 쳤다. 질병에 걸려도 무당을 찾았다. 우환이 거듭되면 곳을 했다. 곳은 비용이 많이 들었다. 안씨는 1970년대 말 곳을 하면 쌀 두세 가마씩 줬다고 했다. 돈으로는 300만 원까지 줬다. 그래서 비용이 많이 드는 큰 곳은 추수가 끝난 뒤에나 가능했다.

이정인(여, 1939년생)은 성당에 나가기 전까지만 해도 무속신앙에 의지했다. 집안에는 가신(家神)도 섬겼다. 아무리 가난해도 새해에는 마을의 단골에게 신점을 쳤다. 우환이 있거나 일이 잘 안 풀릴 때도 점을 쳤다. 우환이 계속되거나 큰 병으로 고통받으면 어려운 살림에도 곳을 했다. 1960년대 중반 곳에 들어가는 비용은 쌀 1가마 정도였다. 신점을 칠 때는 동네 단골에게 달려갔지만 곳을 할 때는 다른 지역에서 만신을 모셔왔다. 장수리 사람들이 자주 불렀던 만신은 방축리와 희곡1리 땃골 만신이였다. 그러다가 성당에 나가면서 더 이상 무당을 찾지 않는다. 신앙을 가지면서 삶이 깨끗하고 편해졌다.



장수리 무속신앙과 가정신앙을 증언한 방용열(2017)

김춘자(여, 1944년생)도 점도 치고 곳도 많이 했다. 평소에는 점을 쳤지만 안 좋은 일이 자꾸 생기면 무당을 불러 곳을 했다. 곳을 할 때는 방축리



무속신앙과 가정신앙을 증언한 이상분, 신영식(2017)

만신을 불렀다. 마을 사람을 부르면 웬지 신통력이 떨어지는 것 같았다. 1980년대 곳을 할 때면 50만 원을 줬다. 몇백만 원씩 주는 사람도 있었지만 무당들은 집안의 형편을 봐서 더 받기도 하고 덜 받기도 했다. 곳은 비용이 많이 들어 가난한 사람은 하지 못했다. 그래서 가난한 집에서는 남의 집에서 굿하는 소리가 들리면 무척 부러워했다.

아랫말 김영준(남, 1933년생)의 집 뒤에는 아름드리 해나무가 있다. 해나무는 서너 사람이 둘러서야 할 만큼 큰 나무였다. 옛사람들은 큰 나무에는 신령이 깃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오재환의 큰아버지 오상근 댁에서는 정월이면 해나무에 고사를 지냈다. 윗말 마을회관 옆에도 해나무 고목이 있었다. 이 나무도 오씨 집안을 비롯해서 몇몇 집에서 섬겼다. 그러다가 땅 주인이 교회를 나가면서 우상숭배라며 베어버렸다.

아랫말에는 1950년대 초 김 종렬이 심은 느티나무가 있다. 느티나무는 잘 자라서 넓은 그늘을 드리운다. 느티나무는 동네사람들의 쉼터다. 1980년대 초에는 마을에서 나무 주위에 시멘트를 발라 정자를 만들었다. 하지만 근래에는 느티나무 그늘을 찾는 사람은 거의 없다. 농사일도 힘들게 하지 않는 데다 마을 노인정이 있기 때문이다.



장수리 무속신앙과 가정신앙을 증언한 박재순(2017)

08.

장수리의 대동잔치 ‘한가위 축제’



장수리의 가을(2015)

대동놀이는 마을공동체의 결속과 풍농을 기원하는 행사다. 농촌마을의 대동놀이로는 줄다리기, 고싸움, 기세배가 있다. 우리나라 대동놀이는 생산활동과 관련된 종교적 행위가 많다. 장수리에는 정월 대동놀이가 없었다. 다만 어른들은 웃놀이를 하고 아이들은 제기차기, 딱지치기, 자치기(토끼치기), 비석치기를 하며 놀았을 뿐이다.

‘한가위 축제’는 근래 시작된 장수리 대동놀이이다. 한가위축제는 1997년 시작됐다. 출향인들이 만든 ‘장수리향우회(회장 정화진)’가 장수리 대동회와 공동으로 5월 5일 ‘고향 방문의 날’을 개최한 것이 효시다. 장수리 대동회는 고향을 방문하는 출향인들을 대접하고 마을 어른들을 공경하며 주민들의 화합을 위해 노래자랑과 마을잔치를 벌였고 출향인들은 전세버스를 동원해서 고향을 방문하여 함께 즐겼다. 매년 개최됐던 고향 방문의 날은 여러 가지 사정으로 4회 정도 개최되다가 중단됐



2004년 장수리 추석맞이 머느리 노래자랑

다. 이것을 장수리 마을단체들과 장수리장학회가 계승하여 2004년에 시작한 것이 ‘추석 명절 손님맞이 체육대회 및 머느리 노래자랑’이다.

‘추석명절 손님맞이 체육대회 및 머느리 노래자랑’은 MBC문화방송의 ‘화제집중’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방영할 정도로 주목받았다. 식전 행사로 사물놀이팀이 공연했고 1부는 체육대회, 2부는 장학금 수여, 3부는 머느리 노래자랑 순으로 진행됐다. 체육대회는 여성들과 아이들을 고려해서 홀라후프돌리기, 물동이 이고 달리기, 이엉 엮기, 줄다리기 처럼 토속적이고 정감 넘치는 종목으로 치렀다. 장학금 지급은 1998

년 창립한 장수리장학회에서 수여하는 행사였다. 2004년 첫 회 행사에서는 대학생 3명, 고등학생 5명, 중학생 2명에게 각각 70만 원, 50만 원, 20만 원씩 수여되었다. 머느리 노래자랑은 안중에서 전문 악사와 음향기기 전문가까지 불러서 개최했다. 결혼 후 장수리에 정착했거나 장수리 청년과 결혼한 부녀자들이 출전했는데 열기가 뜨거웠다. 노래자랑 상품으로는 쌀이 수여됐다.

이날 행사에서 주목받은 것은 장수리향우회에서 도안한 행사 팸플릿이다. 팸플릿 앞면에는 장수리 앞바다를 배경으로 날아가는 독수리 3마리가 그려졌는데, 2면 해설에는 ‘독수리는 진취적이고 용맹한 장수리 마을을 상징하고, 3마리 독수리는 대동회, 장학회, 향우회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장수리 해신당의 내력과 음력 10월 초하루에 지내는 당제도 소개했다. 팸플릿은 축제의 목적이 주민들



2015년 한가위대잔치 순서 및 종목

의 화합과 마을의 정체성 확립에 있음을 알게 한다.

2005년 9월부터는 행사 명칭이 ‘추석명절 손님맞이 체육대회 및 노래자랑’으로 명칭에서 ‘며느리’가 빠졌다. 이날 행사내용은 ‘달맞이 노래자랑’, ‘체육대회’, ‘장학금 및 공로패, 감사패 수여’로 이전과 비슷했다. ‘달맞이 노래자랑’에서는 1등 상품으로 예초기, 2등 핸드폰, 3등 청소기를 수여하여 주민들의 기호가 이전과 달라졌음을 보여줬다. 체육대회는 기존의 토속 종목인 이영 엮기 등이 빠지고 노인들도 참여할 수 있는 공굴리기, 선물낚시, 제기차기에 젊은층이 참여할 수 있는 마라톤이 추가됐다. 이밖에 장수리장학회 명예회장 오재환과 회장 김영주가 공로패를 받았고, 장수리보건진료소장 오명희가 감사패를 받았다.

‘추석명절 손님맞이 체육대회 및 노래자랑’이 ‘한가위 축제’로 명칭을 변경한 것은 2008년경이다. 매년 치러지던 행사도 평택시민체육대회 및 현덕면민체육대회와 겹치는 것을 고려해 격년제로 바뀌었으며, 주최도 대동회와 마을단체들이 연합하여 개최하는 행태로 바뀌었다.

2013년 ‘한가위 축제’는 그와 같은 변화를 보여준다. 이날 인사말은 안홍규 이장, 김영주 장학회장, 김영준 노인회장이 했으며, 방법위원회(위원장 김진옥), 부녀회(회장 김정애), 청년회(회장 김찬호), 어촌계(계장 김영국)가 나서 행사 준비와 진행을 맡았다. 축제는 12시에 시작되었다. 주민들과 출향인들은 부녀회가 준비한 돼지고기구이와 찌개, 막걸리로 식사했으며, 체육대회와 장학금전달식, 노래자랑이 순서대로 진행됐다. 2005년과 달라진 것은 체육대회 종목에서 제기차기와 공굴리기가 빠졌다는 점이다. 또 장학금은 대학생 1명에게 70만 원, 두 명에게는 각각 50만 원씩 지급됐으며, 고등학생 1명에게는 20만 원, 중학생 1명에게 10만 원을 지급했고, 초등학생 1명에게는 10만 원 어치의 선물을 지급했다. 노래자랑 상품도 1등 자전거, 2, 3등 햅쌀로 바뀌었다.



장수리 마을깃발을 들고 있는 김영일(2018)

한가위축제는 2015년, 2017년, 2019년(이장 공경구)에도 개최되다가 코로나 사태로 일시 중단되었다. 큰 변화는 없지만 장수리가 경기경제자유구역 현덕지구에 포함되면서 보상대책위원회(위원장 안홍규)가 주요 단체로 참여한 것이 눈에 띈다. 체육대회에서는 가족 간의 화합을 보여주는 가족줄넘기가 새로운 종목으로 추가됐으며 전문사진사가 행사과정을 기록하기 시작한 점도 특징이다. •

장수리 사람들 사진

인터뷰에 응해주신 분들 (가나다 순)



공창수 부부



김덕수



김영일



김영준



김재분



김진홍



김춘자



박순예



박재순



공경구



공길구 부부



박정숙



방용렬



봉하섭 부부



서명석



손기분



송순자



신영식



안은순



안홍규



오말영



오명희



오순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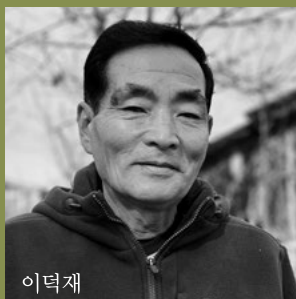
오영환



오장환



이강환



이덕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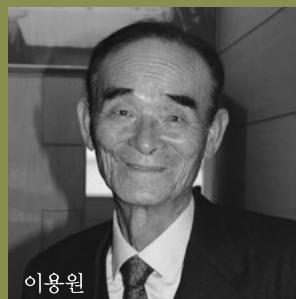
이상분



이영순



정영옥과 이옥희



이용원



이재희



이정인



이희수



인명희



임순희



정덕섭



홍병욱



홍세기



이광길 이용원 오세봉 송영덕 안인규



사라지기 전 그리움을 남기다

발행일	2022년 12월 30일
발행인	이보선(평택문화원장)
글	김해규(평택인문연구소 소장)
사진	최치선(평택문화원 부설 평택학연구소 상임위원)
발행처	평택문화원
주소	경기도 평택시 중앙로 277(비전동)
전화	031-655-2002
팩시밀리	031-654-8807
디자인 및 인쇄	(주)이다
저작권자	평택문화원
ISBN	978-89-93983-64-7

※ 이 책의 내용과 사진에 대한 저작권은 저자와 평택문화원에게 있습니다.
저자와 평택문화원의 동의없이 내용 및 사진의 전부 혹은 일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